전후 남조선에서 감행된 미제의 범죄적만행자료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4(2015)

전후 남조선에서 감행된 미제의 범죄적만행자료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4(2015)

머 리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인종주의정책과 인간살륙만행에 대하여 똑똑히 알고 반제반미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쓸어버리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5권 422페지)

해방후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는 남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고 인민들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다. 특히 조선침략전쟁에서 만회할수 없는 대참패를 당한 미제는 그것을 앙갚음하려는 야수적본성으로부터 전후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살륙만행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전쟁의 불길은 멎었으나 남조선에서는 미제살인귀들의 몸서리치는 귀축같은 만행이 그칠 날이 없었고 날로 더욱 우심해갔다.

미제야수들은 남조선인민들을 꿩이나 오리와 같은 사냥감으로, 한갖 심심풀이를 하는 도락과 릉욕의 대상, 노리개로 보고있다. 때문에 미제침략군 야수들은 남조선인민들을 남녀로소 가리지 않고 보이는대로 살륙하고 릉욕하며 강탈하는것을 하나의 쾌락으로 여기고있다.

최근년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지난해만 놓고보더라도 미군병사들이 부대병영과 지하철도, 승강기안에서 남조선녀성들을 성희롱한 사건, 총탄을 쏘아대며 시민들을 위협한 사건, 남조선인민들을 집단구타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사건, 돌을 던져 주민들의 승용차를 파손시킨 사건, 군사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수한 사건, 무고한 주민들을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 괴뢰경찰과 합의도 없이 수갑을 채워 미군기지까지 끌고간 사건 등 매일같이 미군범죄가 끊기지 않고 일어났다. 괴뢰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범죄건수는 총 1 489건에 달하며 해마다 300건이상의 미군범죄가 발생하고있다고 한다. 그중에서 폭력, 절도, 마약, 성범죄, 강도, 방화,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미제침략군범죄의 44%를 차지하고있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는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하기에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병사 윌리암 제크는 《미군은 가는 곳마다에서 맞다드는 남조선사람들을 모두 두들겨패고 보이는것은 모조리 빼앗는것을 당연시하였고 녀성들을 보면 닥치는대로 강간을 서슴지 않았다. 나어린 소녀도 애를 안고 사정하는 부인도 미군에 강간당하고 버려졌으며 이에 항거하는 사람은 그가 젊은이건 늙은이건 가차없이 쏴죽이고 때려죽이였다.》고 저들의 만행에 대하여 고백하였다.

오늘도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참을수 없는 온갖 민족

적모욕과 갖은 멸시를 받고있으며 생존의 권리마저 항시적으로 위협당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미제야수들에 의하여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는 날이 없으며 미제원쑤들에 대한 겨레의 원한과 분노는 하늘땅에 사무치고있다.

겨레의 피는 결코 물이 아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의 칼을 벼리며 핵참화로 온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미제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남조선에서 감행된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절대로 잊지 말고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제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을 선군의 총대로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한을 천백배로 복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고 반드시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워야 한다.

도서는 전후이후 2000년대까지 남조선에서 감행된 미제의 야수적인 범죄만행에 대하여 남조선의 신문, 출판물에 공개된 자료를 기본으로 일지형식으로 폭로하여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반미계급교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출판하였다.

도서에서는 1970년대 후반기부터 남조선에서 미제의 범죄행위가 줄어든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남조선괴뢰들이 미제의 대조선정책에 굴종하여 출판보도물을 엄격히 단속통제한것과 관련하여 미제의 범죄행위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있으며 공개되는 단신자료들마저 삭제되여 그 진면모를 다 알수 없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독자들이 읽어주기를 바란다.

1953년

—9월 27일

◦ 19시 40분경 서울시 종로 4가 83번지에 사는 남상일(82살)의 시계매대에 찦차를 타고 들이닥친 3명의 미제침략군은 매대진렬장을 파괴하고 2개의 시계를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11월 22일

◦ 19시 15분경 서울에서 경기도 부평까지 택시를 타고 가던 미제침략군 병사가 단도를 빼들고 운전사 류태옥(49살)을 협박한 후 그를 차밖으로 밀어던지고 택시를 강탈하여 영등포방향으로 달아났다.

1954년

—1월 24일

◦ 15시경 미제침략군 1명이 경기도 고양군 중면 일산리 길가에서 정한영(45살)을 아무 리유없이 고의적으로 권총으로 쏘아죽이였다.

—2월 5일

◦ 18시경 부산시 철도연선에 부설되여있는 미제침략군 송유관에서 불이 당겨 방적기재 109대를 비롯하여 전기시설부속품과 식료품을 만재한 화물렬차에 화재가 일어나 약 1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2월 15일

◦ 9시경 대전—부산행 제135화물렬차 승무 772헌병대 2중대소속 상사 브라운 외 1명은 기차가 고모—경산사이를 달릴 때 교통부 직원 리종근을 다짜고짜로 권총으로 구타하였으며 그것도 부족하여 손발을 묶은 다음 달리는 렬차에서 밖으로 차던지였다.

◎ 3시 35분경 트럭을 몰던 미제침략군 운전사가 부산북쪽 500m지점에 있는 일신려관을 들이받아 파괴하고 잠자고있던 3명의 주민을 즉사시켰다.

—3월 16일

◦ 23시 30분경 경기도 시흥군 안양리에서 183병기대대 경비중대소속 병사가 변연금 외 6명의 점포와 살림집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폭행을 가하여 2만여원의 손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4월 9일

◦ 19시경 72헌병대소속 하사 딕슨은 서울시 청량리역 운전사무소앞에서 사무소 직원 려경섭(29살)과 씨름을 하다가 지게 되자 분풀이로 권총을 쏘아 복부관통상을 입혀 즉사시켰다.

－4월 21일

◦ 5공군사령부는 대어장의 하나인 철산어장의 한가운데 있는 대소형제도에 폭격연습장을 설치하고 폭격훈련을 감행함으로써 어민들의 어로작업이 중지되고 수만명에 달하는 이 부근의 주민들의 생활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4월 30일

◦ 부산 7항만사령부의 미제침략군은 남조선로동자들이 최저생활비의 1/10도 안되는 기아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한다고 하여 수석검수 로동자 1명을 즉사시키고 또 1명은 총살하였다.

－5월 3일

◦ 9시 40분경 트럭을 타고 질주하던 미군병사가 앞서가는 대학생 류용봉(29살)의 모자를 뒤에서 잡아채여 그 학생이 넘어지면서 차에 치여 죽게하였다.

－5월 21일

◦ 2시 5분경 부산시 부산진역 구내에 있는 772헌병대가 역의 조차수로 일하는 정기조가 10분간 늦게 일어났다 하여 그를 헌병대휴계실에 끌어다 폭행을 가하여 죽이였다.

－5월 23일

◦ CAC 고문인 씨. 에취. 프레망이 《대한석탄공사》소속 하왕십리공장, 마포 제1공장, 인천 제2공장 등의 설비들을(당시 화폐로 6억 3 200여만원) 략탈하여 매각, 사취하였다.

－6월 14일

◦ 21시경 4명의 미제침략군이 인천시 론현동 3구 2반에 사는 김희자(21살)의 집에 뛰여들어 그를 산속으로 끌고가 강간하였을뿐아니라 이 만행을 경찰에 알리려던 그의 할머니 조아무개를 무참히 때려 중상을 입혔다.

－6월 23일

◦ 3시경 R. T. O. (철도수송사령부)소속 3명의 미군이 인천시 북성동 2가 2번지에 사는 함진숙(31살)을 강제로 끌어내다 하인천역구내에 있는 화물차안에서 륜간하였다.

－7월 2일

◦ 12시 35분경 해병대소속 G. M. C. 운전사 1등병 알트엘 스티워드(25살)가 서울시 서대문구 갈현동에서 남조선청년을 권총으로 까닭없이 쏘아 즉사시켰다.

－7월 5일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51번지 앞도로상에서 미제침략군 30여명은 지나가는 리경훈(33살) 외 2명에게 집단구타하여 리경훈을 졸도시키고 2명에게는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7월 15일

◦ 12시 10분경 부산시 부전동에 있는 성북국민학교부근에서 공병대소속 야수들은 석재를 채취한다고 다이나마이트를 마구 폭파시켜 32kg이나 되는 돌이 교실에 날아들어 공부하고있던 2학년생들인 정진영(9살)은 머리가 산산히 깨여지고 조을제(9살)는 배가 터져서 죽게 하였다.

◦ 13시경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원곡리에 설치된 미제침략군 송유관에서 류출된 휘발유에 불이 붙어 김국진 외 2명의 주민이 불에 타죽었으며 주변 4 800여평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8월 24일

◦ 21시경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19보급대앞에서 20여명의 미군은 길가는 리인숙이 저들의 추잡한 요구에 불응하자 그를 부대담장옆에 끌고가 륜간한 후 하수도구멍에 처넣었으며 또한 같은 시각에 10여명의 미군야수들은 19살가량 되는 다른 처녀를 륜간하고 달아났다.

◎ 8월 4일부 《민주신보》에 의하면 경상남도 김해군 대저면 덕두리에서 1503공병기지사령부소속 미군이 살포한 독해물에 의하여 20여정보의 벼가 전멸되였으며 20여명의 주민들이 심하게 중독되였다.

－9월 10일

◦ 10시 40분경 부산시 중앙동 4가에서 미친듯이 짚차를 몰던 미제침략군이 인도로로 걸어가던 주민들을 들이받아 1명(녀성)을 즉사시키고 박성춘(48살)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10월 9일

◦ 23시경 미제침략군 병사가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에 있는 채규선이 운영하는 상점에 침입하여 그를 쇠절구로 때려 살해하고 담배 11곽과 현금 150원을 략탈하였다.

－10월 22일

◦ 12시경 경상북도 영천군 청통면 호당동에서 미제침략군 2명은 들판에서 벼가을을 하고있던 최복원농민을 백주에 꿩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사냥총을 쏘아 중상을 입혔다.

－11월 1일

◦ 11시 10분경 24포병단소속 운전사 하사 도널은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앞도로에서 화물차로 미친듯이 질주하면서 길가에 피해 서있는 주민들을 고의적으로 깔아 송덕운을 죽이고 7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11월 2일

。 부산시 부산진역구내 석탄적재소에서 미제침략군 헌병이 구내에서 근무중이던 김일렬(부산역 구내부두 운전사무소소속 30살)에게 무턱대고 총을 쏘아 그에게 중상을 입혔다.

－11월 4일

。 7시 40분경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현촌간지점에서 철도연선에 부설해놓은 미제침략군 송유관이 폭발되여 이 지점을 통과하던 제872렬차에 불이 당겨 객차 3대가 파괴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 리준원 외 2명이 불에 타죽고 3명의 기관차승무원이 심한 화상을 입었다.

。 12시 30분경 인천시 신흥동에 둥지를 튼 미제침략군이 부대앞을 지나가는 김홍옥(15살 인천시 도원동 41번지 거주)소년을 병영에 끌어다 구타하고 라체로 만든 후 전신에 뼁끼칠을 하고 목을 매여 끌고다니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조선소년뼁끼칠사건)

－11월 6일

。 17시경 미제침략군 공군소속 팔찌 죤지 외 2명은 전라북도 군산시 을지로에 사는 안복순(19살)에게 카빈총으로 위협사격하여 그를 부근에 있는 빈 화물차속으로 끌고가 륜간하였다.

－11월 13일

。 4시경 강원도(남) 춘천시주둔 미제침략군 보급부대소속 병사 워커가 춘천시 산흥동에 사는 오만성녀성이 자기의 추잡한 요구에 불응한다고 하여 그의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11월 24일

。 21시경 부산시 감만동에서 226병기대소속 미제침략군 야수가 길가는 라기출(35살)을 단도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12월 1일

。 21시 10분경 296수송대소속 2등병 죠셉스 스콘이 군용화물차를 몰고 부산시 대청동 1가 미국공보원 근방도로를 달리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자유신보사》 인쇄부장 황대윤(42살)의 복부를 《장난삼아》 카빈총으로 쏘아 즉사시켰다.

－12월 11일

。 인천시 부평동에서 한 미제침략군 병사가 그 근처를 지나가던 청년을 총으로 쏘아 즉사시켰다.

－12월 23일

◦ 6명의 미제침략군이 부산역 초량역구내에서 석탄을 줏고있는 김영복(26살)과 리금순(14살)소녀를 목욕탕에 끌고가 옷을 벗긴 다음 갖은 추잡한 짓을 다하였다.

1955년

－1월 14일

◦ 《대한해운공사》 부산지점앞에서 미제침략군 운전사 도날드 이후리클이 고속으로 차를 몰아 인도로상에 있던 서병근 외 4명을 깔아죽이고 다른 4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 서울시 동대문구 리문동에서 미제침략군 경비원이 박성학의 둘째딸(14살)을 고의적으로 총으로 쏘아 즉사시켰다.

－1월 17일

◦ 미제침략군 15명이 부산시 대창동 3가 2번지 우만수(36살)의 상점에 뛰여들어 그를 구타하고 칼로 목을 찔렀으며 상품을 털어갔다.

－1월 28일

◦ 21시경 2명의 미제침략군이 부산시 동구 범일동 8동 2반에 사는 홍순정(31살)의 집에 침입하여 집에 불을 질러 많은 피해를 주고 달아났다.

－1월 30일

◦ 13시경 미제침략군 2명이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갈산리 김양옥의 집에 뛰여들어 녀자를 내놓으라고 추태를 부리다가 거절당하자 그의 집에 불을 질러 가장집물을 모조리 불태워버리였다.

－2월 15일

◦ 12시 20분경 서울시 룡산구 동이촌동 296번지에 있는 미제침략군 송유관에서 미군병사 2명이 화재를 일으킴으로써 부근살림집 5동을 소각하고 김원남(2살), 김기남(녀자 5살), 로상원(7살), 한도익(녀자 16살) 등 어린이들이 불에 타죽고 박순안(녀자 30살) 등 5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다.

◎ 19시경 서울역구내에서 한 미제침략군 병사가 리창희(36살) 외 2명에게 사냥총 3발을 발사하여 그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3월 4일

◦ 22시경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금파리에 둥지를 틀고있던 24사단 21련대소속 야수들은 《통행금지》구역에 접근하였다는 리유로 그 주변마을에서 사는 녀성들인 리용수(19살), 김옥순(29살), 리용순(21살) 등에게 카빈총을 란사하여 모조리 살해하였다.

◎ 미제침략군이 1952년 8월 전라남도 광산군 서창면 농민들의 토지 80여 정보를 아무런 보상도 없이 군용지로 강탈한 후 1955년 3월 현재까지 이 농토를 황폐화시키면서 반환도 하지 않았다.

－4월 6일

◦ 12시경 서울시 영동포구 문래동에 둥지를 틀고있던 501공병대소속 보초병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부대정문을 통과하는 조선인로무자 리영순(26살)에게 권총사격으로 머리를 관통시켜 치명상을 입혔다.

－4월 23일

◦ 15시 30분경 청량리－룡산행 제101호 려객렬차를 타고가던 미제침략군 병사가 기차가 서울시 성동구 마장구부근에 멎자 그 주변에서 놀고있던 20여명의 학생들에게 권총사격을 가하여 그중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이선리에 사는 오태규(8살)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4월 25일

◦ 5시 40분경 경기도 양주군 료해면 월계리에서 미제침략군 병사가 논을 갈고있던 조선한(25살)을 심심풀이로 총을 쏘아죽이였다.

◎ 미제는 남조선당국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문화재해외전시안》이라는 것을 강압통과시키게 하고는 1차로 403점에 달하는 문화유물을 미국으로 끌어갈 계획을 세우고 신라무덤들을 도굴하였다.

－5월 1일

◦ 21시 30분경 부산에 둥지를 튼 414부대소속 1등병 라니 하지상이 초량동 400번지에 사는 김길자(녀자 25살)를 수면제로 실신케 한 후 라지오를 비롯한 가장집물을 강탈하여가지고 달아났다.

－5월 18일

◦ 9시경 경상북도 아포면 대신역에서 54렬차에 타고있던 미제침략군 병사가 전야작업을 하러온 어머니 리용단(26살)을 따라와 밭에서 놀고있던 인용자(8살)와 그의 동무 서후률(7살)을 카빈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5월 19일

◦ 11시 40분경 부산시 동구 라천동 철도연선에 설치된 미제침략군 송유관에서 일어난 화재로 주변살림집 7동이 불에 타고 3명의 사망자와 2명의 중상자를 냈다.

－5월 31일

◦ 부산시 영주동에서 772헌병대 부산 2중대소속 2등상사 악센 엔지 외 1명은 리만우(48살)와 김덕술(25살)을 곤봉으로 때려눕히고 김덕술의 집 유리창을 파괴하고 달아났다.

—6월 10일

◦ 17시 30분경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에서 미제침략군 기중기차운전사가 차를 보고 도로밖으로 피한 군산시 해방동에 거주하고있는 김갈망(60살) 외 2명의 부녀자들을 고의적으로 기중기쟈끼로 내리쳐 죽이고 달아났다.

—6월 15일

◦ 대구시 칠성동에서 중사 부라웅이 침산동 3구 27번지에 사는 추교태의 동생 추교득(17살)을 고의적으로 총을 쏘아 즉사시켰다.

—6월 19일

◦ 인천에서 전쟁연습에 돌아치던 미제침략군 병사가 권총사격훈련장에서 사격장밖으로 지나가던 인천사범학교 학생 송옥분(녀자 18살)에게 고의적으로 머리를 겨누어 쏘아 즉사시켰다.

—7월 16일

◦ 24시경 728헌병대소속 1등병 듀린스 데웨일이 자고있는 리아무개(13살) 소녀의 방에 뛰여들어 추잡한 행위를 하다가 부모들이 항의하자 그들을 권총으로 구타하여 부상을 입혔다.

—7월 20일

◦ 15시.30분경 부산시 전포동 철다리우에서 24사단 19련대소속 미군병사가 담배를 팔고있는 리창성에게 달려들어 돈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나다가 다리우로 지나가던 정인석을 떨어뜨려 즉사케 하였다.

—7월 24일

◦ 17시경 6173부대소속 미군병사가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원정리에 사는 고두기(8살)소년이 부대근방에 있다고 하여 철없는 그를 권총으로 쏘아 즉사시켰다.

—8월 9일

◦ 23시 40분경 미제침략군 병사가 부산시 법전동에 있는 성지국민학교에 섬광탄과 음성탄을 발사하여 교사를 불태움으로써 1 500여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

—8월 12일

◦ 전쟁연습에 날뛰던 미제침략군 초계정은 월미도앞바다에서 어로작업을 하고있던 어부들에게 미친듯이 포사격을 가하여 신한균(33살)을 즉사시키고 김근환(27살)과 고복렬(21살)에게 중상을 입혔다.

—9월 5일

17시경 찦차를 타고 가던 미제침략군 병사가 일동에서 서울로 오던

뻐스가 신북지점을 통과할 때 뻐스에 돌을 던져 김승오(21살)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9월 6일

◦ 23시경 서울시 영등포 역전에서 728헌병대소속 하사 하부사리(21살)가 5명의 어린이들을 무턱대고 때렸으며 그를 제지하려는 장기철(27살)을 고무호스로 때려 중상을 입혔다.

－9월 20일

◦ 21시 30분경 미제침략군 2명이 부산시 부전동 앞길에서 부전동 59번지에서 사는 김승수(17살)를 권총으로 련발사격하여 흉부관통상을 입혔다.

－10월 17일

◦ 15시경 미제침략군 공군소속 헌병이 경상북도 달성군 동촌면 검사동 2구에서 사는 민이윤의 셋째아들(8살)이 탄피를 줏는것을 보고 《도적》으로 몰아 사냥총으로 쏘아죽이였다.

－10월 22일

◦ 8시 30분경 침략전쟁연습에 날뛰던 미제침략군 공군소속 비행기는 경상북도 상주군 중동면 간상리에서 보리파종을 하는 농민들을 《지상목표》로 삼아 폭탄을 투하하여 박문선(27살)농민을 즉사시켰다.

－11월 30일

◦ 15시 5분경 55부대소속 1등병 트리스나피가 차를 몰고가다가 서울시 세종로거리 아현동에서 사는 민윤식을 권총으로 쏘아죽이였다.

－12월 1일

◦ 21시 10분경 7사단소속 사병 암댑스가 서울 한강다리 인도로에서 야간작업을 하고있던 로동자 박순진(42살)을 엠완총으로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

－12월 7일

◦ 8시 30분경 부산시내에 둥지를 틀고있던 142보급창소속 2등병 하느겟와드(21살)가 18살난 소년을 무턱대고 카빈총으로 쏘아 즉사시켰다.

－12월 19일

◦ 20시경 미제침략군 2명이 경남 11945호 영업차를 타고 복산역에서 초량동 제4부두 해상수로국까지 와서 뻐스료금을 요구하는 운전사 리명규(32살)를 구타한 후 칼로 온몸을 찔러 치명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12월 25일

◦ 19시경 K－6비행장(평택비행장)에서 근무하는 미제침략군 운전사가

고속으로 차를 몰다가 평택중앙국민학교옆에 있는 림재성의 집을 들이받아 파괴하고 그의 처 리암, 딸 림군자(2살)와 놀러왔던 옆집 녀자 고해석을 깔아죽이고 그외 4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 이 시기 미제가 15세기의 이름난 화가 안견의 《적벽도》와 18세기의 화가 심사정의 《강상야박도》 등 유명한 그림들과 관음상 및 미륵보살상을 비롯한 불상조각품들 그리고 고려청자소문사이병, 조선봉건왕조백자상감병 등을 강탈해갔다.

1956년

—1월 12일

◦ 14시 30분경 10포병대소속 1등병 보갈이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00번지 앞도로에서 장갑준을 권총으로 고의적으로 쏘아 즉사시켰다.

—1월 21일

◦ 3시경 부산항에서 863수송대소속 2명이 어선 《덕신》호 외 1척에 《신호에 불응한다.》는 리유로 사격을 가하여 부산시 동상동에 사는 김창식(32살)을 그자리에서 죽이고 신수복(31살) 등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1월 22일

◦ 22시 40분경 2명의 미군이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에서 영화관람을 하고 돌아오는 최금임(19살)을 강간하려다가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권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3월 1일

◦ 10시 15분경 36보급중대소속 미군병사가 서울로부터 인천방향으로 차를 타고가다가 서울시 영등포동에서 길가던 영등포녀자중학교 1학년생 류춘자(17살)를 카빈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 미제가 경주박물관에 있던 금관(모조) 2개를 강탈해갔다.

—4월 1일

◦ 4시경 미제침략군 병사가 경상남도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내정부락에 있는 김명혜(56살)의 집에 기여들어 현금 6만 6 500원과 옷류 15점을 때앗아가지고 달아났다.

—4월 23일

◦ 미제침략군 505부대에 종사하고있던 김박(17살 서울시 영등포구 중앙동 거주)이 미제침략군 총에 맞아 죽었는데 놈들은 그의 시체도 돌려주지 않았다.

—7월 18일

◦ 김포비행장 미군부대소속 하사 관스(21살)가 물건을 사준다고 하면서

로무자 손세웅(16살)으로부터 50US$를 사취하고는 그 소년이 돈을 반환할것을 요구하자 권총 3발을 발사하여 살해하였다.

－7월 27일

◦ 미군병사 모리스 길조가 인천시 승의동 438번지에 사는 장성권(42살)의 집에 침입하여 부엌에 휘발유를 뿌려 화재를 일으킴으로써 집이 불타고 방에서 자고있던 장성권의 어머니 김선화(72살), 딸 금례(11살), 금선(7살), 금만(2살)은 화상으로 죽고 처는 심한 화상을 입었다.

◎ 미제가 공주 마곡사의 금동제품들을 훔쳐갔다.

－8월 7일

◦ 3명의 미제침략군이 경기도 김포군 양동면 신당리에 있는 고인길의 집에 뛰여들어 그의 처를 때려눕히고 현금을 비롯한 집재산들을 털어가지고 달아났다.

－8월 9일

◦ 21시 20분경 34련대 중포중대소속 미군병사가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가던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 146번지에 사는 윤명구를 보초소근처를 지나간다고 하여 총으로 쏘아죽이였다.

◦ 23시 40분경 32련대 2중대소속 2등병 밀리 제일스와 중사 맥돈오후 토마스가 인천시 《인천한국금광산업주식회사》의 경비실에서 회사원들인 정명근(50살), 최성준(46살), 최언호(42살)를 학익동 400번지 도로상에 끌어내여 총탁으로 때려 중상을 입혔다.

－8월 11일

◦ 16시 30분경 36GP547의 표식을 단 6대의 화물차에 탄 70여명의 미제침략군이 경기도 양주군 로해면 도봉리 도봉산에 이르자 그 일대의 잡화상점들과 살림집들에 뛰여들어 상점물건들과 집재산들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9월 7일

◦ 15시경 남조선주둔 미국경제조정관 숙소와 미국대사관의 경비임무를 담당한 맥패든 보호사 사장 리챠드 에취. 맥패든이 로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요구한다고 하여 조동광을 자기 집에 감금하고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다.

－9월 24일

◦ 18시 30분경 부산시 대연동에 둥지를 튼 통신부대소속 미그벨 에이. 솔로가 시내 범전동에 사는 학생 김종술이 같은 부대소속 중사 하린스와 언쟁을 하는것을 보고 다짜고짜로 권총으로 그의 복부를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

◦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문산리에서 24사단소속 1등병 훌벨(27살)이 서울사범대학 학생 김은겸과 농민 우원환에게 권총을 발사하여 우원환을 즉사케

하고 김은검에게 부상을 입혔다.

—10월 1일

◦ 15시 10분경, 인천시 미군수송대소속의 한 병사가 인도로로 걸어가는 영화고등학교 학생 민중돈(18살)을 고의적으로 쏘아 즉사시켰다.

—10월 11일

◦ 20시 40분경 경기도 평택군 송암면 소장리에 있는 5공군비행대소속 미군병사가 지나가는 김성하(23살)를 무턱대고 총으로 쏘아 즉사시켰다.

—10월 13일

◦ 6시 25분경 김포에 둥지를 튼 6167부대소속 헌병 2등병 사오 픠. 헤데가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 오류리에 사는 리성렬, 김재철, 김일만들에게 카빈총을 쏘아 리성렬과 김일만을 죽이고 김재철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11월 5일

◦ 23시 40분경 대구시 교동에 사는 리강덕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가던 미군병사가 운전사가 자기 누이집에 잠간 차를 세우고 들린 사이에 차를 몰고 달아났다.

—11월 7일

◦ 서울시 중구 소공동에 거주하고있는 미국무역상 알 더블유. 히킨스가 《대한산업》에 있는 서흥석에게 미국산 각종 자동차기관 84대를 도매해주겠다고 해놓고는 거액의 대금을 략취하였다.

—11월 16일

◦ 18시 30분경 미제침략군 2명이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108번지의 2가에 거주하고있는 리종천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시 영등포구 로량진동 25번지까지 와서 차비를 줄대신 권총으로 그를 협박하고 현금 1만 500원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11월 17일

◦ 18시 30분경 7사단 32련대소속 2등병 다레스 오일(20살)과 1등병 왓슌 에아니스크(20살)가 택시를 타고가다가 서울시 영등포구 대방동 영등포중학교부근에서 권총으로 운전사 리석락(47살)을 위협하면서 그를 마구 때려 치명상을 입혔고 현금 4 800원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12월 2일

◦ 17시 5분경 8군소속 2등병 로바트 엘. 아샬 외 2명이 택시를 타고가다가 부산시 초량동에서 내리면서 택시값을 요구한 운전사 오치환(28살)을 집단구타하였으며 놈들의 만행을 제지하려던 조상호와 홍룡근에게 단도로 치

명상을 입혔으며 그후 또다시 운전사를 단도로 찔러 치명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 18시 45분경 501통신대대소속 3명이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47번지에 사는 김현상(32살)의 집에 뛰여들어 라지오를 팔겠다고 흥정하다가 110US$를 받아가진 후 집주인을 때려눕히고 돈과 라지오를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12월 8일

◦ 17시경 7사단 37련대소속 1등병 케이오가 부산시 범일동에서 우덕룡을 리유없이 엠완총으로 쏘아 복부관통으로 즉사시켰다.

－12월 16일

◦ 10시경 188수송부대 렬차승무원인 728헌병대소속 칼톤 에이 밀케(39살)가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동부근을 통과하면서 길가는 박경득(17살)을 사냥총으로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

◦ 18시경 경상남도 동래군 사상면 덕포리 락동강면에서 미제침략군 2명이 황백관(15살), 박동주(15살)에게 사냥총을 쏘아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12월 28일

◦ 20시경 124렬차에 타고있던 미군병사가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에 사는 김상원을 권총으로 쏘아죽이고 달리는 렬차에서 던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1957년

－1월 7일

◦ 18시 30분경 미제침략군 하사가 파주군 주내면 파주리에 사는 리영숙(42살)에게 젊은 녀자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다가 거절당하자 총으로 그의 복부를 쏘아 즉사시켰다.

－1월 14일

◦ 6시 40분경 미군수송렬차에 타고있던 2명의 헌병이 인천시 반석동 67번지앞에서 그 부근에 살고있는 리방배(16살)소녀에게 총을 쏘아 흉부관통상을 입혀 죽이였다.

－1월 16일

◦ 인천시 룡현동에서 1등병 와이 텀 홈이 자기 집에서 나오는 윤여금소년을 엠완총으로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

－2월 1일

◦ 8208부대소속 운전사 2등병 헨리가 부산시 대교동 2가 20번지의 자기

집 마당에서 놀고있는 박금자(녀자 10살)를 짚차로 깔아 즉사시키고 그의 집을 들이받아 파괴하고 달아났다.

－2월 17일

◦ 인천시 산곡동에서 565부대 공병대대 54중대 하사 찰스 씨크라인(19살)이 인천시 보평동 16번지에 사는 리성근, 김영식소년들을 카빈총으로 쏘아 리성근을 즉사시켰다.

－3월 4일

◦ 20시 15분경 부산시 범일동에서 124헌병대소속 경비병이 지나가는 무고한 주민을 카빈총으로 쏘아 하복부관통상을 입혔다.

－3월 11일

◦ 14시경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덕천리에 있는 24사단 48야포대소속 윌리암 에취. 제임스 알레이(26살)가 적성면 식현리 앞개울에서 빨래하고있는 리애돌(녀자 43살), 최순희(녀자 59살)를 강간하려다가 반항에 부딪치자 카빈총으로 사격하여 리애돌을 죽이였다.

－3월 29일

◦ 22시경 경상남도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에 둥지를 튼 55연유보급창소속 1등중사 빌테죤이 장상근(17살) 외 2명이 보급창 앞길로 지나가는것을 보고 카빈총으로 쏘아 장상근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3월 31일

◦ 11시경 인천시에서 미군병사가 옥련동에 사는 리근호를 까닭없이 구타하였으며 그후 송도정미소에 들어와서는 작업중인 리중혁을 자기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리유로 때리고 밖에 나와서는 지나가는 엿장사군에게 생트집을 걸어 발길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4월 12일

◦ 21시 30분경 728헌병대소속 헌병상사 죤 피. 윌슨이 미군물자수송렬차의 호송임무를 수행하게 된것을 기회로 리강식 외 여러명에게서 돈을 받아먹고 물자를 렬차에서 절취한것이 탈로될 위험이 조성되자 총으로 리강식을 쏴죽이고 김유도, 유승현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4월 14일

◦ 22시 30분경 812보급중대소속 헬난 데드와 크락이클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부산시 대연동에 이르자 차를 멈추게 한 다음 운전사 김종만(29살)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한 다음 차밖으로 밀어뜨리고 현금 3 000원과 택시를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 경기도 파주에서 미군헌병 2명이 아무 리유없이 경향뻐스를 세워놓고

승객들의 소지품을 검색하면서 부녀자의 몸까지 뒤지였으며 한편 주변다방에까지 뛰여들어 기물들을 파괴하였다.

—4월 16일

◦ 11시 40분경 인천시 학익동에서 미군병사가 용진농장에 불법침입하여 조정필(29살)을 주먹과 총가목으로 구타하였으며 한편 살림집을 향하여 총탄을 마구 쏘아대면서 란동을 부렸다.

◦ 16시경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에서 24사단 헌병대소속 하사 케레스가 연풍리 룡주동에 사는 구두닦이소년 윤복룡 외 3명으로부터 양담배 2보루를 사주기로 약속하고 5US$를 받아 횡취하였으며 소년들이 돈을 반환할것을 요구하자 윤복룡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 22시 40분경 19병기부대소속 3명이 인천시 산곡동에서 곽하렬(30살)이 운영하는 점포를 비롯하여 4동의 집을 모조리 파괴하였을뿐아니라 곽하렬과 만삭이 된 김분이를 구타하여 치명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 군사분계선 가까운 곳에 둥지를 틀고있던 24사단 헌병대소속 중대장 스미스가 병사 80여명을 끌고 경기도 파주군 연풍리 룡주동부락을 포위한 후 주민들을 총탁으로 때리고 구두발로 짓뭉겨 피투성이로 만들어 집들에서 내쫓았다. 그리고 부락의 305세대 집들을 들부시고 수색하면서 군수품이라고 규정하여 총 2 324점의 재물을 략탈하는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와 함께 부락주민 70여명을 불법구속하였으며 600명의 주민을 《불량민》이라는 루명을 씌워 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마을에서 강제추방하는 행위를 감행하였다. (파주민가습격사건)

—4월 17일

◦ 22시경 파주군 주내면 소재지에서 헌병 4명이 민가에 뛰여들어 손영자와 리경자를 릉욕하려다가 마을청년 김기성(21살)이가 말린다고 하여 그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4월 18일

◦ 12시경 24사단 2대대 2중대 상사 크르크 데풀이 파주군 파평면 두포리 뒤산에서 나무를 하고있는 천승우와 송태철에게 엠완총을 쏘아대면서 그들을 붙잡고 구타하여 치명상을 입혔다.

—4월 22일

◦ 18시 30분경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에서 24사단소속 7명이 윤재용이 경영하는 시계점을 습격하여 진렬장을 파손한 다음 남자용시계 8개, 녀자용시계 3개를 강탈하고 달아났다.

—4월 24일

◦ 24시경 경상북도 청도역에서 124렬차를 호송하던 미군헌병이 부산시에

사는 정승표, 배승천, 박칠성 외 2명에게 치명상을 입힌 후 정승표의 소지품과 현금 1만 2 000원을 강탈하였다.

―4월 25일

◦ 군산비행장에서 미군감시병은 비행장부근을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군견을 풀어놓아 그들을 물어뜯게 하여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옥경리에 사는 홍순남(35살)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4월 26일

◦ 21시경 경기도 파주군에서 24사단 헌병 글로(20살)와 사단직영상점(P. X.)소속 코피가 심심풀이로 서울리발관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괴하는 행패를 하였다.

◦ 22시경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에 둥지를 튼 24사단 헌병중대소속 트러우 외 1명이 김기석의 점포에 침입하여 군화발로 진렬장을 파괴하고 브로치 2개를 강탈하고 달아났다.

◦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 뒤산에서 8군사령부소속 하사가 선유리 철정동에 사는 송현숙(20살)을 강간한 다음 때려죽이고 달아났다.

―4월 27일

◦ 20시 30분경 화물차를 타고가던 3명의 미군이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에 있는 하천부근에서 지나가는 림창룡(35살), 리순봉(29살), 홍봉균(33살)을 구타하여 중상을 입히고 높이 4m되는 다리에서 떨어뜨리고 달아났다.

◦ 20시 40분경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룡주동부락에 있는 잡화상 김태성(33살)의 집에 뛰여든 24사단 34련대 3대대소속 5명이 맥주값을 요구하는 그를 집단구타하여 머리에 치명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 22시 40분경 화물차에서 내린 미군병사가 파주군 광탄면 신산리에 주둔한 32공병대 앞길로 지나가는 황종학(49살)을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부상입혔다.

―5월 5일

◦ 21시경 24사단 3공병대소속 2등병 죤스원(20살)이 파주군 조리면 오산동에 사는 박동순(40살)을 권총자루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5월 12일

◦ 19시경 7사단 31련대 3대대 3중대소속 하사 나을이 경상남도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앞길에서 주례리 872번지에 사는 박상근과 김재란(녀자 41살)을 카빈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5월 21일

◦ 인천시 신생동에서 헌병대소속 미군병사가 공연관람을 가는 리봉룡

(35살)과 그의 처 우아무개(29살)에게 달려들어 구타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주정해(24살 리봉룡의 제수)까지 때려 눈과 얼굴에 중상을 입혔다.

-5월 25일

◦ 17시 10분경 304통신대소속 40여명이 경기도 양주군 로해면에 있는 도봉산에 놀러온 김병군 외 10여명에게 달려들어 구타하여 김병군 외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5월 26일

◦ 18시 20분경 미군병사가 축현역으로부터 송도까지 택시를 타고가서 택시값을 요구한다고 하여 운전사에게 단도로 위협하였으며 부대정문앞에서 보초병과 합세하여 그에게 구타를 하였다.

-5월 27일

◦ 경기도 파주군에서 미제침략군은 파주군 직성면 서부일대의 500정보에 달하는 농경지를 작전상 필요하다는 구실로 강탈하여 1 300여명(300세대)의 생계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6월 23일

◦ 10시 15분경 부산시 수정동 78번지에 있는 미제침략군 송유관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살림집 150여세대가 불에 타고 권정숙(녀자 5살), 김영춘(남자 27살) 등 37명이 사망하였으며 30여명의 화상자와 2 000명의 리재민을 내였다.

-6월 28일

15시경 문산역구내에서 미군헌병이 문산역에서 기차를 태워주지 않는다고 하여 기관조사 김량표를 카빈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7월 6일

◦ 20시 30분경 인천시 승의동 부근에서 인천항에 둥지를 튼 경비분대소속 1등병 로날드 이. 파셋드트가 송유관부근에서 놀고있는 김영호(3살)를 《가소린(휘발유)도적》이라고 하면서 카빈총으로 쏘아죽이였다.

-7월 15일

◦ 728헌병대소속 1등병 로버트 비 홀과 미수송단소속 1등병 하워드 지. 스완스, 루이기 엘. 말라테스타 등이 부산-서울행 렬차안에서 지상철(20살)을 곤봉으로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려놓고 위생실에 가두었다가 왜관역부근에 와서는 차밖으로 떨어뜨려 치명상을 입혔다.

-7월 16일

◦ 8시경 대전시 성남동에 둥지를 튼 728헌병대소속 로보트 테죤이 화차

옆에서 떨어진 얼음을 줏던 소년들에게 카빈총을 발사하여 그중 류정복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7월 26일

◦ 19시경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에 둥지를 튼 13야포대대소속 미군병사가 률곡리에 사는 김동환(50살)이 부락 뒤산으로 나무하러 가는것을 발견하자 카빈총으로 쏘아 흉부관통상을 입혔다.

—7월 29일

◦ 17시경 서울주둔 19보급부대소속 중사 큐엔 티. 로이스가 부대에 고용된 로무자 전태철(25살) 외 4명을 부대위생실에 가두어놓고 2시간반이나 구타하여 그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8월 2일

◦ 17시경 인천항만사령부소속 2등병 로드그리스(22살)가 인천시 옥련동에 있는 미군송유관 3초소에서 서울시 룡산구 후암동산 1번지에 사는 리경희(29살)의 시계를 헐값으로 사려다가 그가 응하지 않자 엠완총으로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

—8월 10일

◦ 23시 30분경 3련대 보급대대소속 체알코 마크 외 1명이 서울시 중구 북창동에서 송순옥 외 3명의 녀성들을 릉욕하려다가 반항에 실패하자 그들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히고 창문을 파괴하고 달아났다.

—8월 13일

◦ 21시 30분경 짚차를 몰고가던 미군병사가 부산시 문현동에서 엿장사를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40살난 주민을 깔아죽이고 죄상이 드러날가봐 시체를 싣고 수영방면으로 달아났다.

—8월 15일

◦ 23시 20분경 미제침략군 하야리야부대소속 헌병하사 토리(24살)가 부산시 부전동골목에서 길을 비켜서는 서래건(34살)을 돌로 얼굴을 깐 다음 단도로 몸을 찔러 빈사상태에 빠뜨렸다.

—8월 23일

◦ 21시 30분경 송유관을 경비서던 K보안경비대소속 2등병 제임스 소니비(22살)와 몬도르 박비제이(18살)는 인천시 숭의동 425번지에 있는 왕명수(32살)가 경영하는 상점에 뛰여들어 엠완총과 칼로 위협하고 현금 5 000원과 많은 상품을 강탈해갔다.

—8월 25일

◦ 16시 30분경 미군사령부 인천항경비대소속 1등병 마틴이 인천시 룡

현동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고있는 여러명에게 돌을 던져 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후 엠완총으로 쏘아 인천시 숭의동에 사는 조병길(18살)을 살해하였다.

－8월 29일

◦ 14시 40분경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산정리부근의 미제침략군 송유관에 불이 붙어 주변살림집 1동이 완전히 불에 타고 조정철(4살) 외 2명이 죽고 2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8월 31일

◦ 미제침략군 2명이 부산항 3부두에서 김형태(14살)와 최봉학(17살)소년들에게 생트집을 걸어 언쟁을 하다가 총을 쏘아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 미국《박물관전문가》라고 하는 2명의 미국인들이 남조선에 기여들어와 괴뢰들과 흥정판을 벌려놓고 회화 35점, 금속제품 18점, 고려청자 및 조선봉건왕조백자 102점 등 186점의 문화유물을 략탈해갔다.

－9월 4일

◦ 16시경 부산시 범전동 151번지 앞길에서 8192병참 송유관소속 1등병 핸리 제이. 빌리가 구두닦이소년 한심(14살)이 구두수리비를 요구한다고 하여 그를 카빈총으로 쏘아죽이고 달아났다.

◦ 23시 30분경 서울 반도호텔로부터 서대문구 행촌동까지 택시를 타고 온 미제침략군 야수놈은 료금을 요구하는 운전사 김만복(36살)을 때려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 경상남도 창원군 운천면 제덕리에 둥지를 튼 해군항공대소속 1등병 제임스 이. 잔비용(26살) 외 1명이 나무를 하는 오경아(46살)를 사냥총으로 쏘아 허리에 중상을 입혔다.

－9월 10일

◦ 부산시 범전동에 둥지를 튼 미제침략군 하야리야부대소속 1등병 덴리 엠. 센서톤이 부대근처에서 김복희(20살) 외 1명의 녀성을 희롱하다가 카빈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9월 15일

◦ 오전 11시경 전라북도 군산비행장부근에서 공군소속 1등병 카로 비. 테일러(26살)와 2등병 에드워드 엘영이 전라북도 옥구군 하제리에 사는 강금순(17살) 외 소녀들이 비행장부근에서 풀을 베고있는것을 카빈총으로 쏘아 김영희(18살)를 즉사시키고 강금순에게 중상을 입혔다.

－9월 18일

◦ 11시경 군산비행장 미제침략군이 전라북도 옥구군 옥구면 선연리에 사는 김행두(60살)가 풀을 베고있는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군견을 풀어놓아 물

어뜯게 하여 치명상을 입혔다.

－9월 20일

◦ 군산비행장소속 미제침략군이 김순례(63살)주민이 소를 돌려달라고 한다고 하여 군견을 풀어 물어뜯게 하여 심한 상처를 입혔다.

－9월 23일

◦ 서울시 룡산구 후암동도로를 지나가던 미제침략군 야수가 최인준(33살)을 무턱대고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10월 3일

◦ 오전 8시 30분경 728부대 13중대소속 상사 레이몬드 엘. 일베리가 경상북도 김천역구내에서 화물렬차경비근무중 학교로 가던 금릉중학교 3학년생 송준원(16살) 외 4명에게 아무 리유없이 총을 쏘아 송준원을 즉사시켰다.

◦ 13시 30분경 대구시 신암동에 둥지를 튼 16병기중대소속 1등병 뽀터매이와 헨리가 신암동 4구 1196번지 세기사세탁소앞에 세워놓은 자전거를 아무 리유없이 하수도구멍에 처넣는것을 보고 달려나온 윤영혁(26살)을 단도로 얼굴을 마구 찌르고는 이것도 부족하여 다른 놈과 합세하여 리삼룡(35살)에게 달려들어 그의 온몸을 칼로 찌르고 발로 차서 치명상을 입혔다.

◦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률곡리 뒤산에서 꿩사냥을 하고있던 24사단 34련대 3대대 11중대소속 2등중사 죠셉 이우딘(36살) 외 1명은 도토리를 줏고있던 김호희(60살 녀자)를 사냥총으로 쏘아 즉사케 하였다.

－10월 5일

◦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보산리에서 7사단 13공병대 2중대소속 2등병 로날드 스미스가 부대밖 15m 떨어진 곳에서 나무쪼각을 줏던 리정순(녀자 21살)과 정옥순(녀자 50살)을 엠완총으로 련발사격하여 리정순을 즉사케 하고 정옥순에게는 치명상을 입혔다.

－10월 14일

◦ 22시 30분경 인천시 부평동에 있는 자귀남의 집앞 도로상에서 55부대소속 2명의 야수가 이 마을에 사는 안명복 외 3명을 무참히 때려 중상을 입히였다.

－10월 16일

◦ 13시 30분경 인천시 월미도 서북방 100m해상에서 미군수물자수송선에 있던 미제침략군 야수가 수송선부근에서 바다물에 떠있는 나무쪼각을 줏고있던 리동현(38살)에게 카빈총을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

－10월 20일

◦ 아르후리트 에프. 드러리안트(33살)와 레이너(25살) 외 2명은 미국은

행 하와이지점 보증수표용지로써 도합 1만 9 400만US$의 위조수표를 만들어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에 사는 손문선(32살)과 남조선돈 1 695만 4 000원을 비법교환하여가지고 도주하는 사기행위를 감행하였다.

— 10월 22일

◦ 17시경 강원도(남) 강릉근교에서 623전투공군사령부소속 중사 월리암 콤맨은 꿩사냥을 하다가 그 부근에 있던 김창식(18살)에게 사격을 하여 중상을 입혔다.

— 10월 24일

◦ 11시경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 보초 중사 로버트 더블유. 월코크(23살)가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도리리 뒤산에서 꿩사냥을 하다가 부근에서 정청희(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가세리 54번지 거주)의 둘째아들 정재경(9살)에게 사격을 가하여 즉사시켰다.

◦ 경기도 파주군에 도사리고있는 1기갑사단 19련대 1중대소속 2등상사 베리 케이. 득가(31살)와 2등병 에벨로 아. 쏘스만(25살)이 빈 깡통 10개에 밀가루를 넣어 《커피》로 팔아먹는 사기행위를 감행하였다.

— 10월 27일

◦ 22시 30분경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의 남조선주둔 미국경제조정관실(O. E. C.) 건물앞에서 O. E. C. 장교구락부소속 2등병 브릭크웰 외 1명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김순자를 희롱하다가 항거에 부딪치자 그를 때려 오른쪽다리를 골절시켰다.

— 10월 28일

◦ 21시경 경기도 파주에 주둔한 1기갑사단 20야포대대 2중대소속 1등병 비키스 데이가 빈 담배곽속에 밀가루를 넣어 양담배라고 속이고 파주군 주내면 파주리 260번지에 사는 박영규(47살)에게 팔아먹었다. 그후 그자의 속임수를 알아챈 박영규가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그를 무참히 때려 머리에 타박상을 입혔다.

— 11월 2일

◦ 21시 20분경 월미도에 있는 68포부대 2중대소속 1등중사 콜스틀 이암이 인천시 해안동 미군소방소 앞도로에서 인천시 신생동 11번지에 사는 김영애(23살)를 자기의 더러운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다.

— 11월 3일

◦ 오후 인천시 부평지구 산동부락에 기여든 2명의 미제침략군 강도들은

유경선(37살)을 살해하고 현금 5 200원을 강탈하고 달아났다.

－11월 5일

◦ 12시경 김포군 대관면 대능리 느동마을 뒤산에서 사냥에 돌아치던 74병기대대 34중대소속 2명이 최병득의 맏아들 최은행(18살 대능리 469번지 거주)을 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11월 7일

◦ 9시경 경기도 의정부읍에 둥지를 튼 38병기중대소속 2등상사 배니스 시벨통(32살)이 부대 자동차기술공 한국빈(24살)을 목공소에 가두어넣고 30분간 바줄로 목을 졸라매고 때려 중상을 입혔다.

－11월 23일

◦ 15시경 인천시 동춘동에서 제50포대대 1등병 엘키스 외 1명이 김룡자를 릉욕하려다가 이에 불응하자 그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11월 24일

◦ 10시경 울산군 삼남면 하방부락 앞산에서 사냥에 돌아치던 부산중앙부두 A. O. P. 소속 대위 브레스 덴죠오 외 5명은 리학수(11살)소년을 총으로 쏘아 가슴과 다리, 어깨 등 7군데에 중상을 입혔다.

－11월 29일

◦ 17시경 인천시 옥련동일대를 싸다니던 미제침략군 3명이 심정섭의 집 나무낟가리에 신호탄을 던져 불을 지르고 달아났으며 12월 1일에는 인천시 옥련동에서 사냥총으로 닭을 잡아가지고 달아났다.

－12월 13일

◦ 서울 반도호텔에 있던 미국인 윌리암 헨리 레이노와 레이몬드 에이. 랜드너, 윌리암 에드워드 레드윅을 비롯한 여러명은 약 20만US＄의 미국은행보증수표와 미국국제은행보증수표를 위조하여 암시장에서 사기적방법으로 발매하였다.

－12월 20일

◦ 20시경 미제침략군 공군하사 엠슨 로날이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미군구락부 앞길에서 지나가는 최길자(녀자 32살) 외 1명에게 희롱을 하다가 저들의 더러운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때려 중상을 입혔다.

◎ 미제는 강도적인 《문화재해외전시안》과 《문화재수출안》을 통하여 국립박물관에 있던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자기들과 나무, 돌공예품 등 무려 4 000여점을 강탈하였다.

1958년

—1월 10일

◦ 11시 40분경 미제침략군 야수가 부산시 범일동 미금당시계점에 침입하여 시계를 채가지고 달아나다가 시계점주인 림상기가 따라오자 그에게 매질을 가하여 머리와 허리에 중상을 입혔다.

—1월 28일

◦ 9시경 8군사령부 장거리통신가설대 3중대소속 1등상사 반즈 외 3명은 전라북도 리리전신전화건설관리국관할 전선(당시 화페로 약 20만원) 1 700m를 잘라가지고 달아났다.

—2월 2일

◦ 경기도 화성군에서 277통신소대소속 1등병 루스 외 3명이 주민부락에 뛰여들어 왕진원(38살), 류진용(38살), 황해순(녀자), 김영희(녀자)를 리유없이 때려 중상을 입혔다.

—2월 25일

◦ 경기도 인천시 부평읍에 도사린 8군 항공기수리소 소장인 토마스 지. 제임스 소좌의 지휘하에 대위 마빈 이. 캠프와 상사 로버트 이. 웨이든 사을은 장교숙소에서 구두닦이를 하는 김춘일(14살)소년을 가두어넣고 5~6시간에 걸쳐 곤봉과 가죽채찍으로 때리고 칼로 찔렀으며 뻰찌로 그의 두 발톱과 머리칼을 잡아뜯고 전기리발기로 머리를 깎은 후 머리와 얼굴에 피치칠하여 나무상자에 넣어 H—19직승기에 실어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에 있는 1군단 비행장부근에 떨구어버리였다. (부평소년비행기짐짝사건)

—3월 8일

◦ 13시경 김포에 둥지를 튼 공군 6147부대소속 중사 에드몬드 제이. 쿠차즈크, 1등병 케네트 엘. 페이지, 중사 펜덜 아. 허츠, 상사 지미 에프. 허퍼들은 거름을 내고 돌아가는 리경표(63살)를 부대사무실로 끌고 들어가 1시간동안 곤봉으로 집단구타하여 우측륵골 2개를 부러뜨리고 전신에 중상을 입혀 의식을 잃은 그를 철조망밖에 내던졌다. 주변사람들에 의하여 사건의 진상이 널리 알려지게 되자 미군사령부는 파렴치하게도 피해자인 로인을 《판자를 훔친 도적》으로 몰고 범인을 비호하였다. (김포공군기지사건)

—4월 1일

◦ 20시 45분경 부산시 제1부두에서 1등병 리챠드 티. 맥티니는 지나가

는 17~18살가량 되는 처녀를 붙잡아 릉욕하고는 카빈총으로 쏘아 흉부에 관통시켜 즉사시켰다.

－4월 6일

◦ 23시 40분경 304통신대대소속 10여명이 서울시 룡산구 갈월동에 있는 김아무개의 집에 침입하여 판자로 된 울바자를 파괴하다가 제지하려는 집주인의 맏아들 김동철에게 집단폭행을 하여 중상을 입혔다.

－4월 18일

◦ 21시 30분경 장거리통신대소속 병사 네티월타 외 여러명의 미군야수들은 부산시 룡호동에서 김관대(31살)의 엿을 먹은 다음 값을 요구하는 그를 20m높이에서 떨어뜨려 치명상을 입혔다.

－4월 19일

◦ 20시경 인천시 학익동에 있는 532부대 병사 짠스가 부대구락부밖에서 학익동 255번지에 사는 김명순(24살)을 희롱하다가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4월 24일

◦ 18시 5분경 비행장근무에 동원된 미군헌병들은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김두성(56살 전라북도 옥구군 옥구면 선록리 거주)농민에게 군견을 내몰아 그를 물어뜯게 하여 중상을 입혔다.

－5월 17일

◦ 미국선박 《빅토리》호 선원은 부산시 초량동에서 박아무개 녀성을 롱락하려다가 항거에 부딪치자 그를 때리고 집에 불을 놓고 달아났다.

－5월 25일

◦ 18시 10분경 19보병대대 3중대소속 상사 레리비 스츄아트가 권총으로 최현기청년을 쏘아 살해하였다.

－5월 27일

◦ 21시경 30병기중대소속 아렌(22살) 외 1명은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 22번지 앞도로상에서 길가는 박옥경(녀자)에게 달려들어 현금 6만원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6월 2일

◦ 2시경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눌로리에 둥지를 튼 1기갑사단 12기갑부

대소속 1등병 로랜스 더블유. 추라한은 부대철조망근처에서 파주군 적선면 무건리에 사는 류치선(20살)에게 6발의 카빈총을 란사하여 살해하였다.

—6월 9일

◦ 6시경 충청남도 서대전에 있는 남조선주재 미군사고문단 대전파견대소속 하사 윌리암 지. 테프트(24살)는 대전시 중동에 사는 우순이(50살)를 강간한 후 잔인하게 목을 졸라죽이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을뿐아니라 주민들의 집에 불까지 놓고 달아났다.

—6월 16일

◦ 11시 15분경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읍 미륙군탄약처리소에서 미군야수가 소형무기탄약을 폭발시켜 주변에 있던 주민 6명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 대구시 동명비행장 남쪽 10만평에 달하는 부지에 《미국인촌》건설로 이곳에서 사는 약 3 700명이 정든 고향에서 쫓겨나가지 않으면 안되였고 이것으로 하여 저수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수로가 막혀 40만평의 논이 가물피해를 받게 되였으며 안동벌과 마내벌은 완전히 천수답으로 되고말았다.

—6월 17일

◦ 21시경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에 둥지를 튼 미제침략군 1등병 헤덴 아이벨은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 56번지에 사는 장아무개의 집에 뛰여들어 김순수(녀자 24살)를 릉욕한 후 집재산을 불태워버리였다.

—9월 8일

◦ 17시경 8군단 장거리통신단 3중대소속 운전사 1등병 픽그프 고리인이 충청남도 연기군 전등면 청송리 앞길에서 권봉석(6살)소년을 차바퀴에 끼우게 한채 100m나 달려 즉사케 하였다.

—9월 17일

◦ 304통신대대 2등병 대럴 더블유. 그레이(23살)는 서울시 룡산구 후암동 룡산고등중학교 앞길에서 길가던 리용주(20살)를 희롱하려다가 항거에 부딪치자 단도로 복부를 찔러 치명상을 입혔다.

—9월 26일

◦ 아침 7사단소속 운전사 시오드 엠 네스(26살)가 의정부 읍 축성령고개에서 인재남(36살), 로영관(26살), 김한옥 등 3명에게 총질을 하여 그자리에서 인재남을 죽이고 로영관에게 중상을 입혔다.

—10월 26일

◦ 미국인 죠세프 버커가 미군대위와 공모하여 고려X광선주식회사 사장

박양규의 소유인 라디움 43개(개당 1 720만원)를 《감정하여준다》는 구실밑에 가지고갔다가 가짜라디움을 반환하는 사기협잡행위를 감행하였다.

－11월 12일

◦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법원리에 도사리고있는 1기갑사단 20포대대 본부소속 1등병 하지스 챠이지가 세탁소부근에 있던 3명의 주민에게 카빈총을 사격하여 그중 권오원(25살)을 즉사시켰다.

－12월 29일

◦ 1기갑사단 12기갑련대 2전투단 4중대소속 2등병 로날드 제어 스팽글리(24살)가 김경식(20살)을 총으로 쏘아 부상을 입혔다.

－12월 30일

◦ 8공병대소속 1등병 웨이몬드 지. 미첼(24살)이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신상리에서 무고한 주민을 엠완총으로 쏘아 즉사시켰다.

1959년

－1월 6일

◦ 강원도(남) 미군사고문단 원주파견대 탄약창고에서 폭발로 일어난 화재로 인하여 창고부근에 있던 강갑춘(54살)과 김기선(21살)의 살림집들과 현금 7만 5 000원, 쌀 14가마니, 옷류, 가구 등 40만원분과 식당 1채가 불타고 1명의 주민이 심한 화상을 입었다.

－1월 12일

◦ 11시경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걸산리에서 2사단본부 2등병 로버트 베리 외 1명의 미군이 정상률(남자)에게 녀자를 내놓으라고 강박하다가 장작개비로 그와 다른 1명을 때려 중상을 입혔다.

－1월 21일

◦ 인천시 송도에서 미제침략군야수들은 조경수 외 11명의 주민을 끌어다놓고 집단폭행을 하여 중상을 입히였다.

－1월 28일

◦ 1기갑사단 19포병련대 2곡사포대대소속 2등병 칼비밀크가 경기도 리천군에 사는 김택내(18살) 외 1명의 청년에게 련발사격을 가하여 1명은 죽이고 김택내에게 중상을 입혔다.

－1월 29일

◦ 18시 30분경 경기도 평택군 송탄면 지산리 뒤산에서 미제야수는 지산

리에 사는 김국자(28살)를 유인하여 강간한 후 단도로 찔러 죽인 다음 그가 끼고있던 금반지를 뽑아가지고 달아났다.

—2월 7일

◦ 3시경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결산리에서 7사단소속 상사 세민웨이가 서울시 합동 28번지에 사는 신민식(27살)에게 권총으로 복부관통을 시켜 중상을 입혔다.

—2월 8일

◦ 서울시 영등포구 동동 71번지 앞길에서 미제침략군 《사자》부대운전사 에노소가 10살가량의 소년을 차로 깔아 즉사케 하고 시체까지 차에 싣고 달아났다.

—2월 18일

◦ 1시경 508통신중대소속 1등병 버니스 엘. 토위디(19살)와 1등병 듀이이. 오델(21살)이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료정 청수장을 짚차로 들이받아 문을 파괴하고 술과 녀자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다가 거절당하자 종업원들을 구타하고 이불까지 빼앗았으며 또다시 주변상점에 침입하여 많은 상품들을 강탈해갔다.

◎ 충청북도 충주시 목영리 306번지에 사는 미국인 예리는 식모로 고용하고있던 충청북도 중원군 동량면 대전리에 사는 리정순(14살)을 강간하여 심한 상처를 입혔다.

—3월 8일

◦ 17시 40분경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정류소에서 합승택시(서울영 352호)를 탄 미제침략군 3명이 부대앞에서 료금도 내지 않고 내리면서 조수 강영길이 료금을 요구하자 단도로 그의 좌측대퇴부를 찔러 치명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3월 16일

◦ 23시 30분경 경기도 시흥군 동면 안양리에서 183병기대대 경비중대소속 한 야수놈은 변연금 외 6명의 점포와 살림집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폭행을 가하여 2만여원의 손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3월 18일

◦ 23시 30분경 양주군 이담면 광암리주둔 7사단 34련대소속 하사 에이카가 부대정문앞을 지나가던 최경자(18살)를 경비실에 끌어다놓고 갖은 추잡한 행위를 하다가 가위로 머리칼을 30cm가량 잘라버리고 내쫓았다.

—3월 28일

◦ 11시 30분경 경기도 김포에 둥지를 튼 14비행대소속 1등병 제임스는

김포비행장 제8호문 부근에서 알루미늄조각을 줏고있던 리우영 외 10명의 소년들에게 사냥총을 쏘아 리우영과 리수일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 20시경 미제침략군 1등병이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의 산중에서 동두천리에 사는 김춘자(34살)를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후 그의 흉부를 찔러 부상을 입혔다.

－3월 30일

◦ 13시경 8군소속 하사 제임스 마흠이 8군 서울지구사령부 권총사격장 부근에서 저들의 사격훈련을 구경하고있던 심태명 외 3명의 소년들에게 총질하여 심태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4월 2일

◦ 21시 30분경 인천시 부평동에 있는 통신대소속 1등병 포리 엘. 제임스(19살), 2등병 웨버스터 프랭크린(21살)은 강필이(녀자)의 집문을 파괴하고 라지오를 비롯한 각종 물품을 도적질하다가 잡히였다.

－4월 3일

◦ 20시 15분경 서울시 룡산구 한남동 도로상에서 1등병 워커, 2등병 마틴, 1등병 쿠리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와서는 료금지불을 거부하였을뿐아니라 도리여 운전사 정창로(43살)를 위협하고 현금 8 300원을 강탈하고 달아났다.

－4월 5일

◦ 16시경 대구시 태평로 1가 24번지에서 8군 대구 R. T. O. (미군철도수송사령부)소속 윌리암 에이. 맥코이 외 2명은 대구시 범어동에 사는 리돈상의 자전거를 파손시키고 그를 칼로 찔렀으며 카빈총으로 그 주변에 있던 대구시 교동 27번지에 사는 배찬명의 둘째아들 배태덕(5살)을 쏘아 중상을 입혔다.

－4월 6일

◦ 저녁 미제침략군 서울지구사령부소속 로날드 지. 스마크(19살), 로버트 이. 워커(23살), 토마스 에프. 웨일리(18살), 제임스 이. 클리(18살)는 서울역에서 서울영 4589호 택시를 타고 김포비행장으로 가다가 운전사 류금세를 단도로 위협한 후 목을 졸라매고 금품과 신분증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4월 9일

◦ 23시경 304통신부대소속 1등병 어니알 파카(23살), 아 더블유. 벨(19살), 1등병 빌리 힐빈(19살), 상등병 죠셉 바빌로(18살)들은 서울시 룡산구 갈월동 도로상에서 길가던 림희순과 임신 8개월인 그의 처 박경자(23살)에게 달려들어 구타하고 금품을 략탈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려던 김영자(녀자)를 발길로 차서 하수도구멍에 빠뜨려 중상을 입혔다.

－4월 14일

◦ 오산공군비행려단 헌병대소속 2등병 에미르 지. 엘리스(19살), 드날드 비. 다미스가 지게에 양철판을 지고가는 류광렬(37살)을 구타한 다음 군견을 풀어 물어뜯게 하여 중상을 입혔다.

－4월 17일

◦ 11시 40분경 미군야수가 인천시 부평동에 사는 리례복(녀자 32살)을 구타하여 집에서 내쫓고 라지오를 비롯한 많은 물품을 강탈하였다.

－4월 24일

◦ 경기도 화성군 오산에 둥지를 튼 8군 서울지구사령부 오산분견대소속 상등병 로버트 더블유. 제멘이 소년들에게 총을 쏘아 그중 리군철(14살)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4월 25일

◦ 대구시 대봉동 광신리발관 앞길에서 미군사고문단소속 미제야수가 화물차를 타고가면서 지나가던 김효석(36살)의 뒤머리를 곤봉으로 때려 파렬상을 입혔다.

－4월 27일

◦ 22시 30분경 하사 베튼이 인하공대 림서규, 리희건학생들이 2명의 녀성을 택시에 태우고 희롱하는것을 보았다고 하여 종점인 학익동 430번지 앞길에 도착하여 4명의 야수들을 불러 집단구타하였을뿐아니라 이를 제지하려던 리성재와 리기승도 구타하였다.

－5월 8일

◦ 오전 공군 6175기지전대 1파견대소속 1등병들인 제임스 브이. 데이비스(20살), 레리 더블유. 케멘(19살), 2등병 다니엘 지. 비라렐(23살)은 대구시 부근에 있는 상점에 침입하여 닭알꾸레미를 도적질하다가 이를 제지시키는 김용길(47살)을 마구 때리고 달아났다.

－5월 10일

◦ 10시 5분경 충주시 목행리에 있는 한강상류강반에서 권총사격연습을 하고있던 충주비료공장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죠지 더블유. 크렌이 밭을 갈고 있는 송성학(녀자 26살)을 권총으로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

－5월 13일

◦ 23시 30분경 미군병사 5명이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728헌병대 앞길에서 손님을 기다리고있던 택시운전사 김달수(36살)와 조수 황순영(20살) 외 주민 2명에게 달려들어 집단구타하여 그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달

아났다.

－5월 17일

◦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동두천리 7사단 공병보급부대부근에서 헌병이 2명의 주민에게 총을 란사하여 김철수를 부상시켰다.

－5월 30일

◦ 15시경 경기도 양주군 로해면 도봉리에서 20명의 미군야수들은 길가던 주민들이 저들을 본다고 하여 다짜고짜로 달려들어 구타함으로써 구회익(39살), 김종만(33살), 조대근(25살)에게 중상을 입혔다.

◦ 23시 30분경 1기갑사단소속 2등병들인 로버트 디니콜(24살), 죠셉발(19살), 케이. 엔. 개리(22살) 등 3명은 서울시 서대문구 대조동 120번지 앞길에서 찝차로 리건상(32살)의 차를 가로막고 딸라를 내라고 협박하고 때린 후 8만원의 보증수표 1장과 현금 1 500원, 시민증과 운전면허증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5월 31일

◦ 23시경 미제침략군 화학품창고소속 병장 토마스 이. 메더우즈(28살) 외 3명은 택시를 타고가다가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 오정리앞길에 이르러 택시값을 요구하는 운전사 문창식(31살)을 단도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6월 3～9일

◦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둥지를 튼 극동지구 공병대 헌병부대 소좌 프란시스 폭스를 비롯한 여러명의 헌병들은 서울시 룡산구 후암동에 사는 정진숙(녀자)의 집을 수차에 걸쳐 비법수색하여 물품들을 강탈하였으며 지어 헌병대사무실에 끌고가 옷을 벗기고 수색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6월 7일

◦ 1시경 유엔군사령부소속 2등병 하라칼 아스칼(35살)이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에서 김매자(15살)를 꾀여 서울시 중구 회현동에 끌고가 강간하여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 새벽 파주남쪽에 주둔한 1기갑사단 헌병대장이 미군헌병대와 괴뢰경찰들을 동원하여 부대주변 3개 마을을 불법수색한 후 목조침대, 침구, 선풍기, 옷류 등을 《군수물자》라는 미명하에 강탈해갔다.

－6월 14일

◦ 9시 30분경 인천항에 정박중이던 미국수송선 《하와이안 후리시멘》호에 공무집행으로 올라간 7호통신선장 석정운을 본 미국인 씨알이스 앤더슨(28살)은 다짜고짜로 물러가라고 호통치면서 식칼로 그의 손목을 내리쳐 중

상을 입혔다.

－6월 17일

∘ 4기갑련대 2전투단 4중대소속 1등병 윌리암 이. 위트(21살)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문산리에 사는 김용수(22살)를 고의적으로 총을 쏘아 중상을 입혔다.

∘ 22시 30분경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금곡리에서 8군사령부 17포대 2중대 중대장 오리보 외 6명의 미군야수들은 군용목재를 도적질하려다 발각되자 그 분풀이로 이곳 주민 김진득 외 7명에게 달려들어 집단구타하고 살림집까지 파괴하였다.

－6월 23일

∘ 17시 30분경 1기갑사단 헌병중대 하사 스케플죠(30살) 외 6명은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금곡리에 있는 리윤춘(40살)의 집에 몰려가 불법수색하려다가 이에 항거하자 그를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다.

∘ 23시 30분경 미제침략군 1등병 외 2명은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김영구가 경영하는 술집에서 1 500원분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았을뿐아니라 기물들을 파괴한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7월 1일

∘ 미제침략군이 인천시에 신설된 송의역주위의 넓은 지역에 철조망을 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로와 음료수운반로를 차단하여 2만여명의 주민들과 3개 학교의 1 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심대한 생활상타격을 주었다.

－7월 21일

∘ 22시 10분경 서울－부산 구포역을 떠나 사상으로 달리던 미제침략군 62렬차 승무경비병은 철길옆을 걷고있던 경상남도 김해군 대저면 사두리에 사는 김종판(33살)에게 돌을 던져 얼굴에 중상을 입혔다.

－7월 24일

∘ 4시 25분경 서울시 룡산구 삼각지대 도로상에서 서울지구사령부 교통과소속 찦차운전사 1등병 로버트 제이. 쉬미드린이 대도로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던 김용남(50살)을 고의적으로 깔아죽이였다.

－8월 1일

∘ 17시 30분경 화물차를 타고가던 미제야수는 경기도 시흥군 동면에서 일하러 가는 강룡환(54살)을 보고 차에서 내려 그를 다짜고짜로 때려 중상을 입혔다.

－8월 1～13일

∘ 충청남도 천안군 성환면에 둥지를 튼 미군탄약창소속 미제야수가 천안

군 직산면 판정리 주민지역에 탄약폭발장을 설치하고 폭탄을 폭발시킴으로써 류인현(18살 천안군 림장면 흑암리 거주) 외 여러명에게 중상을 입히였다.

—8월 2일

◦ 인천에 주둔한 532병참중대소속 1등병 스티븐 아. 게브리스가 강옥자(녀자 23살)를 구타하여 중상을 입히고 손목시계와 팔찌를 강탈하였다.

—8월 4일

◦ 16시경 1기갑사단 19야포대대 2중대소속 중사 마빈 안토니(24살)는 경기도 파주군 당속리에서 임신 8개월인 박애주(24살)를 겁탈하려다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락태시키고 달아났다.

—8월 19일

◦ 아침 7사단 포병단 본부중대소속 상등병 벤톤 에이. 바틀러(23살)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근방에서 미금면 금곡리에서 사는 박천태(16살)를 총으로 쏘아 치명상을 입히였다.

—8월 30일

◦ 11시 30분경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장리일대를 돌아치던 K—6비행장소속 1등병들인 죠지 씨. 시나베리와 노리스 이. 맥크랜이 김경임(32살)의 집을 비롯한 3동을 불태웠다.

—9월 8일

◦ 3시 30분경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동두천리 창발부락에서 7사단 31련대소속 2등병 기미엘 존슨(20살)이 안흥리에 사는 리정순(32살)과 김남순(33살)을 강간하려다가 항거에 부딪치자 삽으로 김남순을 때려 중상을 입힌 후 다시 리정순을 때려 길우에 쓰러뜨려 강간하고 달아났다.

—9월 20일

◦ 10시 20분경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문산리를 떠나 서울로 향하여 달리던 제194려객렬차에서 1사단소속 헌병 칼넷(19살)은 기관사에게 권총으로 위협발사하여 렬차를 20분간 강제정차시키였다.

—9월 26일

◦ 경기도 포천군 동두천의 7사단 A—15비행장부근에서 미제야수가 조인원(17살)소년을 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10월 2일

◦ 7사단 13공병대대 3중대소속 2등상사 와트랜드(24살)가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동두천리에 사는 장동부(25살) 외 5명에게 총을 란사하여 장동부에게 중상을 입히였다.

－10월 7일

◦ 1군단 포병사령부소속 1등병 세일 프니억은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고소성리에서 리광옥을 카빈총으로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

－10월 9일

◦ 9시 45분경 44공병대소속 미군 2명이 인천시 도원동에 사는 박동식의 택시를 타고 산곡동에 있는 44공병대 8057부대 앞도로상에 이르자 료금도 내지 않고 운전사를 구타하고 달아났다.

－10월 10일

◦ 밤 4유도탄사령부소속 1등병 래리엘 스나이더는 춘천시 소양로 박찬식이 경영하는 상점에 뛰여들어 칼로 그를 찔러 중상을 입혔다.

－10월 19일

◦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 55번지 앞길에서 미제침략군 크트민 트이로(34살)가 김춘자(녀자 29살)를 구타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려던 리아무개까지 때려 중상을 입혔다.

－10월 31일

17시 55분경 경기도 평택군 송탄면 서정리에서 5공군 1314보급중대소속 1등병 마흐니 에취. 엘(19살)이 기중기차로 서정리 길가에 있는 정봉헌(41살)의 집을 들이받아 김기성(10살)소년을 즉사케 하고 박종환(31살) 외 5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살림집도 파괴하였다.

◦ 20시경 633공병중대소속 1등병 리챠드 엔. 아데네티(24살)가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 고산리 166번지에 사는 리소요(69살)의 집에 뛰여들어 강간, 폭행을 가하고 달아났다.

－11월 21일

◦ 13시 50분경 경상남도 김해군 록산면 신양리 앞길에서 찝차를 미친듯이 몰고가던 미제침략군 2명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허금순(11살)과 최명자소녀들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치명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 미제침략군 서울지구사령부 본부파견대소속 2등병 토마스 에프. 웨이러(19살)는 홍숙자의 집에 침입하여 라지오를 도적질하여갔다.

－12월 14일

◦ 미제침략군 아랙플 스택불휠이 대구시 향촌동에 있는 화월호텔에서 1주일간이나 숙박하고 3만 7 700원의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달아났다.

－12월 31일

◦ 22시경 7사단 40전차대대 2중대 중대장 대위 토마스 에취. 죤이 하사

2명과 함께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읍 가릉리 고등골에 사는 박화자(20살)와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리에 사는 윤순자(25살)녀성들을 창고에 가두어넣고 가죽채찍으로 때리고 옷을 벗기고 등과 하반신에 황색뼁끼를 칠하여 23시 30분경에 내쫒았다. (의정부녀인뼁끼칠사건)

◎ 1959년 1～4월에 미제에 의한 녀성릉욕사건만도 100여건이나 되였다.

1960년

－1월 2일

◦ 7사단 2중형땅크대대 3중대 중대장 대위 죤 더블유. 맥케너리(37살)와 10여명의 졸개들은 동두천에 사는 김순애(30살)와 김정자(22살) 두 녀성을 병실에 끌어다놓고 그들의 머리를 빡빡 깎아버리고 희롱하던 끝에 거리로 내쫒았다. (동두천녀인삭발사건)

서울신문사에서 출판한 책 《남조선주둔 미군 40년》에는 이렇게 씌여졌다.

《…동두천에 자리잡은 7사단 중대본부 막사안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있었다. 10여명의 미군병사들이 2명의 남조선녀인을 가운데 두고 희희닥거리고있었다.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러보기도 하고 얼굴을 쓸어보기도 하던 그들은 이윽고 가위와 전기리발기를 들고 녀자들을 꼼짝못하게 한 후 머리칼을 잘라버리기 시작했다. 맥케너리대위의 명령에 따라 2명의 하사관은 머리를 모두 깎아버린 후 다시 전기면도기로 밀어 중머리로 만들었다. 그리고나서는 비자루로 깎은 머리를 마구 문질렀다. 그러는 동안 장교들과 사병들은 웃고 떠들며 좋아라고 손벽을 치기까지 하였다.》

－1월 23일

◦ 21시 30분경 서울 남산 산봉숲속에서 7사단 10기갑련대 2대대 본부중대소속 상병 홀리 페터앰이 룡산구 리태원동 72번지에 사는 백현자(23살)를 단도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그로부터 현금 5 000원을 강탈하였다.

◦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13보급대대 본부중대 1등병 죤 씨. 바우어(22살)가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에 사는 김룡일을 다짜고짜로 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2월 4일

◦ 8시경 1기갑사단 9기갑련대소속 1등병 프란씨스 엑스. 맥쿤(18살)과 2등병 마이클 이. 블라싱게임(18살)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장산리에서 얼음우로 림진강을 건너가고있는 박원봉(44살)을 총으로 쏘아 즉사시켰다.

－2월 6일

◦ 20시 30분경 미제침략군 공군사병이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26번지 《대한무선라지오상점》에 뛰여들어 라지오 2개를 도적질해가지고 달아났다.

－2월 9일

◦ 20시 30분경 미제침략군 하야리야부대앞에서 중앙국민학교앞에까지 택시를 타고 온 3명의 미군야수들은 료금을 요구하는 운전사 최석정(28살)에게 달려들어 무진 매를 안기고 유리까지 파손시키고 달아났다.

－2월 10일

◦ 17시경 7사단 127통신대 2중대소속 2등병 원타 에이. 유리사드가 중대부근에서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생연리에 사는 정경현(17살)소년에게 총을 란사하여 다리에 관통상을 입혔다.

－2월 12일

◦ 22시 30분경부터 13일 이틀간에 걸쳐 44공병부대 2중대소속 윌리암 제이. 리, 쟌 엠. 로렛즈, 프란시스 제이. 트로스틀, 리챠드 디. 화이트, 로렌스 로즈므스, 죠지 아이, 웨인 퍼트네 등 7명은 부산시 중앙동 3가 26번지에 사는 공진수, 최영휘, 진덕수, 문응렬, 김영택, 로팔수, 유호박 등을 부당하게 체포하여 칠곡군 왜관에 있는 미군부대안에서 그들을 벌거벗기고 3m가 넘는 구뎅이에 몰아넣고 총탁과 몽둥이로 때리였으며 그들이 소지하였던 손목시계를 비롯한 현금 1만 2 000원과 옷 및 기타 물품들을 모조리 빼앗고 알몸으로 내쫓았다.

－2월 20일

◦ 10시경 경상북도 금룡군 농소면 립석동에서 5자동차수송대대 공군 1등병 마이클 이. 매크버스가 화물차로 뻐스(경북영 1282호)를 들이받아 높이 5m되는 곳에서 전복추락시켜 승객 최순이(55살) 외 7명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4명을 부상당하게 하였다.

－2월 24일

◦ 23시 10분경 미제침략군 5명이 인천시 신생동 《소리사》 라지오상점에 불법침입하여 2대의 라지오를 훔쳐가지고 달아났다.

－2월 25일

◦ 21시 40분경 미제침략군 프리스(22살)와 웰크스(21살)가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77번지 앞길에서 최두식(34살)과 설기환(64살)을 까닭없이 때려 중상을 입혔다.

－2월 26일

◦ 21시경 왜관에서 44공병부대 2중대(2. 12사건 일으킨 부대)소속 4명의 야수가 왜관읍 8구 8반에 사는 도원희(19살), 문태랑(28살), 권시섭(20살),

고재원(19살)을 부대에 끌어다 라체로 빈 통졸임을 버리는 구뎅이에 몰아넣고 찬물을 끼얹고 구두발로 차는 등 잔인하게 집단폭행하여 중상을 입혔다.

—2월 27일

◦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부근에 있는 7사단 3련대 2전투단 2중대소속 로즈 비. 비손(20살)이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대회산리에 사는 박영빈(22살)을 카빈총으로 쏘아죽이였다.

—3월 12일

◦ 밤 7사단소속 1등병 지미 아. 하렐(19살)이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동두천리 부근에서 5명의 주민들을 단도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도질하였다.

—3월 14일

◦ 부산시 그리스도교방송 선교회 미국선교사 알렉스 브이. 빌스(39살)는 자기가 고용하고있는 김옥녀(25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꾀여 승용차에 태워가지고 동래구 거제동에 있는 수원지에 끌고가 강간하였다. 이자는 12월 24일 부산시방송국 크리스마스모임에 참가하였다가 방송국직원 정아무개 처녀를 꾀여 부산진구·부전동호텔에 끌고가서 강간하였다.

—3월 16일

◦ 6시 30분 8군 30병기중대소속 미군야수들은 50t급 땅크를 실은 대형화물차를 몰고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동 구로교를 지나가다가 다리를 파괴하고 택시까지 추락시켜 운전사 박창규 외 6명의 주민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4월 3일

◦ 미제침략군 상사가 인천시 상곡동 2반에 사는 리종업의 집에 뛰여들어 세방살이를 하고있는 임신 3개월이 된 박영숙을 릉욕하려다가 반항에 부딪치자 그를 사정없이 때려 실신졸도케 하고 달아났다.

◦ 인천시에서 미국 스테이 스마린 기선회사의 《로빈모 부데이》호의 선원인 죤 아바다는 윤남순을 릉욕하려다가 반항에 부딪치자 그를 잔인하게 때려 중상을 입혔다.

—4월 20일

◦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에서 7사단 40땅크부대소속 상사 허만 제이. 록웰은 류정자(24살)를 희롱하다가 오락삼아 권총을 쏘아 목에 중상을 입혔다.

—4월 25일

◦ 4유도탄사령부 19보병대대 3중대 1등병 로버트 엘. 함엘이 리종룡(35살)을 아무 리유없이 총으로 쏘아죽이였다.

－4월 29일

◦ 림진강북쪽에 둥지를 튼 1기갑사단 8기갑련대 2중대 중사 에드와드 제이. 노불이 카빈총으로 김창식(22살)과 리진태(30살)를 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5월 1일

◦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 부근에서 7보병사단 13공병대대소속 상등병 가르길드 죤슨(48살)이 녀성을 강간하려다가 이를 저지시키려는 윤흥룡(28살)을 총창으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5월 14일

◦ 오전 1기갑사단 8련대 1전투단 보수공장지역에서 중사 하워드 엘. 호일은 아무 리유없이 무고한 주민을 쏘아 그의 목에 관통상을 입혀 즉사시켰다.

◦ 23시 30분경 802부대소속 스미스 게리 외 4～5명의 야수들은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 오세리 네거리에서 지나가는 김석룡(31살)과 그의 친구 김아무개의 얼굴에 맥주를 뿌린 후 구타하여 륵골을 부러뜨리고 치명상을 입히였을뿐아니라 그들에게서 111US＄와 손목시계를 비롯한 거액의 금품을 강탈하였다.

－5월 15일

◦ 22시경 경기도 장단군 군내면 백련리에 둥지를 튼 9기갑련대 1수색대대 3중대소속 2등병 죤은 파주군 광탄면 방축리에 사는 리종훈이 위생실에서 손을 닦고있을 때 신분증을 보자고 하여 그가 우리 글로 씌여진 신분증을 보이자 다짜고짜로 그의 얼굴에 권총을 발사하여 즉사시켰다.

－5월 25일

◦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에서 1기갑사단소속 중사 체스터 비. 테일러가 오연유(63살)를 고의적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6월 5일

◦ 17시경 경기도 파주에서 1기갑사단 8공병대소속 1등병 리백 이. 노알드는 길가는 최덕기(녀자 26살)가 자기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슴과 하퇴부에 총을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

－6월 9일

◦ 15시 5분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342번지 앞길에서 728헌병대소속 2등병 알란 씨. 커티스가 김현식(29살)을 카빈총으로 쏘아 즉사시켰다.

－6월 13일

◦ 22시경 미제침략군 3명이 강원도(남) 춘천시 봉의국민학교 뒤산길에

서 그곳을 지나가는 한규석(20살)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조이고 손목시계를 비롯한 소지품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 6월 17일

◦ 경기도 강화에서 3명의 미제침략군이 한 녀성을 강간하려는 저들의 행위를 제지한다고 하여 백광운(25살)에게 달려들어 집단구타를 하여 심한 부상을 입혔다.

— 6월 30일

◦ 인천항만사령부소속 선박부대 L. C. U. 125선장 중사 도마트가 선박종업원 리종남이 로임이 적다고 제기하자 그를 선장실로 끌고들어가 구타하여 치명상을 입혔다.

— 7월 9일

◦ 서울북쪽에 둥지를 튼 1기갑사단구역근처에서 미군장교가 김경덕(21살)에게 총을 쏘아 왼팔에 부상을 입혔다.

— 7월 12일

◦ 16시 40분경 인천시 문학동에 있는 공병부대소속 미군야수들은 주민부락부근에서 고성능폭발물을 폭파시켜 리건종의 처 박정례의 얼굴에 중상을 입혔다.

— 7월 16일

◦ 18시경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선암리 로상에서 7사단 32련대소속 미군야수가 찦차를 몰고가다가 지나가는 양주군 회천면 덕정리에 사는 황길성(54살)의 모자를 잡아채여 그의 머리가 차체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그를 즉사시켰다.

— 7월 20일

◦ 39보급소 중대장 윌리암이 고명순(26살)을 강제로 차에 싣고 의정부 하금오리 도로상에 와서 입을 틀어막고 구타능욕한 후 실신한 그를 차밖으로 내던졌다.

— 7월 28일

◦ 22시경 경기도 평택군 송탄면 지산리 좌동에 있는 서울사진관 앞길에서 K—55기지사령부 6314헌병대소속 상등병 레이가 길가는 임신부 박정순(29살)에게 달려들어 때려 류산시키였다.

— 8월 10일

◦ 오후 8군 서울기지사령부소속 2명의 미군은 가짜양담배를 서울시 룡산구 후암동 5통 2반에 사는 리상문(녀자 30살)에게 팔아 10US＄를 사취하였다.

－8월 22일

◦ 경기도 파주군에서 1기갑사단소속 죠스 엔. 자라밀로와 로버트 비. 월슨은 자유교를 지나가는 함원연 외 1명에게 총질을 하여 함원연에게 중상을 입혔다.

－8월 31일

◦ 6시 30분경 김포비행장에 있는 6167부대근방에서 헌병 병장 와이트 썬브드(25살)가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에 사는 리영근(17살)과 최창기(23살)를 사냥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9월 4일

◦ 0시～새벽까지 97공병보급소소속 40여명의 미군은 인천시 산곡동부락에 뛰여들어 살림집을 파괴하고 리상구(28살)와 김애란(녀자 27살)에게 칼과 맥주병으로 중상을 입혔으며 그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9월 26일

◦ 14시경 헌병대 조사계장 상사 맨티스가 경기도 평택군에 있는 K－55기지 로무자 박상길을 교통위반이라는 구실밑에 감금하고 구타하여 타박상을 입혔다.

－9월 28일

◦ 22시 50분경 전라북도 김제군 황산면 황산리에서 군수기지 공병단소속 7명의 미제야수들은 시계수리공 정헌승(26살)의 집을 습격하여 그를 마구 때려 실신케 한 후 손목시계와 회중시계 15개를 강도질하였다.

－10월 6일

◦ 21시 55분경 7사단 32련대 본부중대소속 2등병 프랭크 루박크(18살), 아이라 케이. 프랭크(18살)는 택시를 타고가다가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27번지 중앙산업 앞길에 이르러 운전사 홍학수의 목을 조이고 때려눕힌 다음 현금 1만 2 000원을 강탈하였다.

－10월 10일

◦ 8군 304통신대대소속 상사 이얼 에스. 위트니(32살)가 서울시 룡산구 후암동에서 김동윤(35살), 류준석(29살), 리수완(27살)에게 사격을 가하여 김동윤을 즉사케 하고 2명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10월 15일

◦ 23시 30분경 1군단소속 2명이 택시를 타고가다가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읍 신곡리 송산 앞길에 이르자 운전사 정태식의 목을 조르고 현금 1만 5 700원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10월 16일

◦ 16시 30분경 군산지구 공군파견대 조사계장 알빙이 군산시 금동 6번지 자기 집 앞길에 세워놓은 자동차주변에서 놀던 리장근(7살)을 구타하여 왼팔을 부러뜨리였다.

－10월 25일

◦ 23시 30분경 8군 728헌병대소속 헌병들이 서울시 룡산구 원효로 1가 28번지 앞길에서 남편과 함께 집으로 가고있는 강복희를 랍치하여 차에 싣고 달아나다가 차문이 열려져 그가 차에서 떨어져 죽게 하였다.

－10월 26일

◦ 150수송파견대소속 2등병 죠지 아. 토마스가 점포에 침입하여 현금 2만 600원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10월 29일

◦ 해군소속 3명의 미제야수들이 부산시 초량동에서 길가는 박경식청년에게 무작정 달려들어 구타하여 얼굴에 심한 부상을 입혔다.

－10월 31일

◦ 9시경 54공병대소속 1등병 팍스 외 30여명의 미군이 인천시 부평동에 있는 백마장당구장에 뛰여들어 당구를 놀던 고세택(35살)을 비롯한 10명을 집단구타하여 그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11월 1일

◦ 22시 50분경 2명의 미제침략군이 서울시 중구 예관동 8번지 앞길에서 택시를 탄 다음 운전사 홍순화를 돌로 까눕혀 그를 차밖으로 내던지고 택시를 강탈하였다.

－11월 6일

◦ 21시 40분경 보초병 1등병 매스택스는 인천시 청천동에 둥지를 튼 8군 형무소앞을 지나가던 주민에게 권총을 쏘아 중상을 입혔다.

－11월 12일

◦ 23시경 304통신대대소속 1등병 마타스 죠셉과 8군소속 1등병 다브카민스키가 서울시 룡산구 남영동 송남극장앞에서 택시를 타고 신당동 청구국민학교 뒤골목에 이르자 운전사 강진우에게 단도를 빼들고 금품을 강요하였다.

－11월 13일

◦ 경기도 평택에서 304통신대대소속 제임스 비. 앤더스가 리민형 외 2명의 주민에게 총질을 하여 리민형에게 중상을 입혔다.

— 11월 17일

◦ 1기갑사단 8련대 3중대소속 데비드 에취. 웰슈는 김석환(27살) 외 1명의 주민에게 총질을 하여 김석환에게 부상을 입혔다.

— 11월 20일

◦ 새벽 서울시 룡산구 한강로 3가 40—106번지에 사는 김옥조(녀자)가 미군사고문단 문관 죠지 월터가 쏜 사냥총탄에 맞아 치명상을 입었다.

— 12월 2일

◦ 17시 30분경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산봉리에서 미제야수가 해안에서 휴식하던 김충기(19살)를 고의적으로 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 12월 8일

◦ 21시 10분경 해병 3명이 부산시 초량동 텍사스골목으로부터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가서 료금을 요구하는 강창준(35살)과 김흥동(21살)을 다짜고짜로 쇠몽치로 때려눕히고 달아났다.

— 12월 11일

◦ 밤 미제침략군 사병이 인천시 섭정동 176번지에 사는 김순갑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의 딸 김옥애(15살)를 강간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마을주민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12월 25일

◦ 6시 30분경 7사단 34련대 본부중대소속 1등병이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도산리에 있는 박정호(56살)의 집에 불을 놓아 약 80만원의 피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 13시 10분경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부근에서 공군헌병 6414중대소속 하사 크레미 저지와 병장 킨 엘빈, 6929이동통신대소속 병장 벨마이어 버치 등 3명은 박기완에게 총질을 하여 즉사시켰다.

— 12월 26일

◦ 경기도 인천시 부평동에서 728헌병대소속 1등병 구리레스가 리국자(21살)를 붙들고 수욕을 채우려다가 반항에 부딪치자 술병으로 머리를 때려쓰러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정경자(19살)에게 폭행을 가했다.

1961년

— 1월 3일

◦ 14시 30분경 하사 빈(33살)은 서울시 룡산구 후암동에 있는 홍아무개

집에 뛰여들어 소녀(12살)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다음 옷을 벗기다가 주민들에게 발각되여 달아났다.

—1월 4일

◦ 0시경 82야포대대소속 1등병 외 3명은 서울자 2250호 택시를 타고가다가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무건리 앞길에 이르러 운전사 손석만을 집단구타하여 중태에 빠뜨리고 현금 6US＄를 강탈한 다음 자동차까지 파괴하고 달아났다.

—1월 28일

◦ 1기갑사단 19포병련대소속 미군야수는 부대주변에서 소년들에게 총질을 하여 1명을 즉사시키고 1명에게는 치명상을 입혔다.

—2월 2일

◦ 밤 55헌병중대 병장 윌리암 에취. 태프트(32살)는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읍 가릉리에서 표정순에게 치근덕거리며 희롱을 하다가 그가 반항하자 사정없이 때려 치명상을 입혔다.

—2월 6일

◦ 1시 30분경 7사단 24련대소속 병장 레쓰고이 라우는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광암리에 있는 김순덕의 집에 침입하여 최종석을 릉욕하려다가 그가 항거하자 침구에 불을 질러놓고 달아났다.

—2월 13일

◦ 13시 30분경 충청남도 서산군 태안면 삭성리 도로에서 1등병 캔랜도날도(26살)가 화물자동차를 고속으로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가던 배수현(24살)을 고의적으로 깔아 두개골을 파렬시켜 즉사시켰다.

—2월 17일

◦ 18시 40분경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56번지 앞길에서 택시를 탄 미제침략군은 운전사 리근수(30살)를 흉기로 위협하여 현금 6 500원과 손목시계를 강탈한 후 달아났다.

—2월 27일

◦ 13시 45분경 공군장교 외 3명은 김포비행장에 취재하려간 《코리난 리퍼브릭》 신문사 기자 김근택을 사목산에 끌고가 사진기를 빼앗고 카빈총으로 위협하면서 집단구타하여 중태에 빠뜨렸다.

—3월 10일

◦ 15시 45분경 영등포구 도림교우에서 경기도 의정부주둔 38부대소속 중사 후랭코 엘. 심포손이 군용승용차를 몰고가다가 다리로 지나가는 우상을

(27살)을 권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3월 13일

◦ 10시 5분경 8군산하 728헌병대대 3중대소속 2등병 에도야프 노피이스와 단헤덴은 서울시내 뻐스정류소에서 택시를 타고 룡산중학교 앞도로에 이르러 운전사 최창우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후 그를 차밖으로 내던지고 택시를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3월 15일

◦ 21시 30분경 532부대소속 미군이 경기도 인천시 학익동에 있는 최조이의 집대문을 들부시고 집안에 있던 심한섭(29살) 외 4명을 때려눕혀 중상을 입히고 가장집물을 완전히 파괴하여 약 2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3월 16일

◦ 미군사고문단소속 하사 허바트 엘. 파손즈는 1군단 주둔지역인 창학리 마을길가에서 리학용(4살)을 고의적으로 깔아 무참히 죽이였다.

—3월 19일

◦ 20시 20분경 서울에서 인천방면으로 차를 미친듯이 몰던 미군야수가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1가 15번지 도로에서 길을 건느던 리영자(녀자 22살)를 고의적으로 깔아 치명상을 입혔다.

—3월 24일

◦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결산리에서 7사단 102병기대대소속 2등병 페이워드 지리지는 산에서 삭정이를 줏고있던 김진평(16살)을 엠완총으로 쏘아 대퇴부와 국부에 관통상을 입혀 즉사시켰다.

—3월 25일

◦ 경기도 평택군에서 1기갑사단소속 2등병 콘스탄티니가 이 지대에 있는 K—6비행장부근을 지나가던 최용소(37살) 외 2명에게 총질을 하여 그중 1명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3월 28일

◦ 12시경 경상남도 울산군 하상면 남의리 앞길에서 6314공군부대 2파견대 화물차운전사 우프(18살)는 고속으로 질주하다가 김금화(녀자 13살)를 들이받아 죽이였다.

—3월 31일

◦ 20시 20분경 6명의 미제침략군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장봉욱의 집에 뛰여들어 유부녀를 겁탈하려다가 그가 반항하자 가장집물들을 마구 들부신 후 이웃집까지 파괴하고 달아났다.

－4월 2일

◦ 2시 30분경 공군 802공병대 3중대소속 하바드 웰링은 군산시 금호동 공회당 앞길에서 김제군 김제읍에 사는 박광희(26살)를 능욕하려고 강제로 끌고가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리병희에게 저지당하자 그의 얼굴을 때려 중상을 입혔다.

－4월 3일

◦ 1시경 미제침략군 병사가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읍 가릉리에 있는 조종일(45살)의 집에 뛰여들어 하진옥(25살)을 능욕하려다가 그 녀자가 피신하자 분풀이로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4월 7일

◦ 오후 1기갑사단 9련대 3중대소속 헌병 중사 후레드릭 씨. 웨베가 부대부근에로 지나가는 김정옥(22살)과 리병섭(29살)에게 권총을 란사하여 김정옥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4월 27일

◦ 4시 15분경 서울－부산행 제61렬차에 탔던 728부대소속 중사 스코트가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아 기관사 리진춘(31살)의 머리를 곤봉으로 때려 파렬상을 입혔다.

－5월 1일

◦ 22시경 16병기중대소속 1등병 리챠드 엘. 벨과 대구지구헌병대소속 1등병 비티는 대구시 향촌동 대륙당구장 앞길에서 김순일(25살)에게 달려들어 단도로 그의 허리를 찌르고 깨진 맥주병으로 머리를 후려갈겨 치명상을 입혔다.

－5월 3일

◦ 20시 40분경 1기갑사단 12기갑련대 2중대소속 1등병 조셉 에프. 브랜드는 남흥우(27살)가 자기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그를 권총으로 쏘아죽이였다.

－5월 4일

◦ 20시경 강원도(남) 양양군 속초주둔 통신수색중대 B파견대소속 하사 졸스이 쁠텐(25살)은 속초읍 4구에 있는 황기호의 집에 침입하여 도경자(25살)를 능욕하려다 이에 불응하자 그를 벌거벗긴 후 손발을 묶어놓고 목을 조르고 하복부를 강타하여 잔인하게 죽이였다.

－5월 27일

◦ 평택비행장주둔 581통신중대소속 1등병 죠지 이. 웬젤은 군용승용차를

몰다가 길옆에서 놀고있던 오순이(5살)를 고의적으로 깔아죽이였다.

—7월 5일

◦ 오전 1기갑사단 8기갑련대소속 야수놈은 부대부근에로 지나가던 리길연(30살), 김소연(23살), 김광진(22살)에게 총질을 하여 그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7월 7일

◦ 오후 오산비행장소속 문관 니콜 엠품이 경기도 안성군 반정리에서 사냥에 돌아치다가 밭에서 일을 하던 리갑성(녀자 56살)에게 총질하여 중상을 입혔다.

—7월 8일

◦ 오산공군기지 미제침략군 헌병들은 오물적재장부근을 지나가던 조완길외 10명의 주민들에게 총을 란사하여 4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7월 17일

◦ 6시 40분경 경상북도 대구시 덕산동 88번지 반월당앞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고속으로 차를 몰고가던 K—2비행단소속 미제침략군 통근차 A—24호운전사 로이 에프. 굳원은 대구시 대봉동 4구 407번지에 사는 김성도(45살)를 깔아 중상을 입혔다.

—8월 4일

◦ 21시경 8군 고문단 병기과소속 로메로(39살)가 리병목의 집에 기여들어 선풍기, 랭동기 등 가장집물을 파손시키고 달아났다.

—8월 20일

◦ 서울에 둥지를 튼 7사단 31포병 1곡사포대대소속 미군야수들은 로동자들에게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 들어가 일하도록 강요하여 그들이 작업중 폭발로 2명이 죽고 4명이 치명상을 입게 하였다.

—8월 28일

◦ 51통신대대소속 1등병 해리 이. 우드가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에 있는 한 상점에서 상품을 도적질하려다가 점원 박홍연에게 저지당하자 그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10월 9일

◦ 새벽 경상남도 부산시 동래구 중동 1394번지 앞길에서 군용승용차 614호를 몰고가던 하사 챠므스가 조금석(33살)을 고의적으로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10월 16일

◦ 8공병대대 본부중대소속 야수놈은 부대주변을 지나가던 주민 3명에게

총질을 하여 그중 1명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12월 6일

◦ 경기도 의정부에서 1군단 51통신대대소속 1등병 안또니 제이. 모라스가 교통위반하면서 고속으로 차를 몰아 길옆에서 놀던 안무희(6살)소녀를 깔아죽이였다.

1962년

—1월 2일

◦ 미제침략군 야수들은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에서 산에서 삭정이를 줏던 김부성(28살)과 강정수(30살)를 사냥총으로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

—1월 3일

◦ 14시 10분경 충청북도 옥천읍 옥각리에서 7군수사령부 장거리통신대대 3중대소속 중사 바비 에취. 원담과 중사 어얼 제이. 환함은 정류소에서 뻐스를 기다리고있던 금영유(25살)에게 사냥총을 쏘아 치명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1월 6일

◦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뒤산에서 1기갑사단 8련대 4대대소속 야수들은 땔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파주군 림진리의 농민들을 《포위하여…흡사 오리사냥》하듯 사냥총을 마구 쏘아 황광길(25살), 류기용(28살) 등 6명을 죽이고 10명에게 중상을 입혔다.(파주나무군사살사건)

—1월 19일

◦ 23시 30분경 4명의 미제침략군이 서울시 영등포 역전도로 교차점에서 운전사 리홍우의 택시를 도로주변에 처박고 현금 6 500원을 도적질해가지고 달아났다.

—2월 3일

◦ 21시경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에 둥지를 튼 공군기지소속 4명의 야수들은 서기규(40살)를 도적으로 몰아 군견으로 물어뜯게 하고도 성차지 않아 집단구타하여 중상을 입히였다.

—2월 9일

◦ 10시 30분경 7사단 31련대소속 미군야수가 조선청년을 엠완총으로 쏘아죽이였다.

—2월 15일

◦ 20시 30분경 7사단 본부소속 미군야수들은 부대주변을 지나가던 5명의 주민들에게 총질을 하여 양주군 이담면 생연리에 사는 박윤태(24살)에게

중상을 입혔다.

—2월 18일

◦ 19시경 1기갑사단 공병대소속 상병 윌리암 그리(30살)는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가야리에 있는 윤장석의 집에 뛰여들어 임신 5개월의 신영숙(25살)을 릉욕한 후 구두발로 마구 차서 치명상을 입혀 락태시켰다.

—3월 3일

◦ 22시경 38려단 7유도탄대대 본부중대소속 하사 오비티스에 피로스톤(24살)은 경기도 시흥군 덕산리에서 최옥진(녀자 37살)에게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다.

—3월 4일

◦ 11시 40분경 미제침략군 2명은 경기도 시흥군 덕산리에서 길가는 김재권(35살)에게 달려들어 구타하여 치명상을 입힌 다음 하수도구멍에 처넣고 달아났다.

—3월 5일

◦ 22시 30분경 7사단소속 미군병사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에서 이곳에 사는 리기용(35살)의 얼굴과 몸에 칼질을 하여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3월 16일

◦ 8시경 승용차를 몰고가던 미제침략군이 서울시 룡산구 한강로 1가 16번지 앞길에서 서울시 영등포구 대방동산 15번지에 사는 임신 4개월의 조정구(28살)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다.

—3월 17일

◦ 3시경 룡산구 룡산동 5가 2번지에 사는 미국인 그레에는 자기집 식모 송필남(35살)의 방에 뛰여들어 강간하려다가 반항에 부딪치자 그를 사정없이 때려 전신에 타박상을 입혔다.

—3월 18일

◦ 15시 30분경 서울시 을지로 6가에서 미제침략군 운전사가 교통신호에 따라 길을 건느던 서울시 을지로 6가 18번지에 사는 현태룡(73살)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다.

—3월 20일

◦ 밤 충청남도 서산군 태환면에 등지를 튼 3중대소속 1등병 트라벌 제이. 대그이 외 5명이 서산군 산선리에 있는 리동익의 집에 기여들어 초가지붕에 불을 지르고 리의용이 운영하는 건물을 파괴하였으며 이웃에 있는 김정원의 상점에 뛰여들어 상품을 파괴하는 등 40분동안이나 주민들의 재물을 파

괴하고 달아났다.

—3월 27일

◦ 서울시 성북구 수유동에서 미제침략군 운전사 스미스(27살)가 고속으로 차를 몰고가다가 길가에서 놀고있던 유재환(9살)소년을 고의적으로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4월 1일

◦ 15시경 미제야수들은 전라북도 옥구군 성산면 공북리 봉산동 뒤산으로 3명의 녀성들을 강제로 끌고 올라가다가 그를 발견한 조서언(21살)과 문진예(30살)에게 총을 란사하여 조서언에게 관통상을 입혔다.

—4월 2일

◦ 20시경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 로상에서 미제침략군 야수가 길가는 정윤옥(29살)을 희롱하려다가 그가 반항하자 옆구리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후 달아났다.

—4월 4일

◦ 19시경 13병참대대소속 3명은 아무 리유없이 전찬수, 강심권, 설기용을 17시간이나 감금하고 몽둥이와 쇠고랑으로 마구 때린 후 물고문까지 하였다.

—4월 5일

◦ 21시 30분경 1기갑사단소속 2등병 콜로모 외 3명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에 사는 김남협의 집에 뛰여들어 다짜고짜로 그를 때려 중상을 입혔다.

—4월 12일

◦ 12시경 서울시 중구 동자동 24번지 앞길에서 7군수기지사령부소속 운전사 죠셉 나샨이 고속으로 차를 몰고가다가 길가던 국민학교 2학년생 최윤희소녀를 깔아죽이였다.

—4월 18일

◦ 17시경 1기갑사단 5련대 2대대 1중대소속 상등병 케트는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웅담리에 사는 강아무개 녀성을 마을뒤산에 끌고가 끈과 새끼줄로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은 다음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4월 26일

◦ 23시 10분경 미제침략군 3명이 서울시 성북구 송천동 75번지에 사는 김상후(49살)와 엄정식을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개천다리에서 아무 리유없이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다.

—5월 1일

◦ 23시 30분경 1기갑사단 4련대소속 26호운전사가 찦차를 고속으로 몰고 가다가 경기도 파주군 파주에서 뻐스를 수리하고있던 운전사 안성호(39살)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5월 18일

◦ 0시 45분경 833경기중대소속 1등병 죤슨이 충청남도 대덕군 북면 장동리에서 유춘자(22살)를 릉욕하고 권총으로 쏴죽이였다.

—5월 19일

◦ 7시 30분경 경기도 평택군 송탄면에 주둔한 오산비행기지소속 헌병이 송탄면에 사는 황남선(32살)을 아무런 리유도 없이 몽둥이로 때려 전신타박상을 입힌 후 군견을 부추겨 물어뜯게 하여 치명상을 입혔다.

—5월 23일

◦ 19시 30분경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남양3리에서 7유도탄부대 2포대대 3중대소속 병장 3명과 상등병 윌리암스 등은 이 마을에 사는 박호재(28살), 온정순(23살) 부부를 저들에게 불손하게 행동한다고 하여 아무런 리유없이 마구 때려 치명상을 입혔다.

—5월 25일

◦ 오전 경기도 파주군 월롱면에서 《A. S. P. 63디파트먼트오피스》에 근무하는 미군병사 스텐져가 이 부대에 신문을 배달하고 돌아가는 리희원(14살 파주군 월롱면 영태리에 거주)소년을 군견으로 물어뜯게 하여 중상을 입혔다.

◦ 13시 15분경 5191병기창 192대대소속 화물차운전사가 서울시 영등포구 본동 211뻐스정류소앞에서 뻐스를 기다리던 서울시 마포구 동화동 산 9—113번지에 사는 정연태(29살)를 깔아 즉사시켰다.

—5월 29일

◦ 경기도 파주에서 1기갑사단 4전투단 3중대소속 중위 토마스 엘. 월드(35살), 중위 데이비드 더블유. 스윈스(29살) 등을 비롯하여 여러명의 미군이 중대주변에서 일하다가 변소에 피신한 리일룡을 끌어내여 벌거벗기고 바줄로 목을 맨 후 몽둥이로 때렸으며 그후 다시 전주대에 꺼꾸로 매달아놓고 몽둥이와 구두발로 마구 차고 때려 빈사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5월 30일

◦ 경기도 평택지구에서 공군헌병 페터슨이 군견으로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에 사는 심덕선(52살)농민을 물어뜯게 하였을뿐아니라 전신라체가 된 그를 30여명의 녀성들이 보는 앞을 질질 끌고다니게 하였다.

◦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포천리에서 1기갑사단 본부소속 13통신대 1중

대소속 1등병 제르지 웬링(21살)은 로무자 엄세준(29살) 외 1명이 저들의 숙소에 들어왔다는 리유로 카빈총으로 쏘아 즉사시켰다.

—6월 1일

◦ 10시 30분경 7사단 본부중대 원유저장고부근에서 이 부대소속 4명의 미군은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생면리에 사는 리관해(34살) 외 1명을 부대에 붙들어놓고 때려 중상을 입힌 후 벌거벗긴채로 내쫓았다.

—6월 2일

◦ 24시경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법원리 도로상에서 1기갑사단소속 1등병 브리지스 호스톤 리을 외 1명은 집으로 가는 김종권 외 2명을 아무 까닭없이 마구 때려 타박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6월 4일

◦ 밤 서울시 여의도 항공기지입구에서 여러명의 미제침략군이 고정희(녀자 46살)를 아무 근거도 없이 행동이 수상하다는 구실로 마구 차고 때려 얼굴과 전신에 중상을 입혔다.

—6월 5일

◦ 22시 30분경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마산리 382번지 김정권(30살)의 집에 뛰여든 31포대소속 3명은 자기들을 공손히 맞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저녁을 먹고있던 김정권 외 2명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6월 6일

◦ 23시 30분경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마산라에서 32포병대소속 중사 그랜드(34살)는 마산리에 사는 박정희(33살)를 릉욕하려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엎어뜨리고 사정없이 때려 중태에 빠뜨렸다.

—6월 7일

◦ 오후 1기갑사단 3수송대소속 화물차운전사가 경기도 파주군 포리면 봉일천리앞을 고속으로 달리다가 길옆에 비켜서있던 파주군 포리면 조문동에 사는 김옥순(9살)을 깔아죽이고 같은 마을의 리해교(11살), 리애순(14살)소녀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6월 14일

◦ 3시 50분경 경기도 시흥에 둥지를 튼 미제침략군 탄약중대소속 미군 야수가 시흥리 123번지 황인환(50살)의 집에서 세방살이를 하고있는 전애란(23살)의 방에 침입하여 그를 릉욕하려다가 거절당하게 되자 수건으로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달아났다.

—6월 23일

◦ 16시 30분경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금곡리에서 1기갑사단 5기갑련대소

속 1등병 맥래모는 김영자(23살)에게 달려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반항에 부딪치자 그를 때려 전신에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6월 28일

◦ 15시 5분경 7사단 의무대소속 군용승용차 21호운전사가 경기도 련천군 전곡면 은대3리앞에서 고속으로 차를 몰다가 길가에서 놀던 전철(7살)어린이를 깔아 즉사시켰다.

－6월 29일

◦ 밤 55공군대대 B중대소속 미군야수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동에 사는 리순박(녀자)에게 달려들어 추잡한 행위를 하다가 그가 반항하자 단도로 마구 찔러 중상을 입혔다.

－7월 3일

◦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법원리에서 71포병대대소속 미군야수는 자동차로 한칠용(33살)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즉사케 하였다.

－7월 6일

◦ 오후 경기도 파주군 금촌리 앞길을 질주하던 미제침략군 운전사가 길을 걸어가던 파주군 월용면 부둔리에 사는 김천애(녀자 55살)를 고의적으로 깔아 즉사케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7월 15일

◦ 19시경 미군병사가 서울시 룡산구 남영동 129번지에 사는 리아무개(24살)의 방에 뛰여들어 릉욕하려다가 항거에 부딪치자 그를 2층밖으로 내던져 치명상을 입혔다.

－8월 3일

◦ 23시경 경기도 인천시 부평에 둥지를 튼 8057부대소속 5명은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이르자 료금지불을 요구하는 운전사 리인석을 집단구타하여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8월 8일

◦ 23시경 1기갑사단 20포부대소속 미군병사가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대능2리 420번지에 사는 김창봉(64살)의 집에 기여들어 그의 며느리와 다른 유부녀에게 달려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장명선(63살 김창봉의 처)의 항거에 부딪치게 되자 그 로인을 부엌으로 끌고나가 마구 때려 머리에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8월 18일

10시 50분경 전라북도 김제군 공덕면 황산리 공덕국민학교 앞길에

서 43유도탄중대소속 화물차운전사 트레스(26살)가 황산리에 사는 권근신(11살)소녀를 고의적으로 깔아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8월 29일

◦ 14시 40분경 서울시 룡산구 한강로 3가 교통부 청사입구 네거리로 화물차를 몰고 고속으로 질주하던 수송파견대 운전사 2등병 카블이 신호대기중인 4대의 차를 들이받아 서울영 86호 택시를 파괴하고 이 차에 타고있던 리해용(33살) 외 3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 부산에 정박하고있던 미국선박 선원 프란시스 스르비아가 강옥자(26살)에게 달려들어 수욕을 채우려다 거절당하자 단도로 찔러 치명상을 입혔으며 그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염춘희(녀자 21살)에게도 칼부림을 하여 중상을 입혔다.

－8월 30일

◦ 19시 30분경 공군부대소속 미군야수가 대구시 대명동 태백제재소앞에서 고속으로 몰고가던 화물차로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던 김창호의 어머니 김씨를 깔아 즉사케 하고 달아났다.

－9월 15일

◦ 부산에 둥지를 튼 미제침략군 스티븐스가 고용로동자 윤병갑을 아무리유없이 가두어놓고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다.

－9월 16일

◦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앞길로 화물차를 고속으로 몰고가던 8군 763공병대소속 고드메가 이 마을에 사는 김용만(6살)소년을 고의적으로 깔아 죽이였다.

－9월 30일

◦ 11시 30분경 경기도 인천시 학익동에 주둔한 6중대소속 1등병 제임스 더블유. 웨스트우드는 부대옆을 지나가는 주민에게 심심풀이로 총질을 하여 그에게 관통상을 입혔다.

－10월 22일

◦ 서울시 룡산구 서빙고동 192번지 앞길에서 30병기중대소속 후랭크가 땅크로 집앞에서 놀고있던 정길원(7살)어린이를 깔아 치명상을 입혔다.

－11월 10일

◦ 16시경 서울시 남대문시장 앞길에서 304통신대대 57중대소속 죤이 서울시 을지로 7가 25번지에 사는 박태혁(32살)에게서 시계를 사준다고 속여 많은 현금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11월 29일

◦ 23시경 경기도 림진강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근방에서 1기갑사단 8련대소속 미군경비원이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문산리에 사는 리길영에게 《도적》의 루명을 씌워 총으로 쏘아 즉사케 하였다.

1963년

−1월 2일

◦ 23시 55분경 서울 제1은행 청량리지점 앞길에서 8군소속 운전사가 미친듯이 화물차를 몰고가다가 우명희(6살)를 고의적으로 깔아 치명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1월 3일

◦ 23시 30분경 1기갑사단 8기갑련대 본부중대소속 미군야수는 파주군 적성면 장파리에 거주하고있는 정순자(21살)의 집에 기여들어 그를 릉욕하려다가 항거에 부딪치자 구멍탄불을 옷장에 던져 장농을 불태웠다.

−1월 7일

◦ 20시 20분경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275번지에 사는 김옥희(21살)의 집에 뛰여든 미제침략군 병사가 그를 릉욕하려다가 항거에 부딪치자 혁띠로 목을 졸라매고 면도칼로 팔과 앞가슴 등에 상처를 입혔으며 목걸이를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1월 11일

◦ 22시 20분경 여러명의 미제침략군이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대릉리 88번지에 있는 로현동(30살)의 잡화상점에 뛰여들어 그를 때려눕히고 돈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1월 22일

◦ 23시 10분경 부산시내 대창동 골목에서 142보급창소속 2등병 오엔스가 생트집을 걸어 도재옥(녀자)에게 행패를 부렸으며 그를 말리는 박숙자(녀자)의 얼굴에 돌을 던져 중상을 입히고 김성락(53살)의 상점유리를 깨버렸다.

−2월 28일

◦ 21시 30분경 경기도 인천시 월미도에 둥지를 튼 75수송대소속 미제살인귀가 중앙동 4가 2번지에 사는 장영희(25살)가 집으로 가는것을 보고 그의 뒤를 따라 방에까지 뛰여들어 릉욕하려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타고앉아 목을 조르면서 구타한 후 3m나 되는 계단아래로 발길로 차 굴러떨어뜨려 중태에 빠뜨렸다.

－3월 16일

◦ 3시경 17련대소속 미군야수가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4통 8반에 사는 조영식(22살)을 총으로 쏘아 즉사시켰다.

－3월 21일

◦ 21시경 미제침략군 하사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광암리 486번지에 사는 신영해(22살)의 팔을 비틀어 뼈를 부러뜨리고 도망쳤다.

－3월 23일

◦ 21시경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 428번지에서 2명의 미제침략군은 리애숙(23살)을 릉욕하려다가 반항에 부딪치자 그의 가슴에 연막탄을 던져 심한 타박상과 화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 23시경 미군병사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 428번지에 사는 김상택(49살)의 상점지붕우에 연막탄을 던져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3월 30일

◦ 13시 15분경 경기도 인천시 중앙동 2가 골목길에서 89공병단소속 하사 데기러(41살)가 시내 관동 2가 2번지에 사는 김아무개(28살)에게 달려들어 릉욕하려다가 그가 반항하자 구타하여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4월 20일

◦ 21시경 7사단소속 미군 3명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 428번지에 사는 진현익(27살)의 집에 아무 까닭없이 돌을 던져 가구들을 파괴하고 그들부부에게 매질까지 하여 중상을 입혔다.

－4월 28일

◦ 21시경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광암리에서 7사단 32련대 1중대소속 2등병 신스리 외 3명의 야수들은 로동자를 때리는것을 말리는 이 마을에 사는 김금옥(녀자 36살)의 얼굴을 삽날로 찍어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6월 2일

◦ 밤 1기갑사단 4련대소속 하사 죠지 더블유. 젬미스가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77번지에 사는 배정순(23살)에게 달려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항거에 부딪치자 그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6월 5일

◦ 8시 50분경 21수송중대 운전사 상등병 메클이 서울역으로부터 영등포로 가는 길가에서 차를 고속으로 몰아 양지리발관 종업원 윤남훈(17살)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치명상을 입혔다.

-6월 16일

◦ 14시 50분경 충청남도 천안시 성황동 대정부락 앞길에서 71병기단 장거리통신대소속 병장 로버트 앨이 군용승용차로 지나가던 김학임(녀자 19살)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6월 18일

◦ 15시경 8군소속 6병참중대 화물차운전사 2등병 크린 삼웰리는 고속으로 차를 몰다가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3리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는 신승호(49살)를 고의적으로 깔아 즉사케 하였다.

-6월 30일

◦ 17시경 1등병 데크를 포함한 3명은 강원도(남) 춘천시 소양로 3가에 사는 언니를 찾아가던 윤아무개(녀자 19살)를 랍치하여 부대에 끌고가 륜간하였다.

-7월 6일

◦ 21시경 미군병사 번 외 2명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당동리에 사는 정정순(녀자 26살)의 집에 뛰여들어 무작정 돈을 내라고 위협하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밖으로 끌고나가 량쪽팔을 붙잡고 그가 차고있던 시계를 강탈하였다.

-7월 18일

◦ 23시 45분경 1기갑사단 련대본부 보초 1등병 하지스 제임스는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향고골에 사는 김덕순(39살)과 그의 조카 리명덕(17살)소년에게 보초소옆을 지나간다고 예고없이 M-14소총 5발을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

-8월 5일

◦ 16시경 36공병단소속 상등병 리슨이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에서 채석장부근을 지나가는 조선형(39살)을 저들의 채석장에 몰래 들어왔다고 하여 엠완총 7발을 쏘아 즉사시켰다.

-8월 10일

◦ 20시 30분경 미군사고문단소속 찦차 201호운전사가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심곡리 586번지 앞길에서 이 마을에 사는 리순희(61살)로인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즉사케 하였다.

-9월 3일

◦ 21시경 7사단 2대대 32보병대소속 화물차운전사 2등병 그레인스가 교통신호에 따라 서울시 신당동 292번지 앞길을 건너가던 김치팡(36살)을 고의적으로 깔아 즉사케 하였다.

−9월 5일

◦ 1시 55분경 서울시 영등포구 오류동에 있는 구름다리에서 8군 방송국 소속 운전사 1등병 라와스키 미치엘피는 고광원(36살), 김영식(37살)과 김룡남(16살)학생을 짚차로 들이받아 김영식을 즉사케 하고 고광원과 김룡남에게 부상을 입혔다.

−9월 15일

◦ 3시 35분경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에 주둔한 2공병단소속 대위 마파이스는 2명의 청년들이 부대열을 지나간다고 하여 권총으로 쏘아 그중 1명을 즉사시켰다.

−9월 17일

◦ 0시 40분경 경기도 파주에 도사리고있던 미제침략군 1등병 찰스 맥터카레드가 길가던 김태이(33살) 외 4명의 녀성들에게 엠완총을 쏘아 김태이를 죽이고 김금순(38살)에게 중상을 입혔다.

−9월 27일

◦ 11시경 오산비행장에 주둔하고있는 공군 6314부대소속 미군야수가 서울시내 제2한강다리앞에서 지나가던 김영길(24살)을 화물차로 고의적으로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10월 1일

◦ 8군 병기창 519병기중대소속 쥬웬 팔(36살)은 경기도 반월면 팔곡 4리부근을 싸다니다가 내가에서 나물을 씻고있던 김순기(녀자 27살)를 발견하자 그를 과녁삼아 사냥총으로 쏘아 치명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11월 10일

◦ 22시경 제주도 제주시 희천동에서 경상북도 대구주둔 7군수기지사령부 의무관 중좌 노리스(50살)와 소좌 스미스(35살)는 제주시 도련동에 사는 변선길(19살)을 꿩사냥의 길안내로 끌고다니다가 꿩을 날리게 하고는 꿩과 함께 그를 사냥총으로 쏘아 즉사시켰다.

−11월 21일

◦ 16시경 경기도 련천에 둥지를 튼 미제침략군 야수가 사격장에서 이곳 주민 유길섭(25살) 외 14명이 마을뒤산으로 나무하러 올라가는것을 보고 과녁삼아 원자포탄을 발사하여 유길섭, 박덕규(40살), 리영철(20살), 전주복(27살), 장복재(29살) 등을 현장에서 즉사케 하였으며 10명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11월 30일

◦ 5시 20분경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길산리에서 7사단 31포대 2중대

소속 2등병 암스 제이. 발미트(24살)가 길가는 김정자(녀자 31살) 외 2명에게 마구 총질하여 김정자에게 중상을 입혔다.

－12월 13일

◦ 1시경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길산리에 주둔한 미제침략군 1등병은 부대앞을 지나가던 4명의 주민들에게 총질하여 박덕신(15살)소년에게 관통상을 입혔다.

－12월 15일

◦ 22시경 경상북도 포항주둔 44공병대 3중대소속 병장 반흐리크와 상등병 왈크리크가 포항시 두호동 앞길을 걸어가던 오원식(39살)을 까닭없이 때려 머리와 허리에 타박상을 입혔으며 그를 말리던 2명의 주민들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12월 20일

◦ 경기도 인천시 문학동 191번지 우인숙의 집에서 술을 처먹던 44유도탄대대소속 힐손과 펜파가 라지오 1대를 훔쳐가지고 달아났다.

1964년

－1월 15일

◦ 17시경 44공병대 3중대소속 커평(20살) 외 1명은 경상북도 대구시에서 건축자재를 싣고 포항으로 가던 도중 경산군 하양에서 김영자(29살)를 붙잡아놓고 륜간하였다.

◎ 강원도(남) 춘천주둔 4유도탄부대소속 미제야수가 12살밖에 안되는 소녀를 강간하고 달아났다.

－2월 2일

◦ 7시경 7사단 32련대 본부중대소속 2등병 월리암스 헤랄드, 1등병 헌트로 니시, 상등병 모리스 알톤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리 목골부락에 사는 리화복(27살)을 랍치하여 구타하고 륜간한 후 돈까지 강탈하였다.

－2월 6일

◦ 12시경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문암리에 둥지를 튼 1려단 유도탄부대소속 미군보초병이 안재섭(17살), 김태영의 가슴을 쏘아 관통상을 입혀 중태에 빠뜨렸다.

－2월 9일

◦ 23시 30분경 경기도 의정부시 가릉리에 주둔한 51통신대대소속 보초 2등병 알렌 더블유. 허브가 부대주변을 지나가는 허창국(13살)을 아무 까닭없이 사냥총으로 쏘아 배에 관통상을 입혀 중태에 빠뜨렸다.

―2월 10일

◦ 16시경 서울시 룡산구 후암동에 있는 다방에서 미제야수가 한 녀성을 껴안고 희롱하다가 이를 말리는 주민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리석구의 얼굴에 칼질을 하여 중상을 입혔다.

―2월 17일

◦ 1시경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에 도사리고있는 1기갑사단 18공병대대소속 1등병 트로웨이 프랭크린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당동리에 사는 3명의 주민들이 부대철조망주변을 지나간다고 하여 권총을 마구 쏘아 그중 황오성(29살)을 즉사시켰다.

―2월 18일

◦ 16시경 경기도 오산에서 미군헌병이 비행장주변을 지나가는 6명의 주민들에게 권총을 쏘아 김기섭(21살)의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혀 중태에 빠뜨렸다.

―2월 23일

◦ 1시 30분경 8군 본부중대소속 1등병 이디어 브라운(20살)은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 산 13번지에 사는 리석균(31살)의 상점에 기여들어 임신부를 위협하면서 술을 내라고 행패질을 부린 끝에 상점을 까부시고 그를 졸도시켰다.

◦ 13시경 경기도 의정부일대에 둥지를 튼 7사단소속 미제살인귀가 사격장주변을 지나가던 김찬규(16살)와 김동봉(17살)소년들에게 사격을 가하여 이들을 즉사시켰다.

―3월 7일

◦ 19시경 미군사고문단소속 운전사 상사 더그라스(33살)가 서울시 중구 장춘동 2가 4번지 앞길에서 길가는 장정우(49살)를 고의적으로 깔아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4월 18일

◦ 8군 장거리통신대소속 캄민스 로버트가 미친듯이 찦차를 몰고가다가 경상북도 달성군 가창면 삼산동 팔조령 산중턱에서 놀고있던 배경애(녀자 10살)와 박재도(남자 10살)를 깔아 즉사시켰다.

―4월 26일

◦ 8군 후방사령부소속 제이. 엘. 오닐 외 2명의 미군은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에 있는 화원유원지에서 김수야(남자)를 마구 때려 타박상을 입히고 사진기를 빼앗았으며 이를 말리는 사람들까지 구타하였을뿐아니라 이 마을에 사는 하순임(녀자)의 가게방을 비롯하여 음식점과 상점, 살림집들에 뛰여들어

식칼로 위협하면서 가장집물들을 파괴하고 주민들을 구타하였다.

－5월 10일

◦ 44공병대 3중대소속 1등병 모로우는 포항시 두호동 84번지의 정우범의 집에 기여들어 문을 들부시고 그의 안해 김순이가 말린다고 하여 아래배를 걷어차고 무릎으로 가슴을 짓누르면서 팔을 꺾어놓았다.

－5월 21일

◦ 미제침략군 존 레이드가 서울시 중구 광희동에 사는 박건일청년을 리태원동 《외인주택》지구의 자기 집에 끌고가서 터무니없는 생트집을 잡아 권총으로 그의 머리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5월 26일

◦ 15시경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대사리에 둥지를 튼 C. T. X. 군사훈련장에서 전쟁연습에 광분하던 미제침략군은 이 마을에 사는 장인석(18살)소년에게 연막탄을 던져 그의 눈에 중상을 입혔다.

－6월 3일

◦ 23시경 7사단 32련대소속 미군 3명은 경기영 987호 택시를 타고가다가 동두천읍 광암리 고개턱에 이르러 운전사 김상기(28살)에게 달려들어 머리와 얼굴 등을 칼로 찔러 실신시킨 후 현금 2 000원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6월 6일

◦ 3시 30분경 경기도 파주에서 658교육처 3휴양소 보초를 서고있던 1등병 한슨이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에 사는 부대식당종업원 박건수(57살)가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총질하여 중상을 입혔다.

◦ 20시경 춘천시 소양군 3가에서 4유도탄기지사령부소속 병장 맥파이머 외 2명은 얼음과자통을 메고가는 박경남(17살)소년을 붙들고 희롱하던 끝에 그에게 뭇매를 안겨 중상을 입혔다.

－6월 11일

◦ 아침 서울시 룡산중학교 앞길에서 영등포로 화물차를 몰고가던 미제침략군 운전사가 교통신호를 받고 서있던 뻐스 1대와 2대의 승용차를 마구 들이받아 차에 타고있던 7명의 주민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6월 19일

◦ 16시 50분경 서울시 마포구에서 미국외교관차 3889호를 몰고가던 운전사(녀자)가 김옥순(녀자 51살)을 고의적으로 깔아 중상을 입혔다.

◦ 22시 30분경 4유도탄기지사령부 하청회사인 련합미국기술자회사 지배인 라이스는 회사경비원대기실에 나타나 쌍욕을 퍼붓고 리영화(33살)와 정기

섭(34살)이 자고있는 침대를 뒤집어엎어 리영화에게 심한 부상을 입혔다.

—6월 20일

◦ 14시 30분경 헌병대운전사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77번지에 사는 김영신(6살)어린이를 고의적으로 깔아 중상을 입혔다.

—6월 21일

◦ 14시 40분경 부산항 제3부두에 정박한 미국선박 《싸인포오드》호 선원 고오도페터는 생트집을 잡아 배안에서 작업하던 차동천(36살)에게 쌍욕을 퍼붓고 칼로 그의 옆구리를 찔러 치명상을 입혔다.

—6월 28일

◦ 1시 40분경 1기갑사단소속 미군 5명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 660번지에 사는 우춘환(46살)의 집에 돌을 던져 유리를 깨고 다시 선유리 창골에 있는 다리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문산극장 종업원 김세정(25살)을 발길로 차서 높이 15m되는 다리밑으로 떨어뜨려 심한 부상을 입혔다.

—7월 12일

◦ 17시경 서울시 서대문구 교북동 118번지 앞길에서 SA—7호 찦차를 몰고가던 8군 17포병중대소속 운전사가 서대문구 령천동 38번지에 사는 허완(6살)어린이를 고의적으로 깔아 중상을 입혔다.

—7월 25일

◦ 20시경 서울시내에 있는 유흥장 《워커힐》 2층에서 7사단소속 미군이 그곳 녀성종업원을 희롱하려다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중태에 빠뜨렸다.

—7월 27일

◦ 22시 30분경 1기갑사단 9련대소속 미군이 부대주변에서 파철을 줏던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에 사는 주민을 과녁삼아 총탄을 퍼부어 즉사시켰다.

—7월 30일

◦ 8시 30분경 충청남도 조치원에서 화물차를 미친듯이 몰고가던 미군야수가 길을 가던 안희애(녀자 18살)를 고의적으로 깔아 중상을 입혔다.

◦ 15시경 강릉비행장에서 오산비행장을 향해 차를 몰고 달리던 미군사고문단소속 반논은 강원도(남) 원성군 소초면 장양리에서 서있는 뻐스를 들이받아 파손시키고 진정희(60살), 리기영(16살)에게 중상을 입혔다.

—8월 7일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앞길에서 군용화물차를 몰고가던 8군소속 운전사가 앞을 지나던 뻐스를 오락삼아 들이받아 거기에 타고있던 김금순(녀자)을

비롯한 5명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8월 18일

◦ 화물자동차를 몰고 서울시내를 달리던 미제침략군 운전사가 하왕십리동 920번지 앞길에서 자전거를 탄 김상준(16살)소년을 고의적으로 깔아 치명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8월 23일

◦ 6시경 서울시 룡산구 한남동 앞길에서 화물자동차를 몰고가던 8군 DI수송대소속 미군병사가 자전거에 물고기를 싣고 가던 리재현(45살)을 심심풀이로 들이받아 그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8월 25일

◦ 괴뢰군을 끌어내여 전쟁연습에 광분하던 미제침략군은 주민지역을 향하여 총포탄을 마구 쏘게 함으로써 강원도(남) 철원군 갈말현 신철원리에 사는 주민 3명을 즉사시키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히였다.

－8월 31일

◦ 20시 30분경 전라북도 옥구군 대야면에서 마스터 외 2명의 미제침략군은 산월리에 사는 정분희(20살)를 화물차에 강제로 싣고 옥구군 성산면 근처에 있는 절로 끌고가서 륜간하였다.

－9월 2일

◦ 8시 5분경 서울시 영등포구 대방동 208번지 앞길에서 군용승용차를 몰고가던 3경비중대소속 운전사는 맞은켠에서 오던 뻐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승객 9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9월 7일

◦ 8시 20분경 서울시 영등포구 신도림동 325번지 앞길에서 502첩보부대소속 찝차운전사 안도수 도마스가 손수레를 끌고가던 주민을 고의적으로 깔아죽이고 다리우로 지나가던 구두닦이소년 리정정에게 중상을 입혔다.

－10월 6일

◦ 10시경 파주주둔 1기갑사단 8기갑련대 2대대 2중대 2소대소속 하사 호프맨이 부대로무자 황인덕(32살)에게 생트집을 걸어 도끼로 그의 얼굴을 찍어 10cm의 안면파렬상을 입혀 졸도케 하였다.

－10월 10일

◦ 새벽 경기도 문산에 둥지를 튼 미군보초병이 철조망옆을 지나가던 전재준(29살)을 군견훈련장으로 끌고가 개를 부추겨 온몸을 물어뜯게 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10월 14일

◦ 10시 17분경 전쟁연습소동에 날뛰던 공군소속 F—105전투기가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 학현리 윤리부락 논에 폭탄을 떨구어 논을 파괴하고 주변에 있는 안중국민학교와 농협 안중지서 등의 유리창을 모조리 깨버리고 10여가마니에 달하는 벼를 불태워버리였다.

—10월 25일

◦ 13시경 전라북도 익산군 함라면 심목리에서 일본 요꼬다주둔 공군사령부소속 6명의 야수들은 밭에서 일하던 권귀례(녀자 38살)를 목표삼아 총질을 하여 복부에 치명상을 입혔다.

—11월 4일

◦ 11시 40분경 부산에서 《에스 캄》지구 C. I. D대원 여러명은 미군항 검수원 조성에게 아무 리유없이 수갑을 채우고 끌고가 무진 매를 안기여 중상을 입혔다.

—11월 5일

◦ 0시 15분경 서울시 한강로 2가 30번지 룡산 정육정 앞길에서 508A. S. A. 소속 화물차운전사가 어린이를 업은 서길녀(녀자 54살)를 고의적으로 깔아 치명상을 입히고 강인숙(4살)을 그자리에서 즉사시켰다.

◦ 8시 30분경 304통신대 2등상사 헬리는 인천지구 공병대 종업원 박균배(56살) 등 4명에게 닭알을 훔쳤다는 터무니없는 루명을 씌우고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다.

—11월 7일

◦ 16시 50분경 성동구 암시동 앞길에서 군용승용차를 몰고가던 8군 통신대소속 1등병 흐터가 명일동 321번지에 사는 김구연(6살)과 김왕연(10살)형제를 고의적으로 깔아 동생은 즉사케 하고 형에게 중상을 입혔다.

—11월 8일

◦ 23시경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 오세리에서 공병대소속 2통신대소속 레더는 국행자(녀자)에게 희롱을 하다가 그가 항거한다고 하여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가하였다.

—11월 14일

◦ 12시경 7사단 127통신대대소속 미군이 군용승용차를 고속으로 몰고가다가 서울시 성북구 수유동 62번지 앞길에서 놀고있던 박말자(4살)어린이를 고의적으로 깔아 즉사케 하였다.

—11월 20일

◦ 17시경 전라북도 옥구군 옥산면 당북리 산림동 방축옆에서 오리사냥

을 하던 군산공군기지소속 1명이 련못가에서 놀고있던 신덕철(17살), 김성원(19살), 신한철(20살), 김권용(20살)을 사냥에 방해된다는 생트집을 걸어 사냥총으로 쏘아 전신에 심한 파렬상을 입혔다.

—11월 23일

◦ 18시 30분경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 418번지 앞길에서 화물차를 미친듯이 몰고가던 미군운전사가 앞선 뻐스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승객 6명에게 중경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12월 2일

◦ 17시 30분경 서울 한남동 13번지 앞길에서 화물차를 몰고가던 상사 오뎅이 길가던 서영복(38살 원효로 2가 40번지 거주)을 고의적으로 깔아 즉사시켰다.

◦ 18시경 서울시 룡산구 한남동 산 3번지 앞길에서 화물차를 몰고가던 상사 오렌은 맞은켠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리기만(35살)을 즉사시켰다.

—12월 6일

◦ 14시 30분경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창리에 주둔한 미군부대소속 휜스카 외 4명의 미군이 청주시내 북문로에 있는 《오비홀》에서 음식을 먹고 식사비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마구 때리고 달아났다.

—12월 8일

◦ 20시 20분경 인천—서울방면으로 화물차를 고속으로 몰고가던 미군운전사가 맞은켠에서 오던 3인용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운전사를 즉사케 한 후 달아났다.

—12월 19일

◦ 밤 병장 페티프 메일로는 서울시 후암동 264번지에 사는 변아무개(녀자 32살)가 자기의 추잡한 요구에 불응한다고 하여 그에게 끓는 물을 퍼부어 중화상을 입혔다.

—12월 21일

◦ 14시경 서울시 서대문구 교남동 62번지 앞길에서 대형화물차를 몰고가던 8군소속 미군병사가 집으로 가는 금화국민학교 고만식(8살)학생을 고의적으로 깔아죽이였다.

—12월 27일

◦ 10시 30분경 경기도 시흥군 안양북쪽에 있는 미제침략군기지 보초병 1등병 클레이 제트는 기지에서 일하던 박한규(32살)가 작업시간을 어겼다는 리유로 사냥총으로 그의 복부를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

◎ 미국 보스톤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강의한다는자가 많은 도자기를 훔쳐 미국에 가서 비싼 값으로 팔아먹었다.

1965년

—1월 13일

◦ 밤 168의무대소속 대위 조지 브라이어, 운전사 1등병 스트로이트 맥브라이드는 경기도 의정부시내 《아리랑》음식점에서 임신 6개월이 된 김수미(21살)를 찦차에 강제로 싣고 남방리 부대앞산에 끌고가 벌거벗긴 후 권총으로 위협하고 마구 때려 락태시켰으며 그후 자기의 죄행이 폭로되자 2월 13일 1시 30분경 또다시 그의 집에 기여들어 위생실에서 나오는 그의 입을 틀어막고 가위로 머리를 깎은 다음 어깨와 가슴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

—1월 17일

◦ 21시경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지산리에서 6314보급중대소속 3명의 미군이 지산리 820번지에 사는 김인상(52살)이 경영하는 상점에 뛰여들어 주인을 때린 후 상품과 비품들을 마구 들부셔 약 8만 5 000원의 손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1월 24일

◦ 19시 30분경 인천시 항동부두앞 700m 해상에서 군용선박을 배양석유회사소속 110t급 유조선 제2진행호의 옆으로 고속으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유조선을 침몰시키고 1 000개 도람통의 중유를 바다에 처넣는 손해를 입혔다.

—2월 7일

◦ 21시 50분경 소흑산도 북서방 20n·mile에서 미국상선이 어로작업중이던 려수부용수산회사소속 제13부용호(30t)를 들이받아 선원 10여명을 바다에 빠져 죽게 하였다.

—2월 13일

◦ 21시 30분경 찦차를 몰고 시내를 질주하던 508통신대소속 상등병 마트가 영등포구 시은동 65번지에 있는 점포를 들이받아 김천추(44살)를 중태에 빠뜨렸다.

—2월 20일

◦ 16시경 경기도 파주군에서 12련대 3중대소속 1등병 월리암은 파주군 파평면 눌로리에 사는 김련화(녀자 29살)의 집에 불을 놓아 가구, 옷류 등 50만원이상의 피해를 입혔다.

—2월 22일

◦ 19시경 상병 헤리 모로스가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에 사는 석아무개

(22살)를 릉욕하려다가 그가 반항하자 그를 무참히 때려 중태에 빠뜨렸다.

—3월 5일

◦ 오전 경기도 평택지구에 있는 첩보기관 C. I. D소속 중사 하버드가 차를 타고 돌아치다가 평택군 마두리에 사는 강아무개 외 1명에게 달려들어 쇠고랑을 채우고 폭행을 가했다.

—3월 28일

◦ 20시 40분경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법원리에서 1기갑사단소속 상등병 테리서, 1등병 아이세스더가 식당에 뛰여들어 행패를 부리다가 최루탄을 터뜨려 수라장을 만들어놓고 달아났다.

—3월 31일

◦ 22시 30분경 1기병사단 7련대소속 2명은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눌로리 도로에서 서울영 9037호 택시를 타고가던중 운전사 리상봉(26살)의 목을 눌러 실신케 한 다음 그를 차밖으로 던지고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4월 11일

◦ 20시 30분경 경상북도 왜관에 있는 44공병대소속 중사 윌리암이 왜관읍 석전동에 사는 김경옥(14살)소녀를 랍치하여 과수원으로 끌고가 목을 조르고 강간하였다.

—5월 1일

◦ 21시경 서울시 서대문구 순화동에서 미국인 죤슨은 서울영 4499호 택시를 타고가다가 료금을 요구하는 운전사 손진학(33살)을 마구 때리고 차까지 파괴하였으며 만행을 취재하는 기자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 밤 2명의 헌병들은 집으로 가는 인천시 부평동 276번지에 사는 송백기(36살)를 아무 리유없이 구타하여 머리 등에 심한 부상을 입히고 류치장에 처넣었다.

—5월 2일

◦ 14시 40분경 파주군 림진면 운천리 앞산에서 경비를 서던 1기갑사단 5련대 2대대 3중대소속 1등병 플레이지즈가 림진면 당동 2리에 사는 김미숙(24살)에게 달려들어 수욕을 채우려다 반항에 부딪치자 M—14소총으로 그의 이마를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

—5월 12일

◦ 10시 30분경 경기도 포천군에서 괴뢰군과 공중합동훈련에 광분하던 미제침략군 《F—105》 비행기조종사는 고의적으로 주민들에게 로케트탄을 퍼부어 일하던 리해영(23살)을 죽이고 리원수(25살), 박덕만(24살), 김홍선(24살) 등 3명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5월 15일

◦ 22시경 왜관주둔 헌병대소속 하사 카스텔로는 왜관읍 석전2동 산의1에 사는 김옥분(녀자 23살)에게 폭행을 가하고 집세간까지 파괴하였으며 다음날 11시경 다시 달려들어 누워있는 그를 때려 심한 부상을 입혔다.

◦ 304통신대대소속 미군병사가 경기도 평택군 송탄면에 사는 오미숙(녀자)에게 생트집을 걸면서 자기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마구 때려 얼굴에 심한 부상을 입혔다.

―5월 19일

◦ C. I. D. 소속 여러명의 미제침략군이 경상북도 왜관읍 석전동에 있는 한 구두방에 들어가 물건을 보관시키는것처럼 주인을 속이고 몇분후에 다시 그곳에 달려들어 주인에게 도적의 루명을 씌우고 라지오와 기타 물품을 강탈해갔다.

―5월 25일

◦ 23시 30분경 서울시 퇴계로 입구 수도녀자사범대학 부속중학교앞에서 8군 헌병사령부소속 디보슨이 고속으로 화물차를 몰아 서울영 372호 뻐스를 들이받아 운전사 김병래(35살) 외 승객 8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5월 27일

12시 30분경 1기갑사단 9련대 1수색대대 2중대에서 보초를 서고있던 미군야수가 부대주변을 지나가던 김수명(32살)에게 리유없이 총탄을 퍼부어 중상을 입혔다.

―5월 29일

◦ 22시 30분경 부평에 주둔한 8057부대소속 여러명의 미군은 부대주변에 있는 부평동 276번지에 사는 김재숙(녀자)의 집뜰안에 최루탄을 던져 이 집문을 파괴하고 같이 사는 주영옥(녀자 29살)의 어린애를 질식시켰으며 주변 주민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었다.

―5월 31일

◦ 7시 30분경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관산리 4무에서 1기갑사단소속 운전사가 화물차로 대성운수소속 경기영 3216호 뻐스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3m의 웅뎅이에 굴러뜨리고 승객 13명에게 중경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6월 16일

◦ 16시 20분경 경기도 시흥군과 서울시의 경계선에서 화물차를 고속으로 몰고 달리던 미제침략군 운전사가 마주 오는 경기영 922호 뻐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장세일(60살) 등 8명에게 중상을, 13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6월 25일

◦ 22시 40분경 7사단 헌병대소속 병장 프래븐, 하사 보일, 하사 말스코는 순찰중 죄없는 오지영(34살)에게 달려들어 때리였으며 이를 말리는 리중석(30살)을 권총으로 위협하여 오지영과 함께 헌병대에 끌고가 1시간 30분동안이나 뭇매질을 가하여 실신케 하였다.

－7월 4일

◦ 13시경 전라북도 옥구군 옥산면 사정리 앞길에서 군용화물차를 타고가던 44포병대 4유도탄대대소속 1등병 파슨스와 알리온은 지나가는 권옥환(27살)에게 고무올가미를 던져 목을 졸라맨 후 10m나 질질 끌고감으로써 그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7월 9일

◦ 22시 40분경 서울시 서대문구 돈암동 앞길에서 8군 보급창소속 운전사가 짚차로 김인덕(65살)을 고의적으로 깔아죽이였다.

－7월 12일

◦ 2시경 2포병사단 2중대 698교역처에 있는 5명의 미군은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동원리에 사는 리순혜(녀자 45살)의 집을 비롯한 여러 살림집에 뛰여들어 가산들을 들부시고 주민들을 때려눕히였다.

◦ 2시 30분경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파주리 2구 앞길에서 군용승용차를 타고가던 2헌병대소속 1명이 심심풀이로 길가는 하시명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달아났다.

－7월 14일

◦ 3시 35분경 2사단 39련대 3중대소속 보초병이 괴뢰군사병에게 고의적으로 총탄을 퍼부어 즉사시켰다.

－7월 15일

◦ 22시 30분경 304통신대 2중대소속 미킨스 외 3명의 미군은 남산공원 아래광장에서 중구 도동 2가에 사는 강리석에게 아무런 리유없이 칼부림을 하여 중태에 빠뜨렸다. 또한 지나가던 택시에 올라 운전사를 칼로 찌르고 차를 빼앗아타고 달아났다.

－8월 1일

◦ 23시경 서울시 룡산역 앞길에서 7명의 미제침략군은 길가는 녀성을 희롱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주민들에게 칼부림과 돌을 던져 박우섭(27살)을 비롯한 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8월 14일

◦ 22시경 K－6기지대 728헌병대소속 20여명의 미군야수들은 경기도 평

택군 팽성면 대사리 산지골에서 배순희(23살) 등 10여명의 녀성들을 2대의 찦차에 싣고 남산리 훈련장숲속에 끌고가 배순희, 박옥란(21살), 김경자(21살), 리은숙(22살), 김정애(21살)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집단구타한 후 손발을 비틀고 라체촬영까지 하였다.

－8월 17일

◦ 대전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 야수가 자동차를 몰고 평택방향으로 달리다가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동 큰길가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리경옥(녀자 25살)을 오락삼아 들이받아 죽이였다.

－8월 23일

◦ 충청남도 안산군 령인면 아산리에서 통신부대소속 운전사가 화물차를 미친듯이 몰고가다가 길가에서 놀고있던 박치영(3살)을 고의적으로 깔아 즉사케 하였다.

－8월 27일

◦ 23시 40분경 서울시 태평로 1가 《조선일보사》 앞길에서 공군소속 80756호 운전사 토라이스 로버트(35살)는 서울영 6798호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박명화(27살) 외 4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9월 4일

◦ 23시경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동에서 미제침략군 3명은 허을석(31살)에게 달려들어 마구 구타하였으며 나중에는 5m나 넘는 벼랑밑으로 떨구어 치명상을 입혔다.

－9월 5일

◦ 20시경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대릉리에서 미제침략군 3명은 그곳에서 사는 김희용(녀자 48살)에게 아무 까닭없이 집단구타하고 손목시계 1개를 강탈하고 달아났다.

◦ 《자유수호의용단》 고문 겸 케네디기념사업회 특별회원 존 피. 라이더(44살)는 한용복(36살)에게 66의무대안에 있는 비행장활주로용 철판 1 000장을 기증받아준다고 속여 그로부터 60만원을 절취하였으며 그리고 김포, 평택 등 비행장에 있는 철판도 같은 방법으로 넘겨주겠다고 속여 총 125만원을 사취하였다.

－9월 29일

◦ 14시 45분경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서정리 앞길에서 2사단 2의무대대소속 운전사가 길가던 리종상(51살)을 고의적으로 깔아죽이였다.

－10월 3일

19시 30분경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능답리에 있는 미제침략군 제2오

락장 앞길에서 병장 헤머톤이 이 마을에 사는 박해림(23살)에게 달려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반항하자 그를 때려죽이였다.

－10월 12일

◦ 23시경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앞길에서 55비행대소속 병장 로렌스는 길가던 서아무개(38살)를 찦차에서 강간한 후 라체로 길가에 내버리고 달아났다.

－10월 17일

◦ 18시경 강원도(남) 춘천지구에 있는 4유도탄부대소속 1등병 랜지가 춘천시 소양로에 사는 김영희(23살)의 집문을 들부시고 방안에 뛰여들어 그가 저들이 조직한 모임에 오지 않는다고 하여 그를 마당에 끌어내여 마구 때려 실신케 하였다.

－10월 19일

◦ 경기도 시흥군 안양에 주둔하고있는 병기대대 7중대소속 3등병 헤션은 안양읍 신안양리에서 이곳에 사는 강수남(녀자 23살)이 자기의 추잡한 행위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칼로 그의 배를 마구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10월 21일

◦ 22시경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 《캠프캐롤》미군부대앞에서 2명의 야수들은 그앞을 지나가는 리금선(녀자 23살)에게 달려들어 추잡한 행위를 하다가 그가 계속 반항하자 구두발로 걷어차 갈비뼈를 부러뜨리며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10월 22일

◦ 23시경 경상북도 대구시 봉덕동 2구에서 미제야수가 어린이를 업고가는 리은주(30살)에게 달려들어 추잡한 행위를 하다가 그가 자기 집으로 뛰여들어가자 쫓아가 그의 아버지의 목을 조르고 칼로 위협하며 30분간이나 마을로 끌고다니면서 《처녀, 색시》를 내놓으라고 고아대면서 아버지의 머리를 깎아버리고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을뿐아니라 말리는 그의 안해까지 칼로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10월 27일

◦ 23시경 서울시 룡산구 남영동 82번지 앞길에서 8군 특무대소속 월리암과 아피로베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김인수를 때려 머리에 타박상을 입혔고 파출소 형사 김정엽의 이발을 부러뜨리였다.

－10월 29일

◦ 10시 45분경 서울시 룡산구 한강로 1가 1123번지 앞길에서 2군단 포병사령부소속 운전사가 자전거를 타고가는 전용순(28살)을 오락삼아 들이받

아 즉사시켰다.

－11월 6일

◦ 19시경 미제침략군 병장이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장파리에서 김영희(22살)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우영숙(33살)의 옆구리를 구두발로 차서 중상을 입혔다.

◦ 24시경 2사단 23련대 3대대소속 하사 보카가 파주군 림진면 운천2리에 사는 김영자(22살)의 집에 뛰여들어 겁탈하려다가 항거에 부딪치자 그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히고 가구를 파괴하고 달아났다.

－11월 7일

◦ 18시 20분경 경기도 파주군 문산리에서 2사단 2대대소속 1등병 크리풀드 도브(18살), 2등병 크레난 테니스트(18살)는 경기영 3708호 택시를 타고 파주군 림진면 용주골 삼거리 앞길에 이르러 운전사 김영국(24살)의 목을 눌러 폭행을 가한 후 그를 차밖으로 내던지고 택시를 끌고 달아났다.

19시 35분경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에 있는 조창만의 집에 기여든 7사단 79포대 1등병 존슨이 김영애(21살)를 겁탈하려다가 반항에 부딪치자 그의 침대에 불을 질러 방안을 완전히 불태워버리였다.

◦ 22시 5분경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405번지에 있는 음식점에서 7사단 79포대소속 1등병 카미널은 맥주를 마시고 값을 요구하는 종업원 리호기(24살)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파렬상을 입혔다.

－11월 8일

17시 8분경 경기도 소사읍 앞길에서 인천으로 화물차를 몰고가던 미제침략군 운전사가 서울로 오던 서울영 1245호 뻐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7명에게 중상을, 16명에게 경상을 입혔다.

－11월 30일

◦ 19시 30분경 서울시 영등포구 동촌동 아동병원 앞길에서 김포쪽을 향해 대형화물차를 몰고가던 미제침략군 운전사는 김영태(45살)를 고의적으로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12월 8일

◦ 1시 30분경 7보병사단 32련대 2대대소속 4명의 보초병이 로무자 박석기(51살) 외 3명이 작업을 끝내고 나오는것을 도적으로 몰아 병실로 끌고가 5시간동안 가두어놓고 마구 때려 부상을 입혔다.

◦ 9시경 경기도 화성군 상공에서 전쟁연습에 광분하던 오산공군소속

비행사가 해변가에서 굴을 따던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에 사는 리영자(녀자 33살)를 목표삼아 그에게 폭탄을 퍼부어 즉사시켰다.

◦ 17시경 경기도 동두천에서 7사단 31련대소속 2등병 엘리스 페스는 동두천읍 동두천1리 205번지에서 신미경(녀자 23살)이 자기의 추잡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위와 식칼로 그를 위협하면서 머리를 깎은 다음 가산을 들부시고 달아났다.

1966년

－1월 15일

◦ 22시경 미제침략군 2명은 택시를 타고가다가 경기도 파주군 파주면 만성리 앞길에서 불의에 맥주병으로 운전사 한봉학(39살)을 때려눕혀 차밖으로 내던지고 차를 몰고 달아났다.

－2월 3일

◦ 22시 40분경 축항대 보병46중대소속 1등병 캔자드 등 3명은 경기도 인천시 인현동 27번지에 있는 음식점에서 먹다가 백영하(29살) 외 1명에게 달려들어 매질을 하였으며 부근에 있던 경기영 2421호 택시의 유리까지 깨버리였다.

－2월 4일

◦ 23시경 네이비스 죠세프 외 2명은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지산리에 있는 로봉호(44살)의 집에 달려들어 방에 있던 주송지(43살), 김남호(45살), 김원진(60살), 차재호(58살)에게 권총과 칼로 위협하면서 라이타, 장갑 등 1 400여원어치의 돈과 물건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2월 5일

◦ 오전 2사단 지원공병대대 대대장 중좌 샌더르와 헌병참모부 차장 소좌 렉스포드의 지휘하에 완전무장한 32명의 미군야수들은 대대정문앞에서 부당한 해고를 반대하여 파업에 나선 로무자 800여명에게 최루탄을 발사하고 총창으로 찔러 최만복(31살), 박병모(54살), 조풍행, 김진희(38살), 김두윤(29살), 조재훈(35살), 리용완(30살), 리수근 등에게 중상을 입혔다.

－2월 13일

◦ 미제침략군 직승기순찰대는 경기도 파주군 림진강부근에서 파철을 줏고있던 파주군 림진면 사목리에 사는 7명의 주민들에게 마구 총질하여 강아무개(26살)의 오른쪽다리에 관통상을 입혔다.

－2월 15일

◦ 22시 30분경 702병기대소속 1등병 윌리암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

풍리에 사는 리동수의 집에 기여들어 창문과 벽 지어 구멍란까지 들부심으로써 5 000원이상의 피해를 입혔으며 그후 파주고양기자단 사무실에 뛰여들어 갖은 망동을 부려 3 000원이상의 손해를 입혔다.

◦ 강원도(남) 양양군 속초부근에 둥지를 튼 통신대소속 미군이 속초시내 등대맥주홀에서 술을 마시고 기물들을 들부시는 행패를 부리고 달아났다.

—2월 18일

◦ 밤 《캠프캐롤》본부중대소속 하사 윌슨이 경상북도 왜관읍 석전2동에서 이곳에 사는 정남옥(30살)을 리유없이 목을 조른 끝에 200m가량 끌고가서 마구 때려 중태에 빠뜨렸다.

—2월 27일

◦ 22시경 2사단 23련대 1대대 1중대소속 미군야수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운천리에서 아무 까닭없이 2채의 초가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2월 28일

◦ 9시경 KI—6험프레스관구 사령부소속 운전사 병장 존이 경기도 평택군 평택리 도로주변에 있는 2채의 살림집을 자동차로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파괴하였다.

—3월 1일

◦ 21시 10분경 728헌병대소속 찦차운전사가 경기도 부평역전에서 《동아일보》 부평주재 기자 정연철을 고의적으로 깔아 치명상을 입혔다.

—3월 2일

◦ 21시 30분경 경상남도 부산시 부산 제3부두 미제침략군 항만수송대소속 상사 레인쓰는 좌천동 274번지에 사는 리아무개(17살) 구두닦이소녀를 외딴골목으로 끌고가 강간하고 달아났다.

—3월 3일

◦ 19시경 36공병단 512공병대소속 운전사가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뻐스정류소에서 뻐스를 기다리던 박정연(17살)소년을 화물자동차로 깔아 즉사케 하였다.

◦ 19시 30분경 7사단 2대대 10기갑중대소속 1등병 칼 리쳐드, 2등병 니첼 소렌슨이 서울시 중구 남산동 륙교밑에서 지나가는 승용차를 잡아타고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 삼정리 앞길에서 차를 세우고 운전사 송주용(36살)에게 권총으로 위협하여 현금 2 300원을 강탈하였다. 그리고 운전사를 차밖으로 내쫓고 저들끼리 차를 몰고가다가 논두렁에 처박았다. 이자들은 다시 서울방향으로 가는 경기영 52호 택시를 잡아타고가다가 22시경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2가 도림교 옆길에서 운전사 정석정(26살)과 그의 동무 리종오(33살)를 위

협하여 현금 6 200원을 강탈하였다. 이자들은 다음날에도 서울영 908호 택시를 타고 수원으로 가던중 운전사 조만수(37살)를 위협하여 현금 500원을 강탈하였다.

◦ 22시 50분경 강원도(남) 춘성군 신동면에 주둔한 3명의 미군은 강원영 170호 택시를 타고가다가 료금을 요구하는 운전사 김철원(36살)을 때려눕히고 달아났다. 이때 사건현장을 지나가던 2명의 미군은 중태에 빠져 쓰러져있는 운전사에게서 현금 600원을 털어가지고 달아났다.

－3월 14일

◦ 8시 30분경 K－55오산공군기지소속 야수가 기지 제3호건물부근 걸음길로 지나가는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최현기(39살)를 무턱대고 총으로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

－3월 20일

◦ 12시 40분경 2사단 9련대 2대대 3중대소속 병장 바니초가 중대철조망밖에서 깡통을 줏고있던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웅당리에 사는 림숙하(남자 17살)를 권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4월 3일

◦ 오후 76땅크부대 2대대 2중대소속 1등병 패기가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웅담리에 사는 변아무개(22살)의 집에 아무 까닭없이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4월 12일

◦ 새벽 2등병 모스터바는 강춘식(40살)의 집에 몰래 기여들어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칼로 집주인을 위협하면서 집안물건들을 파괴하고 이불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4월 22일

◦ 낮 2사단 17대대 3중대소속 미군하사가 로무자 김아무개를 《도적》으로 몰아 감금해놓고 몽둥이로 때려 중상을 입혔다.

－4월 30일

◦ 22시 30분경 경기도 부평에 주둔하고있는 미제침략군 보급창 1중대소속 1등병 등 4명의 미군은 거리를 싸다니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김순복(남자)에게 달려들어 칼로 그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찔러 중태에 빠뜨리고 달아났다.

－5월 11일

◦ 11시 10분경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536번지 앞길에서 오산으로부터 안양쪽으로 차를 몰고오던 38미싸일려단소속 상등병 디(23살)가 길옆에 피해 서있던 김아무개(14살) 소년을 고의적으로 깔아죽이였다.

－5월 19일

◦ 22시 30분경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에서 공군야전병원소속 1등병 제임스 실버스트(19살) 외 5명의 미군은 길가던 홍아무개를 무턱대고 때리였으며 이 광경을 목격한 주민들이 항의하자 장성규(18살)학생 등 8명에게 매질을 하여 중경상을 입혔다.

－5월 23일

◦ 경기도 오산에 둥지를 튼 공군수송대소속 병장 데이비스 조셉(37살) 외 7명의 미군이 경기도 송탄면 지산리 유원지에서 휴식하는 손경영(17살), 강상호(21살) 등 3명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다.

－5월 26일

◦ 23시 30분경 경기도 부평에 둥지를 튼 《애스컴》사령부 앞길에서 미군병사가 종업원 정순자를 희롱하려다가 이에 불응하자 면도날로 머리를 찔러 중상을 입혔다.

－6월 1일

◦ 14시 30분경 미국화물선 《쟈판메일》호 선원 촌죠르락(64살)이 경상남도 부산시 초량동에서 아무 리유없이 손칼로 정태조(32살)의 가슴을 찔러 중태에 빠뜨린 다음 달아나다가 손방우(31살)가 따라가자 그의 옆구리를 찔러 중상을 입혔다.

－6월 15일

◦ 15시경 경상북도 김천시 다수동 앞길에서 인천에 있는 원유창소속 I. P. D. 본부 45호 화물차운전사가 그곳을 지나가던 60살가량 되는 로인(녀자)을 고의적으로 깔아 치명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6월 29일

◦ 12시경 7사단 31련대 1대대소속 상등병 소프린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에서 철조망주변 걸음길로 지나가던 동두천읍에 사는 강철훈을 권총으로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

－7월 5일

◦ 경상북도 대구시 칠성동 앞길을 미친듯이 달리던 화물차운전사 윌리암이 길옆으로 지나가는 채아무개를 고의적으로 깔아죽이였다.

－7월 17일

◦ 18시경 군산비행장소속 중사 로벨말 카벳트와 챨스 데이비스, 하사 칼치스, 이르이스 등은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에서 박정숙(22살), 송금자(30살), 권미자(30살)녀성들을 릉욕하려다가 거절당하자 그들에게 폭행을 가

하여 중상을 입혔다.

－8월 12일

◦ 23시경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에서 공군 상등병 그린이 김련실을 강간하려다가 항거에 부딪치게 되자 그에게 폭행을 가하고 2m높이의 계단에서 굴러떨어뜨려 중태에 빠뜨렸다.

－8월 25일

◦ 15시 30분경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에서 화물차를 몰고가던 83병기창소속 상등병 로스가 자전거를 타고 서울쪽으로 가는 정우조(38살)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즉사케 하였다.

－8월 28일

◦ 22시 10분경 경상남도 부산시 동구 범일5동에 주둔한 142보급창안에서 여러명의 미군이 심심풀이로 주변민가에 돌을 던져 리봉구(33살) 등 3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9월 3일

◦ 오전 88공병대소속 운전사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동업회사》 앞길에서 권승헌(36살)을 고의적으로 깔아죽이였다.

－9월 8일

◦ 21시경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 19번지에서 공군대위 로버트 래임버즈가 김남순에게 달려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밖으로 끌고나와 가슴과 배를 구두발로 마구 차서 중태에 빠뜨렸다.

－9월 15일

◦ 22시 30분경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문산리에 주둔하고있는 2사단 9련대 훈련장에서 군견훈련을 주던 미군야수가 그곳에 사는 윤호일(21살)에게 개를 추겨 물어뜯게 하였으며 아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아버지 윤기우(52살)에게도 개를 추겨 중상을 입혔다.

－9월 23일

◦ 10시경 3유도탄사령부소속 화물차운전사가 강원도(남)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도로주변에서 놀고있던 김아무개 소년을 고의적으로 깔아 치명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소년은 그 이튿날에 끝내 숨졌다.

－10월 29일

11시 50분경 304통신대대소속 86호 화물차운전사 상등병 로날드 더블유. 호픈(22살)은 강원도(남) 춘성군 동산면 원창리 새슬막고개에서 결혼식차를 희롱거리로 들이받아 신랑 리대섭(31살), 신부 박춘자(23살), 신부들

놀이 리정자(22살) 등 3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신부의 사촌동생 리창목을 죽이였다.

-10월 30일

◦ 16시경 찦차를 몰고가던 미제야수는 서울시 성북부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는 홍아무개(17살) 학생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11월 3일

◦ 13시 20분경 공병수송대소속 화물차운전사가 경기도 수원시 남수동 매향교에서 놀고있던 리의성(3살)어린이를 장난삼아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11월 19일

◦ 6시 서울시 성동구 문화동 3거리에서 8군 통근뻐스를 몰고가던 미군운전사가 목판을 이고 걸음길로 가는 두부장사로인(녀자)을 고의적으로 깔아 즉사시켰다.

-11월 21일

◦ 5시 30분경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에 주둔한 상등병 그레이 하우스(22살)가 부대앞으로 지나가는 이담면 보산리에 사는 조현식(48살)을 아무 리유없이 곤봉으로 때려 중상을 입혔다.

◦ 21시경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에 주둔한 상등병 톰스 하머가 부대정문앞길에서 무턱대고 칼로 전선매(녀자 25살)의 배를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12월 24일

◦ 18시 30분경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 앞길에서 미제살인귀는 땅크를 몰고나와 파주군 천현면 법원리쪽에서 림진면 문산쪽으로 달리던 경기영 4251호 택시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1967년

-2월 1일

◦ 23시 30분경 8군 헌병대소속 순찰찦차를 몰고가던 운전사가 경상북도 대구시 대봉동 1구에 사는 리호영(31살)을 고의적으로 깔아 치명상을 입혔다.

-2월 9일

◦ 15시 50분경 화물차를 몰고가던 운전사가 전라북도 군산시 평화동 앞길에서 박재봉(40살)의 맏아들 박석진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다.

◦ 23시경 2사단 23련대 3대대소속 병장 헥테아스는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 선화양복점에 불법침입하여 김정자(23살)를 릉욕하려다가 그가 항

거하자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2월 10일

◦ 5시 30분경 2사단 통신대대 지휘중대소속 1등병 카라오크(26살)는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에서 김현숙(22살)을 희롱하려다가 거절당하자 쇠뭉치로 그의 온몸을 마구 때려 치명상을 입혔다.

◦ 24시경 미제침략군 야수가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 계릉2동 151번지 앞길에서 송명자를 롱락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화풀이로 얼굴을 마구 때려 심한 부상을 입혔다.

—2월 18일

◦ 21시 40분경 하야리야부대 통신 1중대소속 13명의 미제침략군은 부산시내 초량동 서울빠에서 맥주를 마신 후 식당종업원 리영길을 밖으로 끌고나가 통졸임통으로 머리를 내리쳐 중상을 입혔다.

—2월 20일

◦ 밤 공군 6314지역 중대소속 하사 빌리 콕스는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에 있는 강원구의 집에 불을 질러 몽땅 불타게 하였다.

◦ 밤 하사 콕스놈은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에 사는 엄정순의 집에 불을 질러 21만 3 700여원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달아나다가 지나가는 승용차를 잡아타고 료금을 요구하는 운전사 김광복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월 21일

◦ 19시 30분경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동두천리에 둥지를 틀고있는 7사단 73땅크대대소속 상등병 칼슌(23살)은 이곳에 사는 안성희(27살)를 강간하려다가 거절당하자 칼로 그의 몸을 찔러 치명상을 입혔다.

◦ 22시 30분경 8군 27부대소속 상등병 헬리트(20살)가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 거리에서 리정희(녀자 36살)에게 폭행을 가하여 심한 부상을 입혔다.

—2월 22일

◦ 22시 40분경 8군 835병기련대소속 1등병 찰스가 서울시 룡산구 한강로 1가 13번지에 사는 리아무개(녀자 21살)의 집에 뛰여들어 칼로 위협하고 돈을 강탈하였으며 그와 같이 온 로스는 옆집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현금 1 000원을 강탈하였다.

—2월 23일

◦ 21시 30분경 7사단소속 상등병 윌리암(22살) 외 2명의 미군은 경기도 동두천읍에서 김희숙(21살)을 희롱하면서 아무 리유없이 때려 중태에 빠뜨렸다.

◦ 23시 20분경 공군보급중대소속 상사 헤사챠월은 전라북도 군산시 영

화동 19번지에 사는 김수정(37살)의 집에 뛰여들어 그를 릉욕하려다가 거절당하자 출입문, 집세간, 유리창 등을 짓부시고 달아났다.

－2월 24일

◦ 21시 30분경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동두천리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 4명은 이곳에 있는 럭키상회에 침입하여 심심풀이로 유리창 등을 까부시고 이를 만류하는 집주인 리유근(28살) 등 3명에게 구타를 하여 얼굴과 팔에 중상을 입혔다.

◎ 15시 30분경 경기도 련천에서 전쟁연습에 돌아치던 미제침략군이 련천군 관인면 부곡리에서 파철을 줏고있던 10여명의 부곡리주민들을 목표로 삼아 18in 박격포사격을 가하여 김정숙(녀자 32살), 박정수(남자 12살) 등 8명을 현장에서 죽이고 최만복(51살) 등 2명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3월 5일

◦ 23시경 702대대소속 병장 아담스 세미가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 5번지에 사는 윤순임의 집에 뛰여들어 식모 김정임(14살)소녀를 강간하고 달아났다.

－3월 6일

◦ 7시 30분경 대형화물차운전사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오류교앞에서 경기영 259호 뻐스를 심심풀이로 들이받아 운전사 외 10여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 22시 10분경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 미제침략군 제4휴양소앞에서 3명의 미군은 저들이 타고온 경기영 37호 뻐스운전사 김종길(37살)이 료금을 요구하자 그를 휴양소안에 끌고들어가 집단구타를 하여 중상을 입혔다.

－3월 12일

◦ 22시경 71포병단 2미싸일대대 1포대소속 2등병 토미엘 비트순 등 6명의 미군야수들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에 사는 김영애(21살)를 강제로 병실안으로 끌고들어가 륜간하고 옷을 벗긴채 부대밖으로 끌고나와 뭇매를 안기였다.

－3월 14일

◦ 21시경 618의무중대소속 찦차운전사 상등병 헨리(31살)는 서울시 성동구 신양동 92번지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는 김정남(31살)을 고의적으로 깔아 중상을 입혔다.

◦ 22시 30분경 83경기대대소속 1등병 보나노 등 3명의 미군야수들은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180번지 앞길에서 조효용의 처를 희롱하려다가 남편이 격분하여 반항하자 그에게 뭇매를 안겨 중상을 입혔다.

-3월 17일

◦ 22시 30분경 기갑련대 땅크병은 부대주변에서 탄피를 줏고있던 경기도 련천군 련천면 현가리에서 사는 김재연(13살)을 권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 23시 30분경 하야리야부대 142헌병중대소속 1등병 벨빌이 경상남도 부산시 범일4동 63번지에서 사는 김이분(27살)을 릉욕하려다가 거절당하자 그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명상을 입혔다.

-3월 21일

◦ 23시 20분경 미제침략군 3명은 경상북도 대구시 봉덕동 649번지 앞길을 지나가던 정진호(59살), 정택원(58살), 정연호(62살)들에게 달려들어 구타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정진호가 중태에 빠졌다. 그리고 부근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 김영숙(녀자 24살)을 때려눕혔다.

◦ 8군 《캠프캐롤》 2중대소속 1등병 윌리암 삭스(22살)가 경상북도 칠곡에서 녀성을 랍치감금하여놓고 수욕을 채우려다 반항하자 깨진 맥주병으로 그의 목을 찔러 중상을 입혔다.

-3월 25일

◦ 14시 30분경 7사단 13공병대소속 화물차운전사 1등병 스빠크는 경기도 포천군 청산면 소성리 앞길에서 손수레를 끌고가던 차재원(29살)과 리아무개(남자 32살)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즉사시켰다.

-4월 1일

◦ 19시경 병장 앨버트 씨. 리틀패이지는 전라북도 김제군 황산면 황산리 새마을부락에 사는 장교상의 집앞에서 김종업(35살)에게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다.

-4월 2일

◦ 20시경 8군사령부소속 운전사 하사 케네디가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 삼각지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가던 남순길(18살)을 고의적으로 깔아 중태에 빠뜨렸다.

◦ 20시 10분경 8군 대구지구 장거리통신단소속 2등병 윌리피 섹톤(21살), 1등병 제리엔 워시(20살)는 경상북도 대구시 봉덕동 1구에 있는 식당을 들부시고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준 리정자(50살)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명상을 입혔다.

-4월 7일

◦ 14시경 196통신대소속 하사 피첼이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316번지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리창영(36살)을 찝차로 깔아 치명상을 입혔다.

－4월 14일

◦ 15시 20분경 화물차운전사 크라머디넬이 오종동에서 대전으로 미친듯이 차를 몰고오다가 달구지를 들이받아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4월 16일

◦ 13시 50분경 충청남도 당진에 둥지를 틀고있는 6대대 4중대 DK－44호 운전사 상등병 웰로일(22살)은 경기도 평택에서 온양으로 차를 몰고오다가 충청남도 아산군 염치면에 사는 박정규(8살)소년을 심심풀이로 깔아죽이고 다른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 경기도 평택에 도사리고있는 28헌병대대 2중대 31호 찦차운전사 데비러스톤(23살)이 충청남도 천안군 성환면 매주리 앞길에서 정재우(6살)소년을 고의적으로 깔아 왼쪽다리에 중상을 입혔다.

－4월 29일

◦ 12시 10분경 C. O. B. 34소속 상등병 위스(21살)가 서울시 룡산구 후암동 앞길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조일행(47살)의 아들 조성일(25살)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부모들에게도 폭행을 가하였다.

◦ 20시 30분경 2사단 비행대대본부소속 상등병 존슨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283번지에 사는 최정자(30살), 김종원(50살)에게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다.

－5월 1일

◦ 22시 30분경 8군 공병대소속 1384호 찦차운전사가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209번지 앞길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가던 김경영(43살)을 불의에 깔아 중상을 입혔다.

－5월 4일

◦ 22시 30분경 2사단소속 찦차운전사 볼스틸이 서울 중구 도동 138번지 앞길에서 오철환(22살)을 고의적으로 깔아 중상을 입혔다.

－5월 13일

◦ 18시 30분경 8군소속 찦차운전사가 서울시 영등포구 당상동 316번지 거리모퉁이에서 길가던 정주환(31살)을 오락삼아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 22시 30분경 7사단소속 40여명의 미군은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동두천 보산리 앞길에서 동네녀인들을 희롱하는것을 말린다고 하여 부락주민 40여명을 집단구타하여 그중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6월 18일

◦ 저녁 555경비탄약중대소속 상등병 터프 에이. 제임스가 충청남도 천

원군 성환면 수향리에 사는 려덕우(녀자)의 집에 기여들어 그를 릉욕하려다가 거절당하자 그에게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6월 23일

◦ 병장 로버트 사이드는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대릉리에 있는 김영자의 집에 침입하여 옷을 비롯한 4 000여원의 물품을 강탈해갔다.

－7월 2일

◦ 1군단소속 하사 고구라 네세가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벽제리앞 세거리에서 대낮에 군용화물차를 미친듯이 몰고가다가 리룡복의 집을 들이받아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45만원에 해당한 손해를 입혔다.

－7월 13일

◦ 판문점순찰대 1등병 존이 찝차를 몰고 마구 달리다가 영등포구 동천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박종몽(30살)을 고의적으로 깔아 중태에 빠뜨리고 달아났다.

－7월 23일

◦ 전라북도 옥주군 대야면에서 군용화물차를 타고가던 미제침략군은 길가는 사람들에게 나무토막을 마구 던져 리덕선(59살)의 머리에 파렬상을 입혀 죽이였다.

－7월 30일

◦ 충청북도 진천에 둥지를 틀고있는 유도탄대대소속 1등병 패키를 비롯한 13명의 미군은 음식점에 뛰여들어 술을 내라고 행패를 부리면서 라지오, 고성기, 책상 등 비품들과 가구들을 닥치는대로 들부시였으며 이를 제지하려는 진정수와 종업원 리선혜, 리정자에게 뭇매를 안겨 심한 부상을 입혔다.

－8월 16일

◦ 밤 8군소속 미군야수가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에 사는 박경숙, 박현숙녀성들을 권총으로 위협하여 남산으로 끌고가 릉욕하였다.

－8월 21일

◦ 밤 병장 닐피가 대구시 봉덕동 1구에 사는 윤미숙(녀자 23살)의 집에 침입하여 돈과 물건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사정없이 때려 중상을 입히고 집가산들을 들부시고 달아났다.

－9월 3일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아리랑클럽에서 3명의 미제침략군은 강명순(20살)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린 후 돈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9월 11일

◦ 서울시 룡산구 한남동에 둥지를 틀고있는 30병기중대소속 상등병 레이몬드 벨라스키즈와 2등병 월리페이지는 윤정숙(22살)을 륜간하고 심한 상처까지 입혔다.

－9월 15일

◦ 2공군 2수송대소속 1등병 그린이 경기도 인천시 부평동에 사는 박종구(32살)가 가져간 돈을 요구한다고 하여 20여명의 야수들을 끌고와 칼로 그의 배를 찔러 중태에 빠뜨렸으며 이를 말리는 주민 3명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 8군 76공병대대 2중대소속 중위 로날드 더블유. 라일(30살)은 리상렬로부터 25만 4 000원의 빚을 지고도 그것을 물지 않고 미국으로 도망치다가 비행장에서 리상렬에게 잡히게 되자 2층 대합실에서 그를 내리던져 오른쪽다리를 부러뜨렸다.

◦ 8군 본부중대소속 로버트 레커니와 제임스, 8군 38보충중대소속 죠셉은 8군사령부 정문앞길에서 저들이 타고온 택시운전사 배중환(29살)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마구 때려 중태에 빠뜨리고 달아났다.

－9월 16일

◦ 2사단 건설청부업자 엔디스(34살)가 서울시 중구 회령동 3가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권총으로 동덕녀자대학 1학년 최정순(20살)학생에게 란사하여 중상을 입혔으며 음식점에 뛰여들어 술을 내라고 고아대면서 총질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9월 18일

◦ 서울시 성동구 보진동 앞길에서 8군 65의무단소속 스티븐과 레이몬드가 장대규(34살)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이를 말리는 최은자(녀자 25살)에게 달려들어 목을 누르고 발로 차서 중상을 입혔다.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동 앞길에서 《캠프캐롤》소속 12～13명의 미군은 고등학교학생 유영수(19살)를 길가에 붙잡아놓고 맥주병과 칼로 마구 때리고 찔러 치명상을 입혔다.

－10월 5일

◦ 55병기중대소속 상등병 제임스 이켈은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에 있는 오세용(녀자)의 집에 뛰여들어 그를 희롱하려다가 반항하자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10월 12일

◦ 8군 서울기지사령부 69수송중대소속 1등병 융제즈가 경기도 시흥군 의왕면 왕곡리 앞길에서 길가던 김상순(녀자 46살)과 업고있던 어린이를 자동

차로 깔아죽이였다.

—10월 18일

◦ 2명의 미제침략군은 서울 룡산구 룡산동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남산 팔각정까지 가서 빈 맥주병으로 운전사 안재호(27살)의 이마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후 달아났다.

—10월 21일

◦ 1군단사령부소속 병장 샤무엘 유니스는 경기도 포천군 청산면 백의리에서 송지룡을 겁탈하고 흔적을 없앨 목적으로 그의 목을 조르고 나중에는 방에 불까지 질러놓고 달아났다.

—11월 1일

◦ 146의무대소속 상등병 엘만 제이. 프랭크가 뻐스를 몰고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앞길을 달리다가 뒤에서 오던 택시가 앞질러간다고 하여 차앞을 가로막고 쌍욕을 퍼부으면서 차유리를 깨고 운전사 리윤세(29살)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11월 5일

◦ 오전 7사단 31련대 2대대 본부중대소속 1등병 유진 테일러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에 사는 김춘자(21살)의 집에 뛰여들어 겁탈하려다가 반항에 부딪치게 되자 임신 4개월인 그를 벌거벗기고 목을 졸라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 미제침략군이 비무장지대안의 수풀때문에 북쪽을 감시할수 없다고 하면서 시험적으로 고엽제를 살포하였다.(미제는 1960년대말부터 고엽제를 사용하였다.)

1968년

—1월 1일

◦ 2사단 23련대 3대대 4중대소속 하사 데이비드 호만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 앞길에서 부락주민들을 마구 때리였으며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고 운전사 김기영을 차밖으로 밀어던지였다. 그리고 차를 미친듯이 몰아 윤성환을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1월 19일

◦ 8군 304통신대 248통신중대소속 하사 웨버 패드릭 외 7명의 미군은 서울시 룡산구 룡산동에서 민인순(11살)어린이가 지나가는것을 보고 저들이 세우고있던 전주대를 고의적으로 넘어뜨려 치명상을 입혔다.

—2월 1일

◦ 군산비행장소속 병장 보나드가 리발소에 고용된 김금자(21살)가 위

생실에 들어가자 그를 쫓아들어가 강간하였다. 이자는 2월 13일에는 리발소 종업원 김금녀(19살)를, 20일에는 김정자(24살)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강간하였다.

－2월 3일

◦ 8군 부평보급기지창 공병대소속 윈프레드 에취. 퍼키슨은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에서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정금숙을 강간하려고 하다가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리순근을 쏘아 왼쪽다리에 관통상을 입혔다.

－2월 9일

◦ 오후 7헌병대소속 상등병 존 브르스가 경기도 인천시 자안동 앞길에서 간석동에 사는 신정구를 승용차로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2월 11일

◦ 새벽 대구기지사령부소속 2등병 윌리암스는 경상북도 대구시 봉덕동에 있는 앞산려관에 침입하여 방문과 유리창을 들부시고 가구들을 파괴하였다.

－2월 17일

◦ 58병기중대소속 10여명의 미군은 서울시 영등포구 시흥동에서 주민들에게 달려들어 때리였으며 영화관에 뛰여들어 극장주인 림서재에게 매질을 하고 영화상영을 중단시켰다. 이자들은 또다시 시흥동 115번지에 있는 맥주집에 뛰여들어 술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면서 맥주병과 의자로 종업원 우춘기와 전대진에게 뭇매질을 하여 치명상을 입히고 유리창과 가구들을 닥치는대로 들부시고 이웃극장에까지 들어가 유리창을 까부시고 극장주인 김철수를 마구 때려 심한 부상을 입혔다.

－2월 18일

◦ 오후 609탄약중대소속 병장 쟈니 죤슨은 부산시 동래구 중동에서 김아무개(27살)에게 달려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반항에 부딪치자 그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왼팔을 꺾어놓는 등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2월 21일

◦ 13시경 K－6802공병대대소속 미군이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남산리에서 전쟁연습을 벌려놓고 어린이들을 과녁삼아 총탄을 마구 퍼부어 임우창의 오른쪽눈과 유영극의 배에 중상을 입혔다.

－2월 22일

◦ 상등병 위렉스가 경기도 인천시 북구 부평동에 있는 김영림의 집에 달려들어 집주인을 때려눕히고 돈과 물품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2월 26일

◦ 7사단 본부중대소속 상등병 챨스 에프. 쉰돌프가 경기도 양주군 동두

천읍에 있는 리병국의 집에 수류탄을 던져 집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2월 28일

◦ 새벽 8군 19군수지원사령부 본부중대소속 상등병 스몰우드는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에 사는 임순희(22살)를 강간하려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벌거벗기고 목을 졸라 죽인 다음 시체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불을 질러놓고 달아났다.

—3월 3일

◦ 오후 7사단 헌병대소속 상등병 텐다 로만은 군용차로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상연2리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는 김성수(20살)를 들이받아 즉사시켰다.

—3월 9일

◦ 저녁 경기도 파주군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군야수들은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에 사는 채길자(23살)를 강제로 끌어다 릉욕하려다가 항거에 부딪치자 그를 무참히 살해한 다음 시체를 2사단 72땅크 1대대 정문검문소앞에 내버리였다.

—3월 23일

◦ 8시 45분경 상사 데일 보비가 전라북도 정읍군 태인면 래성리 앞길에서 미친듯이 차를 몰고가다가 집앞에서 놀고있는 정오창(4살)어린이를 무참히 깔아죽이였다.

—3월 24일

◦ 17시 20분경 8군 9지원단 본부중대소속 병장 브라운 매리스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도림동 앞길에서 영등포구 구로동에 사는 홍원무(14살)소년을 찦차로 깔아죽이였다.

—3월 28일

◦ 7사단 2대대 2중대소속 2등병 마델은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에서 부대로무자 김동식을 아무 리유없이 때려 이발 3대를 부러뜨리고 혀를 잘라내였다.

—3월 29일

◦ 2사단 지원공병대소속 2등병 칸디오는 부대로무자 황호신에게 권총을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

—3월 30일

◦ 군산공군기지소속 상등병 모이드 이짐스가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에 사는 임신부 류아무개를 릉욕하려다가 반항에 부딪치게 되자 그를 미친듯이

때려 중태에 빠뜨렸다.

—4월 1일

◦ 8군 19지원단소속 상등병 리챠드 크레이그는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의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김명자(녀자)의 옷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4월 3일

◦ 오후 2사단 2수송대대소속 2등병 앤더슨은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관산리 앞길에서 뻐스에서 내리는 녀성을 군용차로 들이받아 즉사시켰다.

—4월 7일

◦ 장거리통신대대소속 병장 슈틱 외 5명의 야수들은 대전시 중동에 있는 한 식당에 뛰여들어 이미 식당에 들어와있던 5명의 미군과 함께 식사를 하는 리원길과 백채일에게 집단구타하여 심한 부상을 입혔다.

—4월 8일

◦ 7사단 포사령부소속 1등병 윌리암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에 사는 김현자를 롱락하려다가 거절당하자 그가 집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있다가 칼로 목과 가슴을 마구 찔러 치명상을 입혔다.

—4월 13일

◦ 하야리야부대 부산기지소속 상등병 마샬 존알 등 3명의 미군은 부산시 구포동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리진우를 아무 리유없이 자전거를 탄채로 때려 심한 부상을 입혔다.

◦ 2등병 디트언이 대형자동차를 몰고가다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에 있는 미장원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완전히 파괴하고 그 옆집도 파괴하였다.

◦ 44포병대소속 병장 브라운 등 3명의 야수들은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읍 료암리에서 민가에 뛰여들어 가장집물들을 들부셨으며 이를 말리는 최정순, 리경순 등 마을사람들을 마구 때려 온몸에 타박상을 입혔다.

—4월 24일

◦ 오후 하야리야부대 헌병들은 부산시 명보극장 앞길에서 부산시 가야동에 사는 최원박(11살)소년을 미친듯이 몰고가던 찦차로 깔아 치명상을 입혔다.

—4월 26일

◦ 밤 7사단 31보병련대 1대대소속 2등병 리챠드 스피드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에서 해산한지 10일밖에 안되는 정숙희를 겁탈하려다가 거절당하자 그의 집에 불을 질러놓고 달아났다. 이로 인하여 12세대의 살림집이 불타고 100여만원의 피해가 났으며 정세영(8살)어린이가 불에 타죽었다.

－5월 5일

◦ 오후 76대대소속 야수들은 경기도 인천시 간석동 앞길에서 인천시 도화동에 사는 강은숙(11살)소녀를 군용차로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 오후 1군단 포병대소속 병장 미첼 찰스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는 지봉근(22살)을 찦차로 깔아 즉사시켰다.

－5월 8일

◦ 2사단소속 3명의 야수들은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마산리 앞길에서 김학만을 아무 까닭없이 붙잡아놓고 칼과 맥주병으로 마구 찌르고 때려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5월 12일

◦ 미군사고문단소속 1등병 구샤드 월리암, 상등병 레이드 도날드는 인천시 가좌동 앞길에서 하진업이 차고있던 시계를 보자고 하고는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5월 13일

◦ 2사단 51통신대대 본부중대소속 1등병 찰스 라플레가 경기도 의정부시 가릉2동에서 류영자(녀자 22살)에게 강제로 마취제를 먹이고 온갖 추잡한 행위를 다하고 그에게 심한 상처까지 입히고 달아났다.

－5월 17일

◦ C. I. D. 소속 중사 티 디. 시몬이 충청남도 대전시 대흥동에 사는 변정자의 집에 뛰여들어 그를 마취시켜놓고 릉욕하였다.

－5월 24일

◦ 오후 43공병부대소속 야수들은 경상북도 칠곡군 인동면 신동부락에서 군사시설공사를 벌리다가 풀뿌리를 캐는 장병우(14살), 장병준(12살), 장명표(12살)소년들을 공사장으로 유인한 다음 그들을 불도젤로 깔아죽이였다.

－5월 25일

◦ 오전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향양리에서 사격훈련을 하던 미제침략군은 파철을 줏는 라연석을 과녁삼아 집중사격을 퍼부어 즉사시켰다.

－6월 4일

◦ 43병원소속 1등병 디겐스는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내방리에 사는 조아무개를 릉욕하려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마구 때려 심한 부상을 입혔다.

－6월 5일

◦ 오후 1군단 본부중대소속 상등병 제임스 웨이가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앞길에서 미친듯이 찦차를 몰고가다가 휘경국민학교 3학년 리인희(9살)학생을 무참히 깔아죽이였다.

－6월 10일

◦ 새벽 58병기탄약중대소속 병장 디커스 등 3명의 미군은 서울시 영등포구 시흥동에 있는 황해려관에 뛰여들어 가구들을 짓부시고 려관주인을 때려눕혀 중상을 입혔다.

－6월 11일

◦ 오후 8군 76공병대소속 1등병 보레보 세미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앞길에서 길을 비켜서는 김인수(45살)를 군용차로 고의적으로 깔아죽이였다.

－6월 13일

◦ 오후 미제침략군 제임스 한터는 전라북도 옥구군 옥구면 옥봉리에서 집앞에서 놀고있는 5살난 어린이를 군용차로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 미국선박 《오버씨즈레너》호의 선원 고인즈가 인천시 중구 중앙동에 있는 한 려인숙에 뛰여들어 문짝과 거울 등 집가산들을 닥치는대로 파괴하여 8만여원의 손해를 입혔다.

－6월 16일

◦ 밤 10련대소속 1등병 류니어가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에서 전광자를 겁탈하려다가 반항에 부딪치자 깨진 유리병으로 얼굴과 온몸을 마구 찔러 피투성이로 만들어놓고 집에 불까지 질렀다.

－6월 27일

◦ 오전 공군 6314부대 헌병대소속 상등병 죠 월리 등 3명의 미군야수들은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 앞길에서 길가는 백장미를 붙잡고 륜간하려다가 실패하자 다시 그를 차에 싣고 칠곡군 지천면 덕산동에 끌고가서 강간하려 했으나 그의 반항에 부딪치게 되자 그를 달리는 차밖으로 내던져 중상을 입혔다.

－6월 28일

◦ 1군단 51통신대대소속 상등병 티모 디. 알셈은 서울시 성북구 방학동 앞길에서 찦차로 길을 가는 정석영소년을 쫓아가 잔인하게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6월 29일

◦ 2사단 9련대 1대대소속 병장 존이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파주리에서

음식점주인 윤영선(42살)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누르고 폭행을 가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윤영선의 안해 리정애(36살)의 얼굴을 쇠의자로 때리고 눈을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7월 3일

◦ 오후 2사단 2의무대소속 1등병 구레그린이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법원리의 자기 집앞에서 놀고있는 차만희(5살)어린이를 군용차로 깔아 즉사시켰다.

－7월 10일

◦ 오전 728헌병대소속 하이가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오산3리 앞길에서 류의(82살)로인을 발견하자 그에게로 차를 몰아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7월 11일

◦ 4시경 오산공군기지사령부소속 하사 에리벨크는 군용화물차를 몰고 경상북도 김천시 성남동 륙교를 지나가다가 구두닦이소년 원종달(15살)이 다리밑에서 자는것을 발견하자 일부러 차를 다리밑으로 몰아 그를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7월 12일

◦ 저녁 《캠프캐롤》기지창소속 스파크스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동에서 집으로 가는 박아무개(15살)를 강제로 차에 실어 부대안에 끌고들어가 릉욕하려다가 실패하자 다시 그를 차에 싣고 칠곡군 지천면 덕산동까지 끌고가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의 반항에 부딪치게 되자 그를 달리는 차밖으로 내던져 중상을 입혔다.

－7월 13일

◦ 밤 헌병 존이 서울시 중구 양동에 사는 리은심(22살)을 서울시 룡산구 후암동 남산 국립도서관 동쪽 200m 떨어진 숲속으로 끌고가서 릉욕하려다가 항거에 부딪치자 목을 조르고 가슴을 짓밟아 잔인하게 살해한 다음 하반신을 벌거벗기고 옷을 찢어 목을 졸라매놓고 달아났다.

－7월 14일

◦ 대구기지 본부중대소속 2등병 아레이와 에드워드 등이 대구시 봉덕동에 있는 음식점에 뛰여들어 선풍기(당시 화폐로 1만 3 000원)를 훔쳐가지고 달아났다.

－7월 18일

◦ 10시 30분경 경기도 파주군에 둥지를 틀고있던 미제침략군은 길가는 파주군 천현면 범원리에 사는 어영태(39살)에게 총탄을 퍼부어 즉사시켰다.

－7월 22일

◦ 2사단 23련대소속 2등병 빈센트 폭스가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눌로리 개울가에서 자동차를 씻고있는 운전사에게 M－14소총을 마구 쏘아 최창도와 안용빈에게 중상을 입혔다.

－7월 28일

◦ 저녁 경기도 인천시에 둥지를 틀고있던 미제침략군이 부대에 고용되여 있는 박아무개가 퇴근하는것을 발견하자 그를 부대방공호에 끌고들어가 4시간 동안이나 륜간하고 구두발로 마구 걷어찼다.

－7월 30일

◦ 미군사고문단소속 병장 케이 스랜서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길옆에서 놀고있는 조창태(5살)어린이를 군용차로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8월 3일

◦ 공군기지소속 3명의 야수들은 전라북도 김제군 청하면 성동부락 앞길에서 지나가는 곽금량 등 4명을 아무 리유없이 몽둥이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8월 5일

◦ 2사단 9련대 1대대 중위 화이트 디. 유진은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에 사는 벙어리 림언택(32살)을 벙어리인지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부대안의 군견우리에 몰아넣고 개를 추겨 물어뜯게 하여 온몸에 심한 부상을 입혔다.

－8월 7일

◦ 밤 1등병 리페케트 암브류가 전라북도 김제군 황산면 새마을에 사는 정근자를 겁탈하려다가 거절당하자 그의 목을 졸라 질식시킨 다음 구두발로 마구 때려 치명상을 입혔다.

－8월 9일

◦ 2사단 17수송대대소속 10여명의 악당들은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상태3리에 있는 상점에 침입하여 물품들을 강탈하였으며 그것을 제지시키는 주민 7명을 집단구타하여 4명을 중태에 빠뜨려놓은 다음 상품을 모조리 짓뭉개놓고 달아났다.

－8월 13일

◦ 2등병 패터슨 등 10여명의 야수들은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광탄리에서 10여명의 마을녀성들을 집단구타하였으며 그들중 리분이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 밤 8군 계약처소속 살인귀들은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에서 미군부대에

고용되여 밤늦도록 고역에 시달리고있는 림성길을 군용차로 깔아뭉개여 즉사시켰다.

−8월 18일

◦ 밤 7사단 13공병대대소속 병장 페티가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방축리에 있는 한 음식점에 뛰여들어 김서영을 릉욕하려다가 반항에 부딪치자 3명을 더 끌고와서 10여명의 종업원들을 닥치는대로 때려 리혜자를 비롯한 7명의 종업원들에게 심한 부상을 입혔다.

−8월 29일

◦ 밤 44포병대소속 상등병 데빈이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함정리에서 마을녀성을 릉욕하려다가 그의 반항으로 수욕을 채울수 없게 되자 그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이를 말리는 현아무개 녀성에게도 뭇매를 안기고 나중에는 리송순(녀자)의 집에 뛰여들어 그를 사정없이 때려 실신케 하였다.

−9월 2일

◦ 땅크부대 2중대소속 상등병 달래스 랜스 등 4명의 악당들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에서 마을주민들에게 칼부림을 하다가 길호동의 머리와 온몸을 마구 찔러 중상을 입혔다.

−9월 4일

◦ 14시 6168전투지원단소속 해리 해돌스(30살)가 대구시 효룍동 아양교입구에서 군용화물차로 경상북도 달성군 공산면 영주동 327번지에 사는 차옥남(녀자 40살)을 깔아 중상을 입혔다.

−9월 6일

◦ 새벽 해군 《코칼》호소속 상등병 보날드 필립, 2등병 어하트 제이. 로날트가 경기도 인천시 남구 숭의동에 사는 강정아(20살)와 정미련(20살)을 503헌병순찰차에 강제로 싣고 인천시 중구 관동3가에 있는 오복려관으로 끌고들어가 릉욕하려다가 반항에 부딪치게 되자 필립놈이 권총으로 강정아를 쏘아 즉사시켰다.

−9월 10일

◦ 미제침략군 오디스는 경상북도 대구시 대봉3동에 사는 손남숙(26살)을 릉욕하려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반라체로 만들고 목을 졸라 잔인하게 죽이였으며 시체의 손과 목을 다시 졸라매고 발까지 다시 묶은 다음 그것을 비닐주머니에 싸서 9월 16일 서울−부산행 제13호렬차 승강구에 몰래 던져놓고 달아났다.

−9월 11일

◦ 오전 2사단소속 상등병 갈파는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심곡리 앞거리

에서 청소하는 김인규(55살)에게로 미친듯이 군용차를 몰아 그를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 23시 55분경 8군 작전처소속 오티스 더블유. 윈슨은 차를 몰고가다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에 있는 택시정류소 앞길에서 리윤희(39살)가 운전하는 서울영 1－1371호 택시를 들이받아 파손시킨 다음 계속하여 길옆에 서있던 서울 경암동 11번지에 사는 김석출(32살)을 비롯한 2명을 깔아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9월 13일

◦ 16시 50분경 대구시 신암동 앞길에서 군용차를 미친듯이 몰고가던 미제야수가 앞에 가는 삼륜차를 들이받아 차체를 완전히 파손시키고 달아났다.

－9월 23일

◦ 16시경 728헌병대소속 1등병 잉글 칼린시는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앞길에서 놀고있는 리동욱(4살)어린이를 고의적으로 군용차로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10월 6일

◦ 《캠프캐롤》 44공병대소속 병장 윌리암 브라운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동에 사는 리례선(21살)을 아곡동 진동산 산속으로 끌고가 겁탈하려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반라체로 만들어 폭행을 가했으며 나중에는 양말로 목을 졸라 죽인 다음 시체를 방공호에 처넣고 달아났다.

－10월 9일

◦ 오전 8군소속 야수가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 앞길에서 자기 집앞에서 놀고있는 김현미(5살)를 군용차로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10월 12일

◦ 공군소속 1등병 미첼과 하사 토마스는 경상북도 대구시 봉덕동에서 길가던 김아무개(20살)를 찦차에 강제로 싣고 릉욕하려다가 항거에 부딪치자 달리는 차밖으로 차던져 치명상을 입혔다.

－10월 18일

◦ 새벽 44포병대소속 1등병 엘리드 데리, 2등병 스탄리 맥노날드는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신합리에 있는 리원규의 집에 뛰여들어 잠자는 그의 맏딸(19살)을 릉욕하려다가 실패하게 되자 그의 어머니를 밖으로 끌고나가 륜간하고 달아났다.

－10월 21일

◦ 11시 30분경 4대대소속 1등병 디. 테스(19살)가 전라북도 김제군 황산면 황산리 앞야산에서 꿩사냥을 하다가 밭에서 일하는 김길단(62살)로인을

보자 그를 과녁삼아 사냥총을 쏘아대여 중태에 빠뜨렸다.

◦ 이에 앞서 서울시 룡산구 한강로의 한 골목에서 7명의 미군이 오가는 주민들에게 까닭없이 달려들어 칼부림을 하여 윤지중 외 2명의 주민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10월 23일

◦ 오전 7사단 헌병중대소속 1등병 스미스 포리일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동두천리 앞길에서 일나가는 김영식농민을 과녁삼아 카빈총으로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

—10월 24일

◦ 12시경 상등병 스미스 월리암이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란리 앞길에서 려객뻐스에 총탄을 퍼부어 차창과 차체를 파손시켰다.

—10월 28일

◦ 미제침략군 야수가 사복차림을 한 다른자와 함께 대구시 신천동에 있는 동명당시계점에 뛰여들어 시계를 강탈해가지고 달아났으며 15분후에는 대구시 칠성동에 있는 시계점에서 시계를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10월 31일

◦ 5시 10분경 7사단 76공병대대 3중대소속 대형군용화물차를 몰고가던 운전사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앞길에서 마주오던 합동택시소속 배송렬(28살)이 운전하는 경기영 1—1265호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사를 깔아죽이고 택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리였다.

—11월 3일

◦ 8군 포병사령부 3대대소속 상등병 버니스와 허디슨 그리고 4유도탄사령부소속 상등병 알프레드 크로마가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의 뒤골목에서 정성태에게 시간을 묻는척 하다가 다짜고짜로 그를 때려눕히고 시계를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11월 5일

◦ 17련대 2대대소속 미제살인귀가 경기도 파주군 월룡면 영태리에서 길가에 서있던 유봉수(12살)소년의 얼굴을 깨여진 유리병으로 마구 찔러 중태에 빠뜨리고 달아났다.

◦ 1군단 19CIC조사관 준위 윌슨은 부대에 고용되여있는 김순자(녀자)를 병영안으로 끌고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2시간동안이나 닥치는대로 때려 중상을 입혔다.

—11월 6일

◦ 오전 하사 죤스 등 3명의 미군은 충청남도 천원군 성황면에 살고있는

최아무개를 부대창고로 끌고들어가 반항하는 그를 사정없이 때린 다음 륜간하고 심한 상처를 입혔다.

◦ 밤 335부대소속 2등병 지엔스 그레이가 인천시 북구 부평동에서 택시를 타고 료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 하다가 운전사 변홍범에게 붙잡히게 되자 도리여 그에게 매질을 하여 실신케 한 후 달아났다.

－11월 17일

◦ 오후 2사단 17포대 7대대소속 1등병 죠지 보그스가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장파리 앞길에서 김지숙(녀자 20살)을 군용차로 깔아죽이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길가는 주민들을 깔아뭉개여 그중 리재민과 구영호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 11월 20일

◦ 18시경 평택에 도사리고있는 햄프리부대 안전과장 에프. 아이. 브룸베리(52살)가 4－9251호를 몰고가다가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삼정리고개 앞길에서 달리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타고있던 춘천시 근화동 1구 64번지에 사는 최경자(녀자 23살)를 즉사케 하였다.

－11월 25일

◦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에 있는 6명의 미군은 동두천읍 보산리에 있는 다리우에서 마을청년 정길윤과 김천을 때리고 다리밑으로 떨어뜨려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였다.

－11월 29일

◦ 밤 1등병 고브겐이 경기도 양주군에서 김아무개를 릉욕하려다 거절당하자 그의 목을 졸라 죽이려다가 이를 제지하려온 이웃집 송영우와 김영순녀성을 칼로 마구 찔러 치명상을 입혔다.

◎ 충청북도 옥천군 천성면에서 군용자동차를 몰고가던 슬레트가 앞에서 길을 가던 안아무개 농민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즉사시켰다.

－12월 1일

◦ 밤 7사단소속 군용뻐스를 타고 의정부쪽으로 미친듯이 달리던 야수들은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주민들이 탄 자동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고 이에 《흥취》를 돋구어 다른 자동차를 후진하면서 들이받아 파손시키였다.

－12월 3일

◦ 오후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봉암리 앞길로 찦차를 몰고가던 미군야수들은 길가는 김한규(17살)를 깔아죽인 다음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그의 시체를 논구뎅이에 처박았다.

－12월 5일

◦ 부산항에 기여든 미국선박 《워토리》호 항해사 로버트 웰드가 로동자

차근태(38살)가 작업시간에 물을 마시려고 했다 하여 권총까지 쏘아대면서 권총자루로 그의 머리를 사정없이 때려 중상을 입혔다.

◦ 미제침략군 찰스 에드워드를 비롯한 5명의 야수들은 서울시 룡산구에 있는 한 식당에 뛰여들어 주인 박익범에게 아무 까닭없이 시비를 걸다가 맥주병으로 그의 얼굴을 때려 중상을 입혔다.

—12월 13일

◦ 경기도 평택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군기지 하사관식당 책임자 중사 모나리드 에브린은 식당종업원 김로적을 방에 가두어넣고 자기의 부정행위를 폭로하지 말것과 빚진 돈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다고 하여 칼로 마구 찔러 치명상을 입혔다.

—12월 15일

◦ 503헌병대소속 상등병 로드엘 리쳐드 등 2명은 경기도 인천시 황동 앞길에서 지나가는 계용희의 물건을 강탈하고 그를 자동차에 태워 소월미도 뒤산으로 끌고가서 뭇매질을 하여 심한 상처를 입혔다.

—12월 17일

◦ 밤 미제침략군 3명은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양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한진숙에게 달려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반항에 부딪치자 그를 끌어다 난로불에 지져서 심한 화상을 입히고 중태에 빠뜨렸다.

—12월 27일

◦ 21시 30분경 8군소속 중위 월평마빈은 4—8929호 승용차를 몰고가다가 서울 룡산구 룡산동 2가 8번지에 있는 8군 7호정문 앞길에서 길가던 20살가량의 녀성을 보자 차를 그에게로 몰아 무참히 깔아죽이였다.

1969년

—1월 1일

◦ 아침 8군소속 하사 세코트가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대화리에서 길을 건느는 리기현로인을 군용차로 깔아죽이였다.

—1월 3일

◦ 병장 노드르웨이 외 1명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에서 장아무개(녀자)의 집에 뛰여들어 다짜고짜로 리발기와 가위로 그의 얼굴과 온몸을 마구 찌르고 구두발로 차서 중태에 빠뜨렸다.

—1월 7일

◦ 7사단 수송중대소속 병장 존 와트는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기지2리 앞길에서 군용차를 미친듯이 몰고가다가 자전거를 타고가는 정범석을 깔아

죽이였다.

－1월 11일

◦ 1군단 25부대 본부중대소속 상등병 크레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가릉2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김영이, 김명국 등 3명의 종업원을 의자와 구두발로 마구 때려 모두 중태에 빠뜨렸다.

－1월 12일

◦ 《캠프캐롤》보급창 2중대소속 상등병 프레드릭 바스헤트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2동에서 최경희를 퇴비장으로 끌고가서 겁탈하려다가 완강한 항거에 부딪치자 목을 졸라 실신시킨 다음 강간하고 다시 목을 눌러죽이였다.

－1월 22일

◦ 8군소속 상등병 골맨 오브라이언 외 1명은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 골목에서 장옥주를 겁탈하려다가 항거에 부딪치자 그를 마구 때려 쓰러뜨렸으며 이를 제지하려온 박남이(녀자)에게도 구타를 하여 중태에 빠뜨렸다.

－1월 24일

◦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2동 앞길에서 548병원소속 하사 프레크는 사냥총을 가지고 미친듯이 돌아치다가 길가던 리상원을 쏘아 즉사시켰다.

－2월 9일

◦ 경기도 파주군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이 파주군 적성면 자파리에서 김정자(녀자)의 집문을 들부시고 그를 마구 때려 실신상태에 빠뜨렸다.

－2월 14일

◦ 8군소속 이브트가 서울시 영등포구 본동 앞길에서 군용차를 몰고가다가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주민(40살정도)을 깔아죽이였다.

－2월 18일

◦ 335병기대대소속 1등병 아담 코빌테는 인천시 북구 부평동에 사는 임순자를 겁탈하려다가 반항에 부딪치자 그를 마구 때려 중태에 빠뜨렸다.

－2월 22일

◦ 9시 40분경 2사단 7기갑부대소속 1등병 발바우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운천리에 사는 리용우의 집에 불을 질러 초가집 1채와 가장집물을 모조리 불태워 8만여원의 피해를 입혔다.

◦ 3항공파견대소속 하사 슈만니트를 비롯한 5명의 미군야수들은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읍 뒤산에서 사냥에 돌아치다가 김용수, 손경찬, 강시중, 배진원 등 12살나는 소년들에게 정면으로 산탄을 쏘아 모두 그자리에 쓰러뜨리였다.

◎ 미제침략군 1명은 대구시 대봉동 3구에 사는 구화경의 집에 뛰여들어 무럭대고 집주인을 구두발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 1등병 아브리프가 대구시 봉덕동 2구 앞길에서 길가던 권성숙을 겁탈하려다가 그가 응하지 않게 되자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려 왼쪽눈을 찢어놓았다.

—3월 16일

◦ 서울시 성동구 상일동 앞길에서 미친듯이 승용차를 몰고가던 미군운전사가 길가는 라리영(12살)소년을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리고 달아났다.

—3월 30일

◦ 충청남도 서산군 태안면 동문리에서 상등병 티를 비롯한 6명의 미군은 태안면 평천리에 사는 김상섭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어은리에 사는 박영근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으며 나중에는 김인수를 군용차로 깔아뭉개고 달아났다.

—4월 17일

◦ 경기도 가평군 가평면 상선리 앞길에서 군용차를 몰고가던 미군운전사가 길가에서 놀고있던 홍성기(7살)를 깔아죽이였다.

—4월 22일

◦ 월미도에 둥지를 틀고있는 수송대대 본부파견대소속 하사 부르노 크랜스는 인천시 중구 중암동에서 껌을 팔고있는 리순례(14살)를 겁탈하려다가 그가 반항하자 구두발로 마구 차서 중태에 빠뜨렸다.

—4월 29일

◦ 696탄약중대소속 2등병 리베라 흔테나를 비롯한 10여명의 미군야수들은 의정부시 호원동 앞길에서 차재순, 리규봉에게 달려들어 뭇매질을 하여 머리를 터뜨리고 가슴에 심한 타박상을 입혔다.

◦ 《캠프캐롤》본부중대 2등병 퍼그슨이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2동에 있는 김수용의 집에 달려들어 라지오 1대와 탁상시계 1개를 비롯한 많은 물건들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5월 6일

◦ 13공병대소속 상등병 그렌은 군용차로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봉양리 정류소에서 손님을 태우고있던 경기영—5767호 뻐스를 들이받아 김세영 외 5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5월 14일

◦ 미군야수들은 서울시 영등포구 방화동에서 골목길로 군용차를 들이몰아 김동철의 집을 파손시켜 무너뜨렸다. 이로 인하여 집과 가장집물이 완전

히 파괴되였으며 집안에 있던 김정자(녀자)는 즉사하고 김희영(녀자)은 중태에 빠졌다.

－5월 19일

◦ 1등병 재크는 인천시 부평동에 있는 남의 집 세방살이를 하는 김금순의 방에 뛰여들어 그를 겁탈하려다가 항거에 부딪치자 그의 목을 졸라 죽이였다.

－6월 1일

◦ 3시경 상등병 데이비드(24살)가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법원리에 사는 김희숙(20살)의 집에 침입하여 자고있는 그의 목을 졸라매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겁탈하고 달아났다.

◦ 19시경 7기갑중대소속 2명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마정리 길가에서 지나가는 리덕래(22살)에게 달려들어 강간하려다가 그의 완강한 반항에 부딪치자 그를 구타하여 생명이 위험하게 만들었다.

－6월 3일

◦ 13시경 시설공병대원들이 림진강 강가에서 자갈을 추고있던 15명의 주민들에게 폭발물을 던져 김진우(35살)를 그자리에서 즉사시켰다.

－6월 5일

◦ 12시 30분경 부산기지 본부중대소속 병장 죠지 월리암, 상등병 크멜스 에이. 스트본, 1등병 토마스 등 3명은 부산시 부전동 상진북지점 앞길에서 지나가는 부산시 부암동 145번지에 사는 홍현표(28살)에게 불의에 달려들어 단도로 오른쪽갈비대, 다리, 가슴 등 온몸을 마구 찔러 중태에 빠뜨린 후 시내에 있는 카메라상점인 에리사의 창문까지 부시고 달아났다.

◦ 18시 30분경 833병기탄약중대소속 상등병 로스 산호(24살)가 충청남도 천원군 성환면 학정리 앞길에서 군용차를 미친듯이 몰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운전사 심유웅(49살), 리종현(47살)을 깔아죽이였다.

－6월 7일

◦ 23시경 공병대소속 1등병 잰바는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 88번지에 사는 지옥련(24살)의 집에 침입하여 그를 겁탈하려다가 항거에 부딪치자 그를 때리고 구두발로 차서 실신시킨 후 증거물을 없앨 목적으로 휘발유로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6월 8일

◦ 1시경 《캠프캐롤》소속 2명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2동 464번지에 사는 한주연(36살)에게 아무 리유없이 마구 달려들어 몽둥이로 그의 입

을 찢어놓고 왼쪽어깨를 내리쳐 어깨뼈가 부서지고 웃이발 2대와 아래이발 2대가 부러지게 하여 그가 정신을 잃게 하였다.

-6월 14일

◦ 9시 40분경 미제침략군은 전쟁연습을 벌려놓고 미친듯이 포를 쏘아대다가 부근에 있는 둔포중학교를 과녁삼아 류탄을 발사하여 학교에서 공부하던 주정보(15살)학생에게 중상을 입혔다.

◦ 14시 30분경 포병사단소속 1등병 헬빈 제이와 1등병 헤리 이네스트를 비롯한 6명의 미제침략군은 경기도 인천시 북구 부평동 248번지 길가에서 강선미(28살)가 운전하는 부평기업소소속 경기영 1-518호 택시를 세워놓고 《미국에 가자.》고 행패를 부리다가 그가 거절하자 운전사를 집단구타하여 1주일간 치료해야 할 상처를 입히고 현금 2 500원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 17시 45분경 병장 톰프스 인톤(21살)은 충청남도 서산군 태안면 학산리 길옆에서 일하고있는 리원길(34살)을 아무 리유없이 마구 때리고 발길로 차서 심한 상처를 입혔으며 이것을 말리는 박아무개에게도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마구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

-6월 21일

◦ 11시 20분 8군 대전주재 통신부대소속 상등병 싱들 케이. 존(18살)은 경상북도 김천시 룡부동 산영사 앞길에서 CI-14호 자동차를 고속으로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가는 김상기(16살)학생을 발견하자 그를 뒤따라가서 들이받아 치명상을 입혔다.

-6월 22일

◦ 21시경 《캠프캐롤》본부중대소속 하사 싱글 리불리 사틀드이(24살)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동 클럽에서 석전동 434번지에 사는 김남순(녀자 35살)에게 터무니없는 시비를 걸어 그를 머리높이까지 들었다가 세멘트바닥에 내동댕이쳐 전신타박상과 뇌진탕으로 생명이 위험하게 만들었다.

-6월 23일

◦ 16시경 8군 원유창소속 미제야수가 경상북도 영천군 영천읍 금로동 앞길에서 몰고가던 자동차로 길가는 영천군 완산면에 사는 전옥례(녀자 34살)를 들이받아 불구자로 만들고 그가 업고있던 딸 순자를 차에 깔아 현장에서 즉사시켰다.

-6월 24일

◦ 5시 45분경 공군헌병 상등병이 상무동 8반 192번지에 사는 박영자(26살)의 집에 뛰여들어 희롱하려다가 그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6월 27일

∘ 18시경 상등병 브라운 윌슨이 서울시 룡산구 한남동 737번지 앞길에서 화물차로 길가는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덕소리 528번지에 사는 최영순(남자 59살)을 깔아 중태에 빠뜨리고 달아났다.

－6월 30일

∘ 21시경 하사 리챠드는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 길옆에서 놀고있던 길화자(6살)를 화물차로 깔아죽이였다.

－7월 2일

∘ 20시 미제침략군이 군용찦차를 몰고가다가 경기도 평택군 준성면 천곡리 앞길에서 마주오던 경기영 5－5516호 뻐스를 들이받아 승객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7월 6일

∘ 18시경 7사단 13공병대 3중대소속 슈버 반단란을 비롯한 4명의 악당들은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두포리산 비상길에서 경기영 1－2295호 택시운전사 삼규성(35살)의 목을 조르고 쇠망치로 머리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현금 7 000원과 손목시계 등을 강탈하였을뿐아니라 택시까지 빼앗아 타고가다가 개울가에 던져버리고 달아났다.

－7월 7일

∘ 22시 40분경 미제침략군이 군용차로 경기도 파주군 월롱면에서 마주오던 경기영 1901호 뻐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뻐스에 타고있던 승객 4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7월 8일

∘ 23시 50분경 공병대소속 1등병 트 코파스(20살)는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에 사는 김아무개(23살)의 집에 기여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그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

－7월 11일

∘ 23시 30분경 512군부대소속 상등병 데이크 커피스 얄이 경기도 인천시 북구 부평동에 있는 미군부대 앞길을 지나가던 인천시 삼구 간석동에 사는 리성덕(24살)이 옆을 스치면서 지나갔다고 시비를 걸어 마구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

－7월 13일

∘ 23시 15분경 8군 대구기지 근무중대소속 맥드몬 더블유. 크리포트는 경상북도 대구시 봉덕동 4748부대 정문앞에서 지나가는 아시아택시소속

1－6260호를 멈춰세우고 차유리를 발로 차서 모조리 깨버린 다음 운전사 진형진(33살)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여 심한 상처를 입혔다.

－7월 14일

◦ 통신 1중대 상등병 챨스 칼멘은 모래를 실은 화물차를 몰고가다가 길옆에서 놀던 진해시 덕산동 73번지에 사는 김태성(7살)을 심심풀이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7월 17일

◦ 22시 30분경 8군 본부소속 하사 탈 죤슨(31살)은 경상북도 대구시 대봉동 3구 469번지에서 오영순(37살)을 희롱하려다가 그가 응하지 않자 달려들어 마구 때리다가 그래도 성차지 않아 그를 길가에 끌고다니면서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다.

－7월 19일

◦ 10시경 6168전투지원전대소속 토마스 플레스톤(21살)은 경상북도 대구시 남구 봉덕동 2구 603번지 앞길에서 길가는 리성희(녀자 24살)를 발견하자 찦차를 그에게 몰아 중상을 입혔다.

－7월 20일

◦ 23시 30분경 유도탄대대 7중대소속 상등병 유폴이 차를 몰고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비산리 임곡교를 건느다가 다리옆에 피해 서있는 비산리 232번지에 사는 강병원(43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를 높이 4m의 다리밑으로 내던져 중태에 빠뜨렸다.

－7월 21일

◦ 22시 20분경 7사단 76포대 4대대소속 1등병 리빙스톤 레오날드 오루젠스(18살)는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시 도로에서 택시운전사에게 달려들어 칼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해가지고 가려다가 붙잡혔다.

－7월 24일

◦ 18시 40분경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에 도사리고있는 미제침략군이 포사격장에서 전쟁연습에 미쳐날뛰면서 포탄을 마구 쏴대여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문바위에 사는 김영철(16살)소년과 한 청년(20살정도)을 숨지게 하고 김명식(20살)에게 중상을 입혔다.

－8월 3일

◦ 미제침략군 에몰드 디. 슈스는 서울영 4－2938호 택시를 몰고 금천에서 왜관으로 가던중 길가던 소년(13살정도)을 깔아죽이였다.

－8월 7일

◦ 15시경 충청남도 서산군 원북면에 있는 44포병대 사격장에서 포사격

을 하고있던 야수들은 근처에서 놀고있던 7명의 어린이들에게 M-79 포탄을 발사하여 모두 중경상을 입혔다.

―8월 11일

◦ 15시 15분경 미제침략군이 화물차를 미친듯이 몰다가 경기도 부천군 계양면 박촌리 앞길에서 경기영 5-453호 뻐스를 들이받아 운전사 리완복(34살)을 비롯한 20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8월 13일

◦ 17시 30분경 크라멘스(41살)가 서울 중구 회현동에서 녀성을 희롱하는것을 말린다고 하여 박예자(녀자 34살)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8월 14일

◦ 21시경 미제침략군 1명은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에 사는 김영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항거에 부닥쳐 자기의 더러운 수욕을 채우지 못하게 되자 그의 목을 졸라매여 정신을 잃게 하고 달아났다.

―8월 25일

◦ 17시 30분경 110헌병대소속 다비드 피엘은 충청남도 대덕군 반통면 반석리 앞길에서 차를 몰고가다가 앞에 달리는 경북영 2-1502호 찦차를 들이받아 전복시켜 차에 타고있던 대전시 《고려서적》에 있는 손영애(녀자)를 비롯하여 4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8월 27일

◦ 17시경 377군부대소속 1등병 하리 제이. 밋셜(22살) 외 2명은 인천시 산곡동 길가에서 약담배를 피우다가 지나가는 임정순(녀자 30살)에게 달려들어 희롱하려다가 그가 반항하자 집단구타하여 심한 상처를 입혔다.

―8월 28일

◦ 22시 30분경 상등병 칼렐(24살)은 학익동 430번지 앞길에서 갖은 추태를 다 부리며 돌아치다가 지나가는 리들순(46살)을 무턱대고 맥주병으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으며 잇달아 길가는 사람 7명을 몽둥이와 맥주병으로 마구 때려 심한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

―9월 1일

◦ 16시 15분경 하사 키플리 외 2명의 야수들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혼학클럽에 뛰여들어 홀에 앉아있는 김영희(24살) 등 2명의 녀성에게 달려들어 겁탈하려다가 그들이 반항하자 집단구타하여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9월 7일

◦ 18시 《캠프캐롤》소속 제임스 디. 썰리가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앞길에서 자동차를 미친듯이 몰아 길가는 사람을 깔아죽이였다.

―9월 11일

◦ 16시 30분경 4경비대대 11중대소속 1등병 크린저(19살)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리 228번지 앞길에서 대형화물차로 길옆에 앉아있는 윤손준(2살)을 깔아죽이였다.

―9월 20일

◦ 19시 10분경 2사단소속 병장 맥스프 월투스 등 3명의 야수들은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대릉리 앞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는 등 갖은 행패를 다 부리다가 그것도 성차지 않아 김옥분(56살)의 집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길가에 마구 던져 깨뜨렸으며 이를 말리던 정문부(27살)를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

―9월 23일

◦ 23시 30분경 병장 베이트 외 5명의 악당들은 경기도 인천시 부평동에서 정아무개와 김길영에게 달려들어 강간하려다가 그들이 반항하자 그들의 머리태를 손에 감아쥐고 끌고다니면서 집단구타하였다.

―9월 27일

◦ 10시 30분경 44포병대 4대대 본부중대소속 병장 버느한 월리암은 인천시 간석동 21번지 약사사입구 앞길에서 차를 피해 달아나는 간석동 36번지에 사는 조동암(7살)을 화물차로 따라가 깔아죽이였다.

―10월 4일

◦ 상등병 풀로이트 외 2명의 악당은 부산에서 부산영 1―2292호 택시를 타고가다가 운전사 김화경의 목을 조르고 그가 가지고있던 현금을 모두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10월 7일

◦ 23시 15분경 65의무단 168대대 본부중대소속 상등병 케시어 죠세프(23살)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82번지 앞길에서 찦차를 미친듯이 몰다가 우경희(18살)를 무참히 깔아죽이였다.

―10월 9일

◦ 12시경 항공대소속 중위 엔더 버거(26살)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리에서 살림집들을 공격목표로 삼고 《EC―47》 대형직승기를 들이몰아 박창연의 집을 비롯한 9세대의 집을 몽땅 짓부셔버렸다.

－10월 17일

◦ 1시경 335중장비경비대대 1중대소속 상등병 제크 지. 아비 크롬비(22살)가 자기의 더러운 수욕을 채우려고 경기도 인천시 부평동 176번지에 사는 리금순(23살)의 집에 뛰여들어 겁탈하려다가 그가 항거해나서자 마구 때리고 옷걸이로 그의 목을 졸라 죽이였다.

－10월 18일

◦ 22시 40분경 5명의 악당들은 전라북도 전주시 명산동 제일명산옥 앞길에서 지나가는 조준덕(21살), 안영찬(19살), 박영신 등 3명에게 아무 까닭없이 달려들어 뭇매질을 가하고 칼로 마구 찔러 온몸을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10월 23일

◦ 10시 30분경 K－55기지에 있는 군수품창고 보초병인 6314헌병대소속 군견반 1등병 리쳐드 디. 베이스트(20살)가 철조망근처 앞길을 지나가던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에 사는 권대식(15살)을 《맛있는것을 준다.》고 꾀여 기지안에 불러들여 군견을 풀어 물어뜯게 하여 그자리에서 정신을 잃게 하였다.

－10월 29일

◦ 14시 50분경 월스텔 살(21살)이 경기도 포천군 포천면에서 폭발물을 실은 406호 화물차를 마구 몰고가다가 영등포소속 경기영 649호 뻐스를 들이받아 뻐스에 타고있던 포천면에 사는 윤상순(27살)을 비롯한 13명의 주민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11월 2일

◦ 23시 10분경 미제침략군 1명은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 미군병원 앞길에서 경기영 1－2836호 택시를 타고가다가 운전사 리창수(28살)를 칼로 위협하고 돌멩이로 머리를 까서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현금 2 800원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11월 5일

◦ 15시 15분경 하야리야부대소속 고문단 중사 맨타일러를 비롯한 3명의 악당들은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대청부락 뒤산에 몰켜와 《사냥》을 한다고 마구 총질을 하던 끝에 밭에서 일하고있던 유장로(30살)를 과녁삼아 총을 쏘아 중상을 입혔다.

－11월 15일

◦ 18시 30분경 경상남도 창원군 창원면에 도사리고있는 50여명의 야수들은 주변마을의 한 음식점에 뛰여들어 행패를 부리다가 집주인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후 련이어 가장물들을 마구 들부셨다.

－11월 20일

◦ 11시경 오산비행장소속 브릿트 제임스가 화물차를 몰고 대전－리리방면으로 달리다가 론산읍 덕지동 762번지에 사는 최영순(녀자 31살)의 맏아들 박수여(5살)를 깔아죽이였다.

－11월 21일

◦ 10시경 공군하사 플(38살)이 전라남도 광주시 윤천동 7번지에 사는 최송자(42살)의 집에 기여들어 희롱하려다가 그가 항거하자 그를 마당으로 내던져 머리가 터지게 하는 등 심한 상처를 입혔다.

－12월 4일

◦ 10시 30분경 상등병 하우엘 노레스(23살)와 미국화물선 《아메리칸 메일》호 선원 에프. 에이. 크로퍼드(28살) 등 2명의 야수들은 부산시 초량동 길가에서 부산영 1－2292호 택시를 타고가다가 초량동 지하도입구에 이르자 갑자기 운전사 정화성(47살)의 목을 조르고 그의 돈을 몽땅 빼앗았다.

－12월 5일

◦ 18시 15분경 김포지구 전투공항단 수송부소속 병장 제임스 헤비쉐엘(21살)이 인천 네거리에 있는 목재소 앞길에서 군용차를 미친듯이 몰아대다가 중구 목성동 1가 6번지에 사는 장영학(25살)을 들이받아 뇌진탕으로 죽게 하였다.

－12월 15일

◦ 23시경 6168전투지원중대소속 포미 칵크는 경상북도 대구시 봉덕동 3구 469번지 신태양 앞길에서 지나가는 박삼봉(61살)을 아무 리유없이 구두발로 차고 때리며 귀를 찢어 중태에 빠뜨렸다.

－12월 23일

◦ 밤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 거리에서 8군소속 놀만을 비롯한 3명의 야수들은 길가던 리아무개 청년을 생트집을 걸어 마구 때리고 칼로 찔렀으며 이에 항거하는 다른 청년을 몽둥이로 때려눕히였다.

－12월 24일

◦ 22시경 공병대소속 로벨트 이. 휘샤는 아무 리유없이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의 한 건물에 돌을 마구 던져 유리창을 모조리 까부셨으며 이에 항의하는 김화영(42살)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칼로 그의 얼굴을 마구 찌르고 때려 중상을 입혔다.

◦ 22시 30분경 7사단소속 50여명의 야수들은 떼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 428번지 뉴욕홀 앞길에서 지나가던 정경식(27살) 등 8명과 홀주인 장만회(32살)를 아무런 까닭없이 끌어내여 집단구타

하여 상처를 입혔다.

◦ 23시 30분경 대구에 둥지를 틀고있는 44공병대대 2중대소속 하사 디리엠 이. 톰 등 2명의 악한들은 경상북도 대구시 태평로 1가 10번지에 사는 조아무개(22살)와 김아무개(22살)를 랍치하여 저들의 숙소에 가두어놓고 수욕을 채운 후 그들을 마구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

―12월 25일

◦ 19시 20분경 《캠프캐롤》 44공병대대소속 팸프스 라리(23살)는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 23동에 사는 김아무개(22살)에게 달려들어 강간하려다가 그가 항거해나서자 구두발로 차고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매여 정신을 잃게 하였다.

―12월 30일

◦ 20시경 8군소속 병장 해리 로렌드를 비롯한 3명의 미군은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에서 서울영 1―7505호 택시를 타고가다가 차비를 주지 않았을뿐아니라 흉기로 협박하여 운전사의 돈 4 300원까지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12월 31일

◦ 8시 30분경 미제침략군이 화물차를 몰고 평택쪽으로 달리다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면 합덕리 길옆에서 놀고있던 리훈희(5살)를 깔아죽이였다.

1970년

―1월 1일

◦ 6시 30분경 공군 6175화약경비대소속 병장 후레드릭 씨. 썰베이(26살)는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에 사는 김영자(25살)를 랍치하여 대광려관 16호실에 가두어넣고 강간하려다가 그가 방문을 열고 뛰여나가면서 고함을 지르자 화풀이로 려관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 21시 30분경 헌병대소속 병장 카텔 헤리(25살)는 경기도 평택군 제성면 안정리에 사는 리화자(25살)가 자기의 희롱에 반항한다고 하여 마구 때려 중태에 빠뜨렸다.

◦ 21시 40분경 726헌병대소속 병장 파쿄씨 케리(25살)는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에 사는 기기제(26살)에게 달려들어 희롱하려다가 그가 응하지 않자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히였다.

◦ 23시 30분경 23직접지원소속 하사관 벤네르쓰 루야(31살)가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에서 사는 김영숙이 꾸어준 돈 3 300원을 돌려줄것을 요구하자 그를 때려 중상을 입히고 살림도구를 짓부시는 등 갖은 행패를 다 부렸다.

◦ 오후 경기도 평택지역에 둥지를 틀고있는 헌병대소속 해리는 안정리에 사는 리아무개에게 달려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반항하자 폭행을 가하여

치명상을 입히였다.

－1월 7일

◦ 23시 30분경 802공병대대소속 상사 피스트 이. 제임스(32살)는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에 사는 옥복남(녀자 28살)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그가 반항하자 그의 옷을 찢어벗긴 후 머리채를 움켜잡고 폭행을 가하였다.

◦ 저녁 미제침략군 야수가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 앞길에서 길가던 최수정(남자)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치명상을 입혔다.

－1월 16일

◦ 21시 48분경 K－2공군소속 병장 헨드슨 데이비드가 경상북도 대구시 점산동 2구 경대교입구 점산동 네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미친듯이 달리다가 대구시 신암동 1구 529번지에 사는 장도원(28살)과 신암동 3구 1128번지에 사는 김용일(27살)을 들이받아 심한 타박상을 입히고 달아나다가 신암동 3구 제방뚝에서 매일택시소속 경북영 1－3573호를 들이받아 크게 파손시켰다.

－1월 18일

◦ 14시 40분경 미군사고문단소속 장교 20명은 경상남도 김해군 명지면 락동강류역에서 백로사냥을 하다가 김해군 오지면에 사는 하억수(16살)소년을 고의적으로 쏘아 그의 배와 왼쪽팔에 관통상을 입혔으며 그의 생명이 위급하게 되자 그를 차에 걷어싣고 가다가 내던지고 달아났다.

－1월 23일

◦ 10시 미제침략군이 로케트포탄을 마구 쏘아대여 경기도 려주군 대신면 장풍리 616번지에 사는 리수복(55살)의 둘째아들 리헌신을 비롯한 3명의 어린이들에게 중경상을 입혔으며 집 1채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 전쟁연습에 광분하던 미제야수들이 터뜨린 포탄에 경상남도 창원군 상남면에서 사는 박봉희(녀자)가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 뒤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죽었다.

－1월 31일

◦ 22시경 1등병 베이스, 상등병 구룸바 등 3명의 야수들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하리 앞길에서 지나가는 최병락(43살)을 아무 리유없이 집단구타하여 중상을 입히고도 성차지 않아 그 마을 륙신영(55살)의 집대문을 마스고 뛰여들어가 잠자고있던 김혜숙(녀자 20살)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힌 다음 옆에 있는 류동열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 살림도구를 닥치는대로 마스고 달아났다.

◎ 11시 45분경 38려단 44포병대 4대대 2중대소속 중사 하웬뒤엠은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읍 대천리 역전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가다가 보령군 량포면

달산리에 사는 최혁순의 처 리경순(37살)을 깔아죽이였다.

◎ 23시 45분경 8군소속 하사 바크벨리가 서울 룡산구 리태원동 119번지 앞길에서 길가는 리강미(녀자 26살)를 타고가던 4－9250호 차로 고의적으로 깔아죽이고 함께 가던 그의 동생 리강인(녀자 21살)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 미제침략군 병원소속 병장 코리만(21살)과 상등병 아담스(20살)를 비롯한 3명의 미제침략군은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에 사는 김룡환(36살)을 비롯한 3명의 주민들로부터 물품을 사주겠다고 속여 현금 52만원을 략취하여가지고 달아났다.

◎ 전라북도 익산에서 전쟁연습에 미쳐날뛰던 44포병대 1대대 2중대 리챠드가 군용차를 뻐스를 기다리던 리경자(녀자)와 리은정어린이에게 고의적으로 들이몰아 중상을 입혔다.

◎ 부산시 동래구 연사동에서 전쟁연습에 돌아치던 미제침략군이 고의적으로 포탄을 터뜨려 김연주를 비롯한 6명의 어린이들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2월 5일

◦ 21시 20분경 부산기지사령부 본부중대소속 2등병 클레조 조지엘리는 경상남도 부산시 초량동 앞길에서 지나가는 김윤근(37살)이 자기옆으로 지나간다고 시비를 걸어 그를 때리다가 말리는 리현식(30살)에게 달려들어 칼로 그의 얼굴을 마구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2월 6일

◦ 23시 50분경 공군 475전략비행대소속 병장 메클레스트가 경상북도 대구시 봉덕동 3구에서 진경희(녀자 23살)를 아무 리유도 없이 때려 왼쪽팔을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혔다.

－2월 7일

◦ 1등병 스틱스 죠니(21살)가 경상북도 왜관에서 화물차를 몰고가면서 길을 가던 사람들의 모자를 10여개나 날치기해가지고 달아났다.

－2월 10일

◦ 22시 30분경 1군단 38포병대소속 하사관 쿠인(30살)이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봉양리에 사는 임신 3개월인 정의출(녀자 33살)이 자기 부대앞을 지나가자 달려들어 겁탈하려다가 그가 반항하자 사정없이 얼굴을 때리고 구두발로 차서 온몸을 피투성이로 만들어 중태에 빠뜨려 류산케 하였다.

－2월 13일

◦ 1군사령부소속 1등병 리키 다브르 산더스가 부대에 고용된 원봉오(36살)가 자기에게 오는 공문을 훔쳤다고 루명을 씌워 마구 때린 후에는 그가 《간첩》이라고 신고하여 심문과 심한 고문까지 당하게 하였다.

◎ 공군 38려단 본부중대소속 1등병 초이트 헨리(20살)는 오산공군기지의

종업원인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 1600번지에 사는 정동기(16살)소년에게 트집을 걸어 면도칼로 그의 얼굴과 온몸을 찔러 중태에 빠뜨리게 하였다.

◎ 초순 4유도탄기지사령부소속 월리암이 강원도(남) 춘성군 신동면에서 앞에 가던 자동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거기에 타고있던 3명의 주민을 중태에 빠뜨리였다.

◎ 월말 미제침략군 윌슨이 경상북도 김천에서 군용차를 전속으로 몰고가다가 김천시 다수동 앞길에서 손수레를 끌고가던 금룡군 붕산면 복전동에 사는 오상수를 깔아넘기고 달아났다.

◎ 경기도 포천군 청산면일대에서 전쟁연습에 날뛰던 미제침략군이 포탄을 터뜨려 전곡국민학교 5학년에 다니는 김진관, 리광철소년들을 살상하였다.

－3월 5일

∘ 3시 30분경 7사단 3려단 3대대소속 본부중대 기술상등병 제임스 월티스(23살)와 존 브라운트(22살) 등이 부대에서 100리나 떨어진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에 있는 김화남의 집에 침입하여 먼저 잠자는 남편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실신시켰다. 그리고 이에 놀라 깨여난 안해에게 재털이를 던져 쓰러뜨린 후 면도칼로 이 부부의 목을 차례로 그어 살해하였다. 후날 이 야수들이 체포되였으나 1974년 11월 미국대통령 포드의 남조선행각시 《특사》로 풀려나왔다. (동두천의 김화남부부 살해참극)

∘ 16시 30분경 1공병대 2중대소속 상등병 죠세프는 화물차로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보주리 전양단 고개길에서 정비를 하고있던 경기영 1－309호 택시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운전사 김기영(37살)을 깔아죽이였다.

－3월 16일

∘ 3시 공군 헌병대소속 12명의 악당들은 조선인기술자숙소에 권총을 빼들고 침입하여 잠자던 기술자들을 모두 발로 차서 깨운 후 그들이 가지고있던 담배, 사진기 등 모든 소지품들을 강탈하였다.

－3월 23일

∘ 22시 30분경 통신대 1중대소속 상등병 프레스컷 디. 아이손(20살)이 서울시 가릉동 590번지에 사는 리아무개(녀자 28살)에게 시비를 걸어 그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한 다음 깊이 2m나 되는 하수도구멍에 처넣고 달아났다.

∘ 23시 40분경 31려단 2대대 3중대소속 병장 등 6명의 악당들은 대천읍 대천리 길가에서 지나가는 부녀자들을 붙잡고 희롱하는 등 갖은 추태를 다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대천읍 대천리에 사는 강순태(녀자 22살)에게 달려들어 집단구타하여 그가 정신을 잃게 하였다.

－3월 25일

◦ 23시경 병장 벨드에드겐드 외 4명의 야수들은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성은리 리발관 앞마당에서 성은국민학교 교원 리의덕(20살), 박지명(25살)을 아무 리유없이 뭇매질을 하여 심한 상처를 입혔다.

－3월 28일

◦ 오후 부산기지 야전병원소속 병장 트레이드, 1등병 예보레이가 서옥분의 집에 침입하여 옷장을 뒤져 2만 2 500여원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다.

◦ 8군 《캠프캐롤》부대소속 병장 힐 릭팁프가 경상북도 칠곡군 석용2동에 사는 장화자의 동생(20살)의 방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그가 항거하면서 고함을 질러 장화자녀성이 달려오자 그에게 달려들어 미친듯이 마구 때려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혔다.

◦ 포사령부 12포병대대소속 상등병 데레스 하빈(22살) 외 5명의 미제침략군은 경기도 포천군 포천면 시읍리에 있는 오승재(34살)의 집에 몰려가 약담배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다가 없다고 하자 집에 불을 질러 집과 11만 3 500여원의 현금을 몽땅 불타게 하였다.

－3월 31일

◦ 16시 40분경 7사단 2대대 1중대소속 병장 스티븐슨 헤롬드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4리 515번지 앞길을 개싸다니듯 하다가 김실(남자 28살)이 자기 집 대문앞을 나서자 아무 까닭없이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마구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

－4월 3일

◦ 미제침략군의 폭발물에 의해 충청북도 영동군 삼선면 약목리의 뒤산에서 땔나무를 하던 김덕환, 김태환 두 형제가 무참히 살해되였다.

◦ 7사단이 둥지를 틀고있는 부근에서 경기도 포천군 청산면 대전리에서 사는 정명옥, 김용대 등 4명의 어린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가다가 미군의 폭발물에 의하여 2명은 현장에서 죽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4월 5일

◦ 23시경 미제침략군이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석수동에 사는 조병태(54살)의 집에 큰 돌멩이를 마구 던져 문과 유리창 4개를 부셨으며 돌로 조병태의 딸 조현자(14살)의 얼굴을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

－4월 6일

◦ 19시 30분경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에 둥지를 튼 미제침략군 야수들은 대형군용화물차를 미친듯이 몰고가다가 오정면 오정리에서 집앞에서 놀고있던 정식(8살)을 깔아죽이였다.

◦ 21시 15분경 군내의 소사읍 종곡리 앞길로 자동차를 미친듯이 몰고가

던 미제침략군 운전사가 자전거를 타고가던 주민을 고의적으로 깔아죽이였다.

—4월 8일

◦ 22시 15분경 7사단 7보급수송대대 2중대소속 병장 카너(22살)가 아무리유없이 부대로무자 관천섭(44살)의 얼굴을 마구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

—4월 13일

◦ 14시 30분경 6314비행정리중대소속 병장 라미 엘. 로이스(22살)는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 제일극장 앞길에서 영화구경을 하고 나오는 강아무개(24살)에게 달려들어 희롱하려다가 그가 달아나자 마구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

◦ 7사단 7보급수송대대 2중대소속 병장 카너(22살)놈은 양기춘(35살)의 가게방에 돌을 마구 던져 유리창들을 깨고 상품들을 략탈해갔다. 이 마을에서는 밤마다 미제침략군이 살림집에 마구 돌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불안한 밤을 보내고있었다.

—4월 18일

◦ 19시경 공군헌병 월리암 제랄(20살)이 동맥동 641번지 뉴욕클럽에 들어가서 종업원 오아무개(녀자 23살)에게 달려들어 다짜고짜로 그의 얼굴을 마구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

◦ 20시 30분경 미제침략군 3명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에서 경기영 1—3111호 택시를 2시간이나 타고서도 료금을 요구하자 주변에 있던 미군 10여명과 합세하여 운전사 윤덕영(26살)과 옆에 타고있던 송학선(33살)을 집단구타하여 심한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

—4월 21일

◦ 3시 20분경 7사단소속 1등병 빈게가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대화산리 대동농장에 뛰여들어 M—16소총을 무턱대고 쏘아 방에서 잠자던 종업원 김근수(19살)를 중태에 빠뜨렸다.

◦ 16시경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리에 있는 사격장에서 미친듯이 총질을 하던 미제야수들은 사격장부근에서 산나물을 캐던 박영숙(19살)과 박순자(44살)에게 총질을 하여 중상을 입혔다.

—4월 30일

◦ 17시 10분경 2사단 7기갑대대소속 병장 들(27살) 등 5명의 야수들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 앞길에서 윤희란(38살)을 붙잡고 희롱하려다가 그가 응하지 않자 맥주병으로 그의 머리를 까고 면도칼로 얼굴과 온몸을 마구 찔러 중태에 빠뜨리였으며 이를 말리던 김호진(32살)에게도 달려들어 집단구타하여 생명을 위태롭게 하였다.

◦ 11공병대대 3중대소속 상등병 톰인 호워드 비. 리(20살)와 헨리 더블

유. 모셀(19살), 파불 제이. 호스드(22살) 등 3명은 지나가는 금오동 436번지에 사는 리만(34살)과 양주군 의정부 사동에 사는 안열선(27살)을 맥주병으로 머리를 사정없이 마구 때려 그들이 정신을 잃게 하였다.

◦ 1군단에 있는 미제야수들은 저들에게 고용된 종업원 600여명을 지뢰탐지기로 몸수색을 하였다.

◎ 12시 10분 382대대 악당들은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두포리 뒤산에다 마구 포사격을 퍼부어 12만여그루의 나무가 들어찬 37정보의 산을 몽땅 불태워버렸다.

◎ 14시 40분경 미제침략군이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골산리 소요산에다 대고 마구 총포사격을 퍼부으며 조명탄을 터뜨려 약 30정보의 산림을 불태워버렸다.

◎ 경기도 의정부에 둥지를 틀고있는 51통신대 1중대소속 아이손이 가릉동에 사는 리도금에게 달려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항거에 부딪치자 그의 얼굴과 온몸을 마구 때리고 목을 눌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깊이가 3m되는 하수도구멍에 처넣고 달아났다.

—5월 10일

◦ 인천시 학익동에 둥지를 틀고있는 유도탄부대소속 30여명의 악당들은 경기도 서울시 서대문구 아현동에 사는 리아무개(28살)를 랍치하여 부대오락실에 가두어놓고 강간하려다가 그 녀성이 필사적으로 반항하자 집단구타하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륜간하였다. 그는 온몸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5월 17일

◦ 1시 40분경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 14번지에 있는 김영자의 집에 기여든 7사단 7련대 2대대소속 병장 하이트(25살)가 더러운 수욕을 채우려다가 그가 달아나자 집에 불을 지르고 이 집에서 세방살이하는 리금주(녀자 25살)가 뛰여나오자 그를 불붙는 집에 밀어던져 태워죽이였다.

◦ 2시 30분경 미제침략군 1명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279번지에 사는 김아무개(20살)의 집에 침입하여 희롱하려다가 항거에 부닥치자 화풀이로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5월 18일

◦ 22시 500의무중대소속 1등병 바크가 서울 룡산구 리태원동 13번지 앞길에서 위생차를 미친듯이 몰다가 심제윤(37살)을 깔아죽이였다.

—5월 20일

◦ 21시경 2사단 23련대소속 3명의 악당은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장좌리 앞길에서 권의중(36살)을 아무 리유없이 집단구타하였으며 이것을 주변주민들이 말리자 30여명의 침략군을 더 끌고와서 닥치는대로 주민들을 때리고 상점

유리 40여장을 마스는 등 갖은 행패를 부리였으며 현장에 달려온 미군헌병들은 공포까지 쏴대면서 주민들을 위협하였다. 이에 격분한 마을주민 200여명이 투석전을 벌리면서 완강히 싸웠다.

—5월 23일

◦ 44포병대 4대대소속 페구스는 화물차를 몰고 익산군 함라면 함열리의 뻐스정류소앞을 미친듯이 달리다가 뻐스곁에 서있는 주민들에게 들이몰아 함라국민학교에 다니는 김용림, 김강순어린이들을 깔아죽이고 다른 주민에게는 중상을 입혔을뿐아니라 련이어 그 근처에 있는 집들을 들이받아 2채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5월 28일

◦ 밤 장비중대소속 병장 식스 월림 쥬니어(27살), 헌병대소속 병장 스코트 엠. 로버트(22살) 등이 인천시 부평동 284번지에 사는 원경순(녀자)의 집에 기여들어 록음기 1대(당시 화페로 4만원)를 훔쳐가지고 달아나다가 집주인 리상혁 등 3명의 주민들에게 발각되자 그들을 몽둥이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을뿐아니라 록음기를 돌려줄것을 요구하는 2명의 주민들에게는 권총을 쏘면서 위협공갈하였다.

—5월 29일

◦ 13시 30분경 44보급대대소속 상등병 톰린(18살)이 찦차를 몰고 마산시내를 싸다니다가 양덕동에 있는 봉덕국민학교 앞길에서 1학년생인 강영태(8살)와 박현주(8살)를 고의적으로 깔아 중상을 입혔다.

◦ 21시 40분경 7사단 73기갑대소속 무스가 경기도 포천군 청산면 대전1리에서 김옥순(31살)을 강간하려다가 그가 반항하자 화풀이로 집에 불을 질러 몽땅 태워버렸다.

—6월 8일

◦ 20시 20분경 2사단소속 화물차를 타고가던 야수들은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봉월천리 앞길에서 마주오던 서울영 5—1709호 뻐스를 향해 맥주병과 돌을 마구 던져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병원리에 사는 김영순(녀자 32살) 등 3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5명의 경상자를 냈다. 또한 맥주병으로 문영순(녀자 35살)의 얼굴을 때려 왼쪽눈알이 빠지게 하는 등 중태에 빠뜨렸다.

—6월 9일

◦ 2수송대소속 도날드가 부산시 동구 초량동 앞길에서 괴뢰군사병에게 총을 마구 쏘아대였으며 길을 가던 손아무개에게도 총탄을 퍼부어 치명상을 입혔다.

—6월 22일

◦ 14시 30분경 2사단 38포 5대대 1중대 하사관 아본이 의식적으로 경기

영 1－1154호 택시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를 말리는 운전사 유동산(29살)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여 심한 상처를 입혔다.

－6월 23일

◦ 22시 30분경 707정비대대소속 기술상등병 팬드 엘. 데이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의 정아무개(녀자 29살)의 집에 침입하여 그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후 금고를 부시고 현금 3만 8 500원을 강탈하여가지고 달아났다.

－6월 25일

◦ 22시 10분경 미제침략군 운전사가 인천시 북구 구평동 282번지 앞길에서 찦차로 인천시 남구 주아동 967번지에 사는 한보정(37살)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6월 28일

◦ 밤 《캠프캐롤》부대소속 2등병 디스톰인을 비롯한 5명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동 2129번지에 사는 박재동과 박인호의 고무신가게에 침입하여 돌, 벽돌, 몽둥이로 주인을 때려 쓰러뜨리고 신을 강탈하여가지고 달아나다가 이것을 말리는 이웃 조석함(28살)을 때리고 단도로 얼굴을 찔러 중태에 빠뜨렸으며 얼마후 다시 부대에서 20여명을 더 끌고 조석함이 입원하고있는 병원에까지 찾아가 그와 그의 어린이들까지 마구 집단구타하였으며 마을주민 김생귀(35살) 등 2명을 때려눕혔다.

◎ 초순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에서 전쟁연습에 광분하던 미제침략군이 박격포를 쏘아 리정례 등 4명의 어린이들중 1명을 즉사시키고 3명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 초순 전쟁연습에 미쳐날뛰던 미제침략군의 포탄에 의하여 경기도 려주군 대신면 천서리의 학교에서 돌아오던 4명의 소년들중 2명은 죽고 2명은 치명상을 입었다.

◎ 전라북도 옥구지방에 도사린 포병련대소속 베이비스가 옥구군 옥산면 사정리 거리에서 화물차를 미친듯이 몰고가다가 고아무개(남자 60살)를 고의적으로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7월 2일

◦ 새벽 공병단소속 상등병 오브레이(24살), 레이트러 날드(21살) 등이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앞길에서 김순배(30살)가 운전하는 경기영 1－907호 택시를 타고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까지 와서 운전사의 목에 칼을 대고 위협한 후 그가 가지고있던 돈을 몽땅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7월 9일

◦ 밤 경기도 평택에 둥지를 튼 80여명의 야수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이곳 주민들을 닥치는대로 마구 찌르고 때리였다.

— 7월 11일

◦ 7시경 미국선박 《빅토리아》호의 1등전기사 루시엔 엘. 버트(55살)가 부산시 초량동의 국민은행 부산 북구지점 앞길에서 운전사 서장삼(30살)이 운전하는 부산영 1—263호 택시를 3시간이나 타고는 료금도 내지 않고 달아나다가 운전사에게 잡히게 되자 그를 부산항에 정박중인 자기 배로 끌고가 선실에 가두어놓고 매질을 가하여 쓰러뜨렸다.

◦ 23시경 8군 본부중대소속 1등병 존 네르벤을 비롯한 8명의 악당들은 서울시 룡산구 한강로 1가에 사는 장아무개(19살)를 랍치하여 부대병실에서 륜간하였다.

— 7월 17일

◦ 23시 8군 502통신대소속 중사 스테이션 씨. 제임스(36살)는 서울 룡산구 한강로 1가에 사는 한희순(30살)의 손을 비틀고 그가 가지고있던 10US$를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 7월 27일

◦ 17시 20분경 7사단 2련대 본부중대소속 2등병 빅타이어 윌렴(21살)이 서대문구 갈현동 305—28번지의 국민은행 갈현지점 앞길에서 화물차로 자전거를 타고가던 서대문구 대조동 123—5번지에 사는 금성빵끼사 종업원 송재길(17살)을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 경기도 동두천읍에서 미군병사 존이 권아무개 녀성의 집에 뛰여들어 릉욕하려다가 반항에 부딪치자 그를 때려 피투성이로 만들고 오른팔까지 꺾어놓고 달아났다.

◎ 미군병사 랜드가 정아무개(녀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온몸을 군화발로 마구 차고 때려 정신을 잃게 한 후 돈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 8월 1일

◦ 8시 전략통신대대소속 2명은 충청남도 대덕군 산내면 대성리 식장산에서 사냥하다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있던 대전시 가오동 81번지에 사는 현영태(33살)와 임신 6개월이 된 그의 처 리정애를 과녁삼아 총탄을 퍼부어 2명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 8월 3일

◦ 3시경 7사단 71포병대 2중대소속 상등병 에드워드 메이어(23살)는 황경자(녀자 22살)가 자기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고 달려들어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면도칼로 위협하면서 그의 머리칼을 깎고 마구 때려 정신을 잃게 하였다.

— 8월 8일

◦ P.X. 본부 야수들은 국제관광공사 동두천 아리랑택시영업소의 김택순

등 27명의 운전사들이 택시운행을 방해하는 미군헌병들의 폭행을 중지하도록 요구한다고 하여 오히려 20여명의 헌병들을 불러다가 운전사들을 마구 때리고 구두발로 차는 등 집단구타하였으며 지어 그들의 목을 조르고 손발을 꺾어 심한 부상을 입힌 다음 강제로 헌병대로 끌고가서 고문을 들이대였다.

－8월 10일

◦ 낮 40수송대소속 운전사가 대형화물차를 몰고 서울시 영등포구 네거리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달려 신호를 기다리던 서울영 1－6738호 택시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운전사 정태홍(34살)과 학생 리영숙을 깔아 죽이였으며 로인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8월 17일

◦ 9시경 2사단소속 311호 군용차를 몰던 야수가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룡원리에서 마주오던 문산－서울 대성려객소속 경기영 5－5020호 뻐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승객 31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8월 22일

◦ 6시 20분경 부산진구 부전동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군부대 하사 다텐렌레스(23살)는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55번지에 사는 허봉애(33살)를 랍치하여 병영내 702호 건물안에 있는 숙소에 가두어넣고 겁탈하려다가 반항하자 그의 목을 달아매고 마구 때려 무참히 살해하였다.

－9월 3일

◦ 새벽 미제침략군 1명은 경상북도 달성군 가창면에 사는 김만금(녀자 38살)의 집에 뛰여들어 칼과 망치로 위협한 후 현금과 금품 5만원어치를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9월 11일

◦ 9시경 5헌병대소속 1명은 찦차를 타고 달리다가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택시의 뒤를 고의적으로 4차례나 들이받아 차뒤부분을 파손시킨 후 택시운전사 오선빈을 권총으로 쏴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마구 때려 심한 상처까지 입히고 달아났다.

－9월 28일

◦ 23시 40분경 4유도탄사령부 1중대소속 상등병 마리 미스(22살), 1등병 월슨이 강원도(남) 춘천시 소양로 3가 95－5번지 신도소리사 주인 신관권(40살)에게서 꾸어쓴 15만원을 물지 않기 위하여 그를 부대안으로 꾀여들여 쓰러뜨리고 칼로 위협하여 자기들이 서명한 69만원의 현금거래채용증을 빼앗았다.

◎ 초순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 앞길에서 6명의 미군야수들이 길가던 서울의 한 대학생에게 생트집을 걸며 희롱을 하고 모욕하던 끝에 초소에까지

끌고가서 다른 놈들과 합세하여 곤봉으로 마구 때려 머리와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히였다.

—10월 8일

◦ 13시경 공병단 2중대소속 하사 메시 티. 제임스(42살)는 서울시 론현동에 사는 리필순(24살)의 집에 침입하여 희롱하려다가 그가 항거한다고 하여 그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혔다.

—10월 10일

◦ 18시 30분경 7사단 73땅크대대소속 병장 브라운 등 7명의 악당들은 경기도 포천군 정산면 대전 1리 길가에 세워둔 서울차 2—5825호 승용차를 운전사가 있는데서 《조선놈의 차 건방지다.》고 몽둥이로 쳐서 차체와 창유리 등을 파손시켰다.

—10월 13일

◦ 8시 30분경 병참수송대대 2중대소속 203호 화물차를 몰고가던 한 야수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향양리 앞길에서 학교로 가는 문산녀자중학교 1학년 정선후(14살)학생의 머리에 맥주병을 마구 던져 그를 중태에 빠뜨리고 달아났다.

—10월 16일

◦ 미제침략군 병사 30여명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운천리에서 서로 패싸움을 벌리다가 작전용가스연막탄을 살림집들에 마구 던져 리봉조(36살)를 비롯하여 200여명의 주민들이 가스중독으로 질식되여 쓰러지거나 대피하게 하였다.

—10월 20일

◦ 20시경 36공병대대 본부중대소속 상등병 메츄스(20살)는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15번지에 사는 로동자(17살)가 공장에 야간작업을 하러 가는 것을 길가에서 붙들고 강간하려다가 그가 항거해나서자 천막끈으로 목을 졸라 죽이였다.

—10월 21일

◦ 20시 30분경 통신 1중대소속 병장 코란렌스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에 사는 리미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를 강간하려다가 항거해나서자 칼로 그의 얼굴과 온몸을 마구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10월 22일

◦ 21시 20분경 2등병 크레포드 삐치야신이 경기도 평북군 팽성면 안정리 39번지에 사는 김홍자(25살)의 집에 뛰여들어 릉욕하려다가 그의 완강한 반항에 부딪쳐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화풀이로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10월 24일

◦ 19시 부산시에 둥지를 틀고있는 상등병 그린 앤드슨과 상사 리챠드스 메리 등 3명의 야수들은 자기 부대앞을 지나가는 벙어리처녀 리아무개를 강제로 병영창고에 끌고가서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다음 륜간하였다.

—10월 30일

◦ 19시 45분경 장거리통신단 2대대 2중대소속 에드워드 캔(29살)을 비롯한 5명은 경상북도 대구시 교동 49번지 마산려인숙 앞길에서 길가던 대구시 신암동 3구 1098번지에 사는 김영남에게 달려들어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하였으며 그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집단구타하여 그의 얼굴을 찢고 이발을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혔다.

—11월 2일

◦ 1시경 하사 제임스 쇼트(33살)는 충청남도 대덕군 부견 장동리 4구 소재성의 집에 살고있는 권순복의 방에 침입하여 외투를 비롯하여 4만 6 000원의 옷가지를 훔쳐가지고 달아났다.

—11월 10일

◦ 23시 20분경 미제침략군 6명은 서울 룡산구 한강로 1가에 있는 8군 1호 정문앞에서 서울영 1—1702호 택시를 세워놓고 2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3명은 뒤좌석에, 1명은 앞좌석에 올라탄 후 단도와 면도칼을 운전사 김병호의 목에 들이대고 1만원이 들어있는 그의 돈주머니를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11월 15일

◦ 18시 30분경 8군 40여명의 야수들은 경상남도 창원군 창원면 차용리 167번지에 있는 칠성홀에 밀려들어 전날밤 이 홀에서 저들의 흑인병사 14명으로부터 백인병사 2명이 얻어맞은것을 트집잡아 홀안에 있는 난로, 의자, 탁자, 진렬장, 축음기 등 비품과 전등을 모두 파괴하여 52만여원의 손해를 입혔을뿐아니라 주인 리환우와 종업원 김경옥을 집단구타하여 심한 상처를 입혔다.

—11월 16일

◦ 19시경 43공병대소속의 50여명의 미제침략군은 경상남도 창원군 창원면 내동리에 있는 설주근의 잡화상점에 침입하여 란동을 부리면서 상점과 진렬상품을 마구 부셔 잡화점을 완전히 파괴하고 상품을 강탈해가는 등 69여만원의 피해를 입혔으며 이를 말리던 상점주인까지 때려 중태에 빠뜨렸다.

—11월 21일

◦ 헌병중대 49명의 헌병들은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가야 2리 《한국보이스카웃 파주지구대》의 막사에 침입하여 단원 리호경을 비롯한 10여명을 0℃이

하의 추운 밖으로 내쫓고 이들이 쓰고있던 침구, 식사도구, 야영장비 등 막사비품을 모두 강탈해갔다.

◎ 충청북도 옥천군 천성면에서 군용차를 미친듯이 몰고가던 미제침략군 슬레트가 길을 가던 안아무개 농민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즉사시켰다.

◎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에서 7사단 10기갑련대소속 로버트는 군용자동차로 임아무개 녀성을 고의적으로 깔아 중상을 입히였다.

◎ 경기도 양주군에 도사리고있는 미제침략군 토플레튼이 동두천읍 보산리에 사는 강아무개 녀성의 집에 뛰여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항거에 부딪치자 목을 누르고 척추를 꺾어놓았다.

◎ 44포병대 4대대 6포대소속 브라운 칼 등 2명의 야수들은 경기도 인천시 부평동에 사는 한 녀성의 집에 뛰여들어 옷과 살림도구를 비롯한 집안의 물건들을 몽땅 훔쳐가지고 달아났다.

―12월 6일

◦ 1시경 미제침략군 1명은 경기도 의정부시 가릉3동 앞길에서 경기영 1―3985호 택시에 올라 운전사 김병서를 위협하고 현금 6 400원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12월 19일

◦ 23시 40분경 239비행중대 소속 병장 카치슨 아이엘 등 3명의 야수들은 경기도 의정부시 가릉동 225번지 박순국의 집에 세들고있는 최순화(32살)와 다른 한 녀성에게 달려들어 겁탈하려다가 항거에 부딪치게 되자 그들을 때리고 온몸을 칼로 찔러 피투성이가 되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그들의 몸을 뒤져 현금 2만원과 손목시계 1개 등을 털어가지고 달아났다.

―12월 23일

◦ 23시 20분경 라지오케블대대 2중대 1등병 필린스 놀만, 상등병 루신 죠니, 1등병 스미스 죤을 비롯한 18명은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 33번지 앞길에서 심심풀이로 길을 걷고있던 성북구 삼선동에 사는 리호연에게 악수를 하는척 하다가 갑자기 얼굴을 때리고 칼로 배를 찔러 중상을 입혔으며 이를 말리는 룡산구 보관동에 사는 리천수에게도 달려들어 칼로 얼굴과 몸을 마구 찔러 중상을 입힌 다음 근처에 서있던 서울영 2―2293호 택시운전사 유병수도 때리고 칼로 위협한 후 현금 6 500원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12월 28일

◦ 0시 10분경 미제침략군 1명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성운수소속 고종철이 운전하는 경가영 1―4030호 택시를 훔쳐타고 달아나다가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4리 541번지 황학연의 집을 들이받아 집과 차를 파손시켜 20여만원의 피

해를 입힌채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 충청남도 대덕군일대에 돌아치던 제임스 쇼트가 군내 북면에 사는 권아무개의 집에 뛰여들어 집안물건을 모조리 훔쳐가지고 달아났다.

◎ 1970년 1～5월말까지의 사이에 미제살인귀들의 살인, 강간, 방화, 강도 등 만행사건들중 알려진것만 하여도 58건에 달하였다.

◎ 1970년 1～10월사이에 경기도 인천시 부평동에서만도 미제침략군이 50여건이나 각종 범죄를 감행하였다.

◎ 특수암호 OL그룹으로 불리우는 《고아로동자단》은 미제가 비밀공사건설을 위하여 18～25살의 고아들 700여명을 비밀리에 붙잡아다가 1970년을 전후하여 조작한 로동자집단이다.

미제는 이 《고아로동자단》을 미제침략군 사령부관내와 춘천, 동두천, 대구 등지의 특수비밀군사기지건설에 내몰아 그야말로 마소와 같이 부려먹었으며 공사가 끝나면 《비밀보장》을 구실로 한명도 남김없이 집단적으로 학살하군 하였다.

1971년

－1월 9일

◦ 미제침략군 워커가 산곡동주변에서 한 녀성을 강간하려다가 항거하자 그를 마구 때려 중태에 빠뜨리고 달아났다.

－1월 10일

◦ 밤 304통신대대소속 상등병 스피리트 알브트, 1등병 죠이 심프슨 등은 서울시 룡산구 한강로 앞길에서 김명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가다가 그를 위협하고 현금 1만원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1월 12일

◦ 인천시에 도사리고있는 미제침략군 더케리가 부평동에 사는 리아무개를 희롱하려고 달려들다가 반항에 부딪치자 구멍탄집게로 그의 눈을 찔러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1월 13일

◦ 9명의 미제야수들은 인천시 산곡동주변에서 사는 한 녀성에게 달려들어 그를 강간하려다가 반항하자 그의 가슴을 칼로 찔러 죽이였다.

－1월 14일

◦ 밤 미제침략군 브라운은 경기도 인천시 부평동의 김아무개의 집에 뛰여들어 집에 얹혀사는 선아무개 녀성을 강간하려다가 반항하자 집에 불을 질러놓고 달아났다.

－1월 21일

◦ 19시 30분경 미제침략군 1명은 찦차를 타고 충청남도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앞을 지나가다가 길옆에 세워놓은 한발택시소속 충남영 1－864호 운전사 강상기(32살)의 택시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3만 2 000여원의 손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1월 30일

◦ 10시 15분경 2사단소속 1－23호 화물차를 몰던 악한이 경기도 파주군 원룡면 의정리 앞길에서 경기영 5－2204호 뻐스를 들이받아 3m 언덕아래로 굴러떨어뜨려 승객 1명을 숨지게 하고 25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 초순 서울시 영등포구 동촌동 앞길로 자동차를 몰고 미친듯이 달리던 미제침략군 리챠드는 손수레를 끌고가는 소년을 고의적으로 깔아죽이였다.

◎ 초순 전라남도 승주군 쌍안면에서 미제야수가 학교로 가는 정아무개 소년을 자동차로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치명상을 입혔다.

◎ 경기도 의정부시에 도사리고있는 1군단 36공병대소속 테리야담 매쳐는 밤일을 하러 일터로 가던 춘천직물공장 로동자 강아무개를 강제로 마을뒤산에 끌고 올라가 수욕을 채우려다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죽이였다.

◎ 병기대소속 휘워드 등 2명의 야수들은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에서 길가던 김아무개에게 달려들어 릉욕하려다가 반항하자 그를 때려 실신케 하였으며 그를 구원하여 업고간 주민의 집에까지 따라가 갖은 행패를 부리던 끝에 불까지 놓고 달아났다.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면에서 아으코레는 잠자는 녀성의 집에 뛰여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반항에 부딪치자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물앙골 산골짜기에서 군사연습에 미쳐날뛰던 미제침략군이 산에 나무하러온 4명의 녀성들에게 로케트포탄을 들씌워 김옥자, 류정순은 즉사시키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 충청남도 론산군 련무읍에서 전쟁연습에 돌아치던 미제침략군이 학교에 다니는 한 소년에게 수류탄을 던져 치명상을 입혔다.

－2월 2일

◦ 16시 20분경 44공병대대 1중대소속 허만 시스, 미첼 베이먼더 등 7명의 야수들은 경상남도 창원군 창원면 반계리 죽전부락에서 강정수(48살) 등 20여명의 농민들이 농악놀이를 하고있는것을 보자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어 강정수 등 4명을 마구 찔러 심한 상처를 입혔으며 리윤수(42살) 등 16명의 농민들도 닥치는대로 칼로 찔러 부상을 입혔다.

－2월 13일

◦ 23～24시사이에 여러명의 미제침략군이 937호 화물차를 몰고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에 침입하여 전태욱(59살), 연구칠, 임영재, 림양호,

서용덕 등 5세대의 소 6마리(54만원어치)를 훔쳐 자동차에 싣고 서울—부산 사이 도로를 따라 대전방면으로 달아났다.

2월 14일

◦ 19시 10분경 부평에 둥지를 틀고있는 보급창 1중대소속 브라운(31살)이 경기도 인천시 북구 부평동 284번지에 사는 손아무개(녀자 24살)의 집에 뛰여들어 강간하려다가 그가 달아나자 화풀이로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쳐 5세대의 살림집을 몽땅 불태워 2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2월 18일

◦ 20시 50분경 9련대 2대대 1중대소속 상등병 베치스 제리(20살) 등 2명의 야수들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운천리 69번지에 사는 리귀순(24살)의 집에 침입하여 륜간하려다가 그가 몸을 피하자 최루탄을 집에 마구 던져 민가를 파손시키고 주변을 연막으로 뒤덮이게 하여 옆집에 사는 김옥화 등 200여명의 주민들이 산으로 대피하는 소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2월 27일

◦ 20시 50분경 46수송대소속 15호 화물차를 몰던 야수가 군용차를 몰고가다가 서울 서대문구 록번동 50번지 네거리에서 같은 동 1001번지에 사는 리광수(35살)의 딸 리명자(7살)를 깔아죽이였다.

—2월 28일

◦ 19시 30분경 미군악당이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426번지에 있는 식당에 최루탄을 던져 비품을 파괴하고 유리를 깨였으며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리게 하는가 하면 20시경에는 연풍리 406번지에 있는 김만순(50살)의 집에 최루탄을 던져 집을 파괴하고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

◎ 미제야수가 경상남도 김해군 김해읍에서 화물차로 60이 다 된 로인을 고의적으로 깔아죽이였다.

◎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문산리에서 2사단 공병대소속 딕슨이 자동차를 잡아타고는 료금을 요구한다고 하여 운전사를 2시간이상이나 차고 때려 반죽음을 만들었다.

◎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에서 미제야수가 찝차를 몰고가다가 길가는 주민을 깔아 그의 팔다리를 꺾어놓고 달아났다.

◎ 경기도 파주일대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부대의 한 야수가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 앞길로 자동차를 몰고가다가 길옆에 자전거를 세우고 서있는 리아무개(남자)를 고의적으로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3월 4일

◦ 20시 30분경 병장 스프르 챨리스(20살), 하사 브룩스 클르스앞(28살),

반스 비. 도벌브(28살) 등은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 268번지 김효근(46살)의 상점에 침입하여 물건을 흥정하는척 하다가 주인의 처 오준해(42살)를 돌로 까눕히고 물건들을 강탈해갔으며 23시 30분경 하사 브룩스와 하사 반스가 다시 와서 상점주인 김효근을 주먹으로 때리고 군화로 마구 짓밟아 실신시킨 후 유리창, 상품 등을 모조리 부시고 달아났다.

◦ 21시 15분경 8군 168의무대대 567위생차중대소속 15호 차를 몰던 상등병 반올 곤제리디가 서울시 성북구 도봉동 195번지 앞길에서 길가는 도봉동 99번지에 사는 하금자(녀자 16살)와 정몽오(녀자 19살)를 보고 차를 고의적으로 그쪽으로 몰아 그들을 깔아죽이였다.

—3월 13일

◦ 2시경 미군병사 1명은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 18번지 최아무개집에 뛰여들어 동거하는 리은희(26살)의 방에 침입하여 겁탈하려다가 그가 완강히 항거하자 화풀이로 집에 불을 질러 50만원의 손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3월 15일

◦ 23시경 347전술비행대 1파견대소속 병장 포요(27살)는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 제일극장 앞길에서 지나가는 한범의(40살)에게 아무 리유없이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리다가 성차지 않아 벽돌로 까서 심한 상처를 입혔다.

—3월 18일

◦ 22시경 미제침략군 4명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운천리에서 경기영 1—3887호 택시를 타고가다가 운전사 정운교(22살)의 목을 조르고 현금 6 200원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3월 19일

◦ 20시경 뻐스를 몰던 한 양키가 대구시 대봉동 3구 세희려관 앞길에서 이곳을 지나가던 경상북도 대구시 대봉동 407번지에 사는 윤경함(녀자 22살)을 보자 차창을 열고 그의 뺨을 때리고 차옆으로 끌어당겨 차에 치우게 하여 중태에 빠뜨리고 달아났다.

—3월 23일

◦ 16시경 75포대소속 텐델헤리는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앞길에서 화물차로 앞에 달리던 최영흥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27m나 되는 언덕아래로 굴러떨어뜨려 운전사 외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3월 28일

◦ 23시경 80포대 5대대 2중대소속 1등병 홀린스스 엘. 두환인 외 1명은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룡암리 앞길에서 경기영 1—582호 택시운전사 조남홍(37살)을 식칼로 위협하여 현금 8 000원을 빼앗고 그를 차밖으로 밀어던진

후 차를 몰고 달아났다.

◦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살인귀들의 폭발물로 하여 박경수(11살)가 숨지고 다른 2명의 어린이들은 중상을 입었다.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도림국민학교에 다니는 최득수(13살)가 녀동생 최선희와 마을에서 놀다가 미제침략군의 폭발물에 의하여 치명상을 입었다.

◎ 경기도 인천시 송현동에서 부평국민학교에 다니던 7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전쟁연습에 광분하는 미제침략군의 폭발물에 의하여 살상당하였다.

◎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에서 5명의 어린이가 칡뿌리를 캐러갔다가 미제침략군의 연막수류탄이 터져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 강원도(남) 춘성군 신동면에서 전쟁연습에 광분하던 미제침략군의 박격포탄에 의하여 나어린 학생 1명이 무참히 살해되였으며 4명은 치명상을 당했다.

◎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지산리 큰길에서 공군소속 1명이 지나가는 자동차에 돌을 던져 운전사와 거기에 타고있던 주민들에게 중상을 입히고는 이에 항거하는 그들에게 또다시 돌을 던지였다.

◎ 2사단 9련대 패티스 재리 외 1명이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은천리에 사는 리아무개를 겁탈하려고 집에 달려들었다가 그가 몸을 피하자 집안에 최루탄을 던져 주민들까지 질식시켰다.

◎ 8군 44공병대소속 1명은 마산시 월영동에 있는 진아무개(녀자)의 상점에서 물건을 가지고는 값을 내라는 그를 마구 때려눕히였다.

◎ 미제침략군놈은 동두천읍 보산리에 사는 정아무개 녀성의 집에 뛰여들어 그를 묶어놓고 물건을 모조리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 미제침략군이 1970년 10월~1971년 3월사이에 마산에서 감행한 만행은 19건, 피해자는 32명에 달한다.

-4월 4일

◦ 21시 45분경 미제침략군 3명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 477번지에 있는 궁전다방의 지붕과 내부에 연막탄 2개를 던져 유리창 10여장과 지붕일부를 파손시켰으며 다방에 있던 손님 20여명이 대피소동을 벌리게 하였다.

-4월 11일

◦ 23시경 미제침략군 1명은 성북운수소속 경기영 1-101호 택시를 잡아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운전사 원병상(22살)을 칼로 찔러죽이였다.

-4월 12일

◦ 20시 40분경 병장 존 밀러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의 한 식당안에 수류탄을 던져 홀안을 파괴하고 김영자(녀자 23살)에게 심한 상처를 입혔다.

◦ 21시 30분경 미제침략군 40여명이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연풍극장앞에서 패싸움을 벌리다가 한패거리가 쫒겨 극장안으로 들어가자 다른 패거리들이 몽둥이와 칼을 뽑아들고 뒤쫓아들어가 싸움을 벌림으로써 영화상영이 중지되고 500여명의 관람자들이 대피하는 등 극장안이 대수라장으로 되였다.

◦ 24시경 7명의 야수들은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 오정리 앞길에서 경기영 1－953호 택시를 타고가다가 불의에 운전사 백귀장(22살)의 목을 졸라매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현금 3 000원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4월 13일

◦ 19시경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에 둥지를 틀고있는 《캠프 험프리즈》소속 100여명의 야수들은 떼를 지어 싸다니다가 리용선(33살)이 경영하는 식당에 뛰여들어 아무 리유없이 비품을 마스고 몽둥이로 마구 사람들을 때려 10여명의 종업원에게 중상을 입힌 후 다시 3개의 식당에 뛰여들어 비품과 문 등을 모조리 마슨 후 휘발유를 뿌리고 불까지 놓았다.

－4월 25일

◦ 20시 15분경 30여명의 야수들은 길가에서 온갖 추태를 부리면서 돌아치다가 경기도 평택군 송탄면 지산리 조원백(43살)이 경영하는 대원당구장에 떼를 지어 몰려가 아무 리유없이 유리창과 비품을 마구 짓부시고 당구를 치고있던 4명의 주민들에게 달려들어 집단구타하여 타박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4월 30일

◦ 23시 30분경 미제침략군 1명은 서울시 서대문구 록번동 7번지 앞길에서 자동차를 몰고 미친듯이 달리다가 길가는 서울시 서대문구 불광동 280번지에 사는 리창복(43살)을 깔아죽이였다.

－5월 10일

◦ 밤 경기도 려주군 패서면 변도리에 주둔한 44포병부대 4대대 4중대소속 스펜올린을 비롯한 10여명의 악당들은 마을에 이리떼처럼 쓸어들어 7시간동안이나 돌을 던져 20여채의 집들의 유리들을 모조리 깨고 굴뚝과 담벽들을 들부시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혔다.

－5월 12일

◦ 17시 50분경 해군소속 월리암이 서울 서대문구 록번동 21번지 앞길에서 위생차를 몰고가다 길가는 65살가량의 로인을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 경상남도 창원군에 도사리고있는 미제침략군 알 타마트위스가 대낮에 창원면 반계리에 사는 성미경의 집에 뛰여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반항하자 구두발로 마구 차고 몽둥이로 때려 중상을 입혔을뿐아니라 이웃에 사는 구아무개(녀자)가 항거하자 그에게도 달려들어 야수적폭행을 가했다.

－5월 22일

◦ 21시경 40여명의 악당들은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 1036번지 식당에 뛰여들어 종업원 7명을 집단구타하였다.

◦ 23시경 병장 네오네(21살) 등 3명의 야수들은 충청남도 천원군 성함면 수향리에서 지나가는 이곳 마을에 사는 허병화 등 2명에게 아무 까닭없이 달려들어 집단구타하여 중태에 빠뜨렸다. 이것을 본 3명의 마을사람들이 부대장에게 항의를 들이대자 이자는 《너희들이 사는 집은 부대땅이니 불도젤로 밀어버리겠다.》고 폭언을 던지였다.

－5월 25일

◦ 14시경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에 있는 공병대대의 보초 상등병 하반스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경기영 1－3400호 오물차에 타고있던 6명의 로동자들을 향하여 M－16소총을 마구 쏴대면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였다.

－6월 7일

◦ 경상북도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서 2078통신대대소속 레인 등 2명은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서는 료금도 내지 않고 달아나려다가 운전사가 붙잡고 항거하자 그를 때려눕혀 치명상을 입혔다.

－6월 22일

◦ 19지원단소속 헌병들은 아무 리유없이 부대에 고용된 녀성로동자들의 몸을 뒤지고 소지품을 빼앗았으며 이에 항거하는 남성로동자들을 잡아다 폭행을 가하였다.

◎ 초순 서울시 룡산구 이촌동에서 미제침략군 던컨이 군용차로 길가에 서있던 3명의 주민들을 들이받아 치명상을 입혔다.

◎ 초순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오산리에서 6170전투지원대대소속 카레이가 자전거를 타고가는 박광용을 자동차로 들이받아 치명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7월 9일

◦ 밤 경기도 평택에 둥지를 틀고있는 K－6기지소속 80여명의 미군이 집단적으로 칼과 몽둥이를 휘둘러대면서 무고한 주민 900여명이나 단꺼번에 중경상을 입히였으며 또다시 달려들어 50여명의 주민들을 칼과 몽둥이로 때려눕히였다.

－7월 11일

◦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읍내리에서 미군 4명이 길가는 주민에게 까닭없이 시비를 걸어 뭇매를 가하고 이것을 규탄하는 한 청년을 칼로 찔러죽이였다.

－7월 13일

◦ 21시경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에서 2사단소속 포웰이 한 녀성을 붙잡고 희롱하였으며 그의 추악한 행위를 규탄하는 한 학생을 미친듯이 차고 때려 피투성이로 만들어놓았다.

－7월 14일

◦ 대낮에 경기도 파주군일대에 둥지를 튼 미군이 군내 림진면 문산리에 쓸어나와 연막탄과 다이나마이트를 마구 터뜨리면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였다.

◦ 경상남도 창원군 창원면 반계리에서 미군병사 바이드가 윤덕군의 집에 뛰여들어 세방살이를 하는 한 녀성에게 달려들다가 그 집식구들과 마을주민들이 항거하자 그들에게 벽돌을 던져 심한 부상을 입혔다.

－7월 16일

◦ 1시경 미제침략군 빠리 죤스가 충청남도 대덕군 북면 장동리에 사는 김영순의 집에 뛰여들어 그를 릉욕하려다가 거절당하자 때려죽이였다.

◎ 경상남도 창원군 창원면에서 7명의 미제야수들이 부락에 뛰여들어 20여명의 농민들을 칼로 닥치는대로 마구 찔러 중상을 입혔다.

◎ 미군 40여명이 서울시 리태원동에서 한 집에 뛰여들어 7명을 집단구타하여 중태에 빠뜨렸다.

－8월 2일

◦ 밤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에서 대낮부터 읍내거리를 돌아치면서 밤늦게까지 략탈을 일삼던 5명의 야수들은 살림집들을 향해 돌을 던져 가장집물들을 파괴하였다.

－8월 9일

◦ 13시 40분경 미제침략군 운전사가 경기도 인천시 북구 청천동 241번지 앞길에서 대형화물차를 미친듯이 몰고가다가 마주오는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리 865번지에 사는 김정태(25살)를 즉사시켰으며 뒤이어 다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거기에 타고있던 정홍성(25살)을 깔아죽이였다.

－8월 18일

◦ 2려단 소속 미제야수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광암리에서 한 녀성을 리유없이 때려 심한 부상을 입혔다.

◦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광암리에서 미제야수가 이곳 음식점에 뛰여들어 실컷 먹고는 료금을 요구하는 김정순(녀자)에게 《값이 비싸다.》는 트집을 걸어 그를 밖으로 끌어내여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고 건물까지 마구 파괴하였다.

◎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객사리에서 미군운전사가 길을 가는 강석구어린이를 고의적으로 깔아죽이였다.

◎ 경기도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서 미군야수는 박아무개 로동자에게 생트집을 걸다가 그가 항거하자 그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구두발로 걷어찼다.

—9월 3일

◦ 판문점근처에 있는 다리목에서 경비를 서던 미군 6명이 북남적십자단체 파견원들의 력사적인 접촉장면을 취재하려던 《조선일보》 림아무개 기자를 붙들고 폭행을 가하고 사진기를 빼앗았으며 련이어 《중앙일보》의 리아무개 기자에게 달려들어 사진기와 필림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면서 촬영기재들을 빼앗았다.

—10월 11일

◦ 평택군 서탄면에서 미군운전사가 이 부근에서 사는 유관혁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다.

—10월 13일

◦ 평택군 평택읍 비정리 앞길로 자동차를 몰고가던 미제야수가 자전거를 타고가던 고종환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그를 죽이였다.

◎ 경상북도 대구시 봉덕3동 거리를 싸다니던 미제침략군 3명이 2명의 처녀들에게 달려들어 희롱을 하고 강제로 싣고 끌고가려다가 주민들에 의하여 징벌을 받았다.

◎ 월말 서울에서 미군 7명이 머루 따러 산에 오른 임신 8개월이 된 녀성을 희롱하고 반항하는 그를 뭇매질을 하여 중태에 빠뜨렸으며 돈까지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11월 2일

◦ 경기도 의정부시 앞길에서 미군운전사가 찦차를 미친듯이 몰고가다가 두 소년을 고의적으로 깔아죽이였다.

—11월 12일

◦ 밤 부산에서 2수송단소속 끄린모드 등 15명의 야수들이 부산시 동구 초량동의 한 식당에 쓸어들어와 횡포를 부리다가 접대원들을 칼과 깨진 술병으로 마구 찌르고 기물들을 파괴하고 달아났다.

—11월 17일

◦ 공군 6311수송부대소속 하워드 폴이 앞에서 주민들이 가는것을 보고도 미친듯이 차를 몰아 영등포구 시초동에 사는 진일봉을 고의적으로 깔아 치명상을 입혔다.

◎ 초순 동래구 해운대에서 군수물자수송을 감시하던 헌병 스나이트 크

라스가 고된 로동에 지친 로동자가 비틀거린다 하여 그에게 달려들어 피투성이가 되도록 차고 때리였다.

◎ 초순 부산시에 둥지를 틀고있는 보급창 본부중대소속 캄트 월터가 동구 범제5동에 사는 한 녀성을 겁탈하려다가 반항하자 그를 사정없이 때려눕히였다.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앞길에서 통신대소속 한 야수가 길가에서 놀고있는 어린이(7살)에게 고의적으로 차를 몰아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가곡리 앞길로 오토바이를 미친듯이 몰고가던 6314비행대대소속 데이비드가 길가던 김동학로인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다.

◎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비전리 앞길로 화물차를 몰고가던 운전사가 이 지역에서 사는 고아무개를 고의적으로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 1971년 1～9월사이에 괴뢰당국이 축소하여 발표한데 의하면 미제침략군이 남조선 도처에서 감행한 만행건수는 무려 1 324건이나 되였다.

◎ 1971년 1～10월사이에 부산지방검찰청이 부산일대에서 감행된 미군의 범죄건수를 극히 축소하여 공개한데 의하더라도 1970년보다 거의 2배로 늘어났다. 그중에서도 무고한 주민들을 쏘아죽이고 깔아죽이고 중상을 입힌 만행건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972년

－1월 18일

◦ 강원도(남) 철원군 서면 자동리에서 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던 미제침략군의 로케트포탄에 의하여 3명의 소년들이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다.

◦ 서울에 둥지를 틀고있던 쓰엘 웰드가 귀중한 문화유물 30여점을 훔쳐가지고 미국으로 내빼려다가 부산에서 덜미를 잡히였다.

－1월 19일

◦ 경기도 인천시 북구 부평동의 한 음식점앞에서 93통신대대소속 다랜, 엔드 류마크 등은 길가는 김무응에게 까닭없이 시비를 걸면서 뭇매를 안겨 중상을 입혔다. 그리고도 성차지 않아 지나가는 자동차에 돌을 던져 운전사에게도 심한 부상을 입혔다.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앞길로 자동차를 몰고 미친듯이 달리던 8군 83병기대대소속 살인귀가 길가는 김덕응을 깔아죽이였다.

◎ 142헌병대소속 암스트롱 등 2명의 야수들은 부산시 동구 초량동의 길가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하는 송정덕에게 불시에 달려들어 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내리치고 팔을 비틀어 꺾어놓았다.

◎ 경기도 의정부시 자금동 앞길에서 자동차를 미친듯이 몰고가던 미제침략군이 자전거를 타고가던 박계동의 형제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형은 그자리에서 숨지고 뒤에 탔던 동생은 치명상을 입었다.

◎ 경기도 수원시 신풍동 앞길에서 군수물자를 실은 화물차를 몰고가던 8군 83병기대대 7중대소속 지브스 톨레즈가 길가던 박종태를 고의적으로 깔아 중상을 입히였다.

◎ 찦차를 몰고 부산－마산사이 도로를 미친듯이 질주하던 44공병대대소속 운전사 암스트롱 브리안은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 여래리 앞길에서 리춘영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 강원도(남)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에서 전쟁열에 광분하고있던 미제침략군의 로케트포탄에 의하여 8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다.

◎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일대에 둥지를 틀고있는 307통신대대 1중대소속 8명의 야수들이 이곳 고강리에서 싸다니다가 김영욱, 김인걸에게 시비를 걸어 칼과 깨진 술병으로 찔렀다.

◎ 충청북도 청주시 사직동 앞길로 군용차를 몰고가던 미제운전사가 길가던 전윤섭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리였다.

◎ 대전시 홍도동 앞길에서 지원단 838병기중대소속 아이트 바비가 자동차로 칠순에 나는 김상순로인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치명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 대전시 부사동에서 힐러터가 길가던 김재덕을 군용차로 고의적으로 깔아뭉개고 달아났다.

◎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에 둥지를 튼 공군지원단소속 스제스는 거리에 나와 김아무개 녀성에게 달려들어 희롱하다가 그의 얼굴과 전신에 뭇매질을 하여 중태에 빠뜨렸다.

◎ 2사단 122통신대대소속 토마스 등 2명의 살인강도들은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에서 조광희의 돈을 강탈하고 칼로 찔러죽이였다.

－2월 10일

◦ 경기도 포천군에 둥지를 튼 미제침략군이 전쟁연습의 일환으로 박격포탄을 마구 쏘아대여 리일선을 죽이였다.

－2월 12일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앞길에서 한 야수가 길가던 김창복을 군용차로 고의적으로 깔아죽이였다.

－2월 15일

◦ 새벽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에 둥지를 틀고있는 병기대대 헌병중대소속 스미스 다비드는 길가에 숨어있다가 그옆을 지나가는 차를 습격하여 엄창섭을 쇠몽둥이로 까눕혀 중태에 빠뜨리고 차까지 빼앗아 타고 달아났다.

－2월 17일

◦ 강원도(남) 원성군 판부면 반곡리에서 리상만을 비롯한 3명의 어린이

들이 마을주변에서 파철을 줏다가 미제침략군의 수류탄이 터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숨졌다.

－2월 18일

◦ 미제침략군의 군사훈련장에서 포탄이 터지는 바람에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에서 사는 김아무개를 비롯한 3명의 소년들이 즉사하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2월 21일

◦ 미제침략군의 포탄에 의하여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에서 리아무개를 비롯한 2명의 청년들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치명상을 입었다.

◦ 미제침략군의 폭발물이 터져 강원도(남) 녕월군 북면에서 김태군을 비롯한 7명의 어린이들이 마을에서 놀다가 중상을 입었다.

－2월 23일

◦ 오후 전라남도 광산군 평등면 지죽리에서 미제침략군의 포탄이 터져 장의수청년이 즉사하고 또 1명은 중상을 입었다.

◎ 의정부시 가릉동에서 제코널이 백주에 큰길에서 리정수운전사에게 달려들어 뭇매를 안겨 혼수상태에 빠뜨린 후 자동차를 빼앗아 타고 달아났다.

◎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리 앞길에서 2사단 보급수송대대소속 베이케가 자동차를 미친듯이 몰고가다가 앞에서 길가는 로인(70살)을 고의적으로 깔아뭉겨 즉사시켰다.

◎ 경상북도 대구시 신암동 앞길에서 군용차를 몰고가던 503헌병대소속 베셀이 앞에서 걸어가는 신상호(5살)어린이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치명상을 입히였다.

◎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동두천2리 앞길로 군용차를 몰고가던 2사단 보급수송대대 2중대소속 알렌 헨리가 자전거를 타고가는 리수영(남자)을 고의적으로 깔아죽이였다.

◎ 서울시 룡산구 서빙고동에 도사리고있는 미제악당은 동리앞을 지나가는 화물자동차에 돌을 던져 운전사에게 심한 부상을 입히였다.

◎ 동두천읍 보산리에서 미제침략군 2명이 심심풀이로 리아무개의 집에 폭발물을 던져 집과 세간살이를 파괴하고 그 집식구들을 한지에 나앉게 하였다,

－3월 13일

◦ 2사단소속 크레이는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에 살고있는 장아무개의 방에 뛰여들어 더러운 수욕을 채우려다가 항거에 부딪치자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3월 26일

◦ 경상남도 창원군 창원면에서 미제침략군 3명이 달리는 렬차에 돌을 던

져 기관사 김아무개에게 중상을 입혔다.

—6월 6일

◦ 전쟁연습에 광분하던 미제침략군이 경기도 련천군 련천면 옥산리 뒤산에서 나무하는 엄아무개를 포사격의 과녁으로 삼아 죽이였다.

—6월 8일

◦ 전쟁연습에 날뛰던 미군비행기가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동 상공에서 주민지대에 고의적으로 휘발유통을 떨구어 김아무개의 살림집을 비롯한 근처의 마을을 몽땅 불태우고 그의 딸(5살)에게 심한 화상을 입혔다.

—6월 9일

◦ 부산시 초량동 앞길에서 군사연습에 돌아치던 미군이 무고한 주민을 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히였다.

◦ 2수송대소속 도날드가 부산시 동구 초량동 앞길에서 괴뢰군사병에게 총을 마구 쏘아대다가 길을 가던 손아무개에게도 총탄을 퍼부어 치명상을 입혔다.

—6월 20일

◦ 미제침략군 4명이 인천시 북구 부평동 홍아무개의 집에 뛰여들어 늙은이를 실신시키고 농짝을 털어갔다.

◦ 미제침략군 10명이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의 한 시계점에 뛰여들어 손목시계 8개를 강탈해갔다.

—7월 8일

◦ 공병대소속 젬피는 경기도 팽성면 안정리에 사는 김아무개의 집에 기여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칼로 찌르고 달아났다.

◦ 유도탄사령부소속 맥타레는 강원도(남) 춘천시 소양로의 한 집에 뛰여들어 김아무개를 릉욕하려다가 항거하자 그를 군화발로 마구 걷어차 부상을 입혔다.

—7월 17일

◦ 미제야수가 경상북도 대구시 대봉동 앞길에서 길가는 김아무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이였다.

—7월 20일

◦ 22시경 서울시 영등포구 외본산동 거리에서 8군 4통신대대 5명의 미군이 권아무개 외 2명의 주민에게 리유없이 몽둥이로 때려 중상을 입히고 정신잃은 그들을 병영안에 가두어넣고 또다시 폭행을 가했다.

—7월 24일

◦ 8군 106의무대소속 미군야수가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앞길에서 리순

희어린이를 자동차로 고의적으로 깔아죽이였다. 이자는 이보다 앞서 경기도 평택군 진의면 앞길과 인천시 중구 항동의 거리에서도 무고한 주민들을 차로 깔아죽이였다.

◎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 고산리에서 미제침략군이 떼를 지어 주민지역을 돌아치며 행패를 부리던 끝에 황아무개의 집을 불태웠다. 이에 격분한 주민들이 항거하자 곤봉으로 폭행을 가하면서 김아무개의 집에도 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 경기도 련천군 련천면 옥산리 뒤산에서 미제침략군이 나무하러 산에 올랐던 엄상근을 과녁으로 삼아 쏴죽이였다.

◎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 앞길에서 공군부대소속 스미스가 김아무개를 칼로 찌르고 발로 걷어차 중상을 입히였다.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면 사석리에서 그 전날에 와이트라는 미군병사가 음식점에 들어와 처먹으면서 개까지 음식점을 돌아치게 하는것을 본 주인녀성의 아들이 개를 발로 걷어찬것을 구실로 김아무개(녀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뛰여들어 기물들을 모조리 들부셨다.

－8월 4일

∘ 10시 30분경 3명의 미군야수들이 경기도 양주군 은하면 하다리 앞길에서 저들을 태우고 가던 운전사 정아무개를 돌로 까죽이고 그의 돈과 차를 빼앗아 타고 도망갔다.

－8월 24일

∘ 21시경 미제침략군 알렉싼드 쟈니크와 린슨은 관광객으로 가장하고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안흥리에서 승용차를 타고가다가 희천면 덕개리에 이르러 불의에 운전사 현춘국의 목을 졸라 죽이고 그가 가지고있던 돈을 몽땅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 초순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에서 51보안헌병대소속 2명의 악당이 이른 새벽부터 마을을 싸다니다가 리영숙, 조애자 두 녀성을 아무 까닭없이 총으로 쏘아 목과 팔에 심한 부상을 입히였다.

◎ 초순 제임스와 워싱톤 2명의 미군이 평택군의 한 길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뛰여올라 운전사에게 류혈적인 폭행을 가하고 자동차를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9월

◎ 서울시 룡산구 한강로의 한 골목에서 7명의 미군이 오가는 사람들에게 까닭없이 달려들어 칼부림을 하여 윤지중 외 2명의 주민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 앞길에서 미군병사 우도니엘이 길가는 정수적을 무턱대고 유리병으로 때려 중태에 빠뜨렸다.

◎ 경기도 수원시 려목동에 있는 부흥리발관앞에서 미제침략군 야수가 김한수(6살)를 고의적으로 깔아죽이였다.

◎ 경기도 양주군에 둥지를 튼 미군야수들은 주민부락에 뛰여들어 행패를 부리다가 어느 한 집에 불을 지르고 재물을 략탈해갔다.

－10월 4일

◦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의 큰 길가에서 8군수송부소속 로간이 길가는 정근식을 자동차로 깔아죽이였다.

－10월 13일

◦ 오후 경기도 가평군 상면 련하리에서 전쟁연습에 광분하던 미제침략군의 로케트포탄이 터지는 바람에 마을주민 7명이 죽고 16명이 중상을 입었다.

◎ 전쟁연습에 날뛰던 미군이 직승기를 타고 공중을 싸다니다가 경기도 련천군 련천면 상공에 이르러 들판에서 일하고있던 련천면 고문리에 사는 박규성소년에게 기총탄을 퍼부었다.

－11월

◎ 경상북도 대구시 남구 대봉동에서 8군 군사고문단의 부즈로이더 윌리암이 자동차를 몰고가다가 정영주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치명상을 입혔다.

◎ 경상북도 영일군 대성면에서 307부대 13중대소속 부른노보트 케이가 길가던 허종덕을 고의적으로 자동차로 깔아 중태에 빠뜨렸다.

◎ 보급창 본부중대소속 의트가 군수물자를 실은 자동차를 몰다가 인천시 북구 부평동 앞길에 서있는 자동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파괴하고 거기에 타고있는 주민들에게는 부상을 입혔을뿐아니라 뒤에서 오는 자동차(3대)까지 모조리 들이받아 완전히 파괴시켰다.

－12월 19일

◦ 21시경 경기도 인천시에 있는 신환제분회사 앞길에서 미군운전사가 군용차로 조덕순을 고의적으로 깔아 치명상을 입혔다.

◦ 오후 경상북도 안성군에서 3명의 미군강도들이 택시운전사를 단도로 위협하고 현금과 택시를 빼앗아 타고 달아났다.

◦ 밤 경기도 인천시에서 미군자동차가 길가던 처녀를 고의적으로 깔아눕혀 치명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12월 30일

◦ 서울시 룡산구 한강다리우로 군용차를 미친듯이 몰고가던 8군소속 살인마는 마주 오는 뻐스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불구자로 만들었다.

◎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신풍리에서 비행장으로 미친듯이 차를 몰고가던 미제침략군이 마주 오는 강미호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다.

1973년

－1월 5일

◦ 전라북도 옥구군 옥구면 옥봉리에서 공군소속 브라운은 자동차로 길가는 주민을 고의적으로 깔아죽이였다.

－1월 16일

◦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산북리에서 공군 통신대대소속 쎈니에이불이 오토바이를 미친듯이 몰고가다가 윤태숙(녀자)이 길을 건너가는것을 보자 고의적으로 깔아넘기였다.

－1월 31일

◦ 강원도(남) 횡성군 횡성읍 갈풍리에서 전쟁열에 광분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의 포탄이 터지는 바람에 부근에 사는 태규철 등 5명의 어린이가 즉사하고 5명이 심한 중경상을 입었다.

－2월 21일

◦ 22시경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신공리 앞길에서 공병대소속 야수가 길가는 무고한 주민을 고의적으로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3월

◎ 미제침략군 야수가 평택군 송탄리에서 윤아무개(녀자)의 집에 뛰여들어 14살나는 소녀를 강간하고 달아났다.

－4월

◎ 공군부대소속 제임스가 경상북도 대구시 신암동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장봉만을 고의적으로 깔아 치명상을 입히였다.

◎ 전쟁물자를 싣고가던 미제침략군 운전사가 수원시 배탄동 앞길에서 이 마을에 사는 박충근어린이를 고의적으로 깔아 치명상을 입혔다.

－5월 19일

◦ 전라남도 광주시의 물고개길에서 공군부대소속 도날드가 오토바이를 몰고가다가 조아무개(녀자)를 발견하자 고의적으로 깔아 중상을 입혔다.

－5월 22일

◦ 미제침략군이 수원시 근자마을에서 《암지대》를 단속하는 남조선의 해당 인원들에게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여 1명을 때려죽이고 4명에게 부상을 입히였다.

◎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부근에 둥지를 튼 미군이 한 사진사를 강박하여 사진을 찍고는 그가 료금을 요구한다고 하여 달려들어 뭇매를 안겨 3대의 이발을 부러뜨리고 왼쪽눈에 심한 타박상을 입혀 중태에 빠뜨렸다.

◎ 전라북도 옥구군 옥구면에서 미제침략군 부대소속 브라운이 자동차를 미친듯이 몰아 박아무개(남자)를 깔아죽이였다.

－7월

◎ 미제침략군 6명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의 한 부락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로동자를 붙들고 까닭없이 발길로 차서 높이 15m되는 다리밑으로 떨어뜨려 중상을 입혔다.

－8월 9일

◦ 낮 경기도 강화군 화도면에서 전쟁소동에 광분하던 미제침략군의 폭발물이 터져 바다가에서 놀고있던 조홍덕을 비롯한 4명의 어린이들이 모두 두팔을 잘리웠다.

◦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 하리에서 여러명의 마을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바다가에서 놀다가 미제침략군의 폭발물이 터져 안상호(남자)는 즉사하고 2명의 어린이가 다리를 잃고 머리를 다쳤다.

－8월 18일

◦ 서울시의 한 거리에서 미제침략군 야수가 자동차로 주민들을 태운 뻐스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10여명의 주민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히였다.

◎ 초순 경상북도 대구시 미산동에서 미친듯이 군용차를 몰고가던 미군운전사가 최아무개(남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앞길에서 미군운전사가 자동차를 미친듯이 몰아 손상규로인을 깔아눕히였다.

－10월 7일

◦ 미제침략군 10여명은 부대부근에 있는 식당에 뛰여들어 술을 실컷 처먹고나서 료금을 요구하는 주인을 마구 때렸을뿐아니라 기물들을 들부시는 란동을 부렸다.

◦ 미제침략군 200여명이 무리를 지어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유흥장에서 술을 마신 후 주민들의 살림집과 상점을 습격하여 재물을 마구 파기하고 략탈하였으며 500여명의 주민들을 거리로 내쫓았다.

－12월 30일

◦ 저녁 미군부대소속 존슨과 다른 1명이 경기도 의정부시 가릉동에서 승용차운전사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다음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다.

◎ 미제침략군이 집단적으로 서울시 한남동에 사는 박아무개를 권총으로 위협하여 남산으로 끌고가서 륜간하였다.

◎ 20여명의 미제침략군이 평택군 대산리에서 10여명의 녀성들을 2대의 자동차에 강제로 태우고 집단적으로 릉욕하였으며 손발을 비틀고 라체촬영까지 하였다.

1974년

－1월 13일

◦ 경기도 의정부시 가릉동에서 미제침략군 2명이 승용차와 그안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다.

－2월 5일

◦ 경기도 평택에서 수원쪽으로 군수물자를 실어나르던 미군운전사가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수청리에서 화물차로 유호렬, 리호준을 고의적으로 깔아 죽이였다.

－3월 24일

◦ 미군강도들이 서울시 룡산구 서빙고동에서 운전사 김남수가 몰고가는 승용차를 강제로 잡아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어 칼로 휘두르며 그의 목을 졸라맨 후 그가 가지고있던 돈을 몽땅 털어가지고 달아났다.

－3월 26일

◦ 19시경 전라북도 군산시 신흥동에서 공군부대소속 페이는 자동차로 자전거를 타고가는 박치근을 고의적으로 깔아 치명상을 입혔다.

◎ 경상북도 대구시 상덕동에서 에드모드가 김순녀(녀자)를 까닭없이 때려 중상을 입혔다.

◎ 부산시 동래구 초량동에서 부산기지사령부소속 데니빅이 초량동에 사는 김미화를 강간하려다가 항거하자 미친듯이 때려눕혔으며 부근에 사는 최경진(녀자)이 격분에 차서 규탄하자 그에게도 달려들어 매질을 하였다.

－4월 5일

◦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에서 미군야수가 길을 가는 리관헌을 뻐스로 깔아 치명상을 입혔다.

◦ 서울에서 미제침략군 야수가 군용자동차로 길을 가는 한 주민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렸다.

◦ 서울시 서대문구 거리에 둥지를 틀고있는 한 야수는 리아무개를 고의적으로 군용차로 깔아넘기고 달아났다.

－4월 8일

◦ 11시 40분경 미군운전사가 서울시 성수동 1가의 강변도로에서 김정순(녀자)을 자동차로 깔아눕히고 달아났다.

◦ 미제침략군 야수가 김아무개를 겁탈하려고 차를 몰고 쫓아가다가 서울시 성동구 거리에서 깔아눕히고 달아났다.

－4월 12일

◦ 미제의 대형화물선이 일본 와까야마현 앞바다에서 남조선화물선 《해

영》호를 고의적으로 정면으로 들이받아 두 동강을 내고 침몰시킴으로써 선원 26명중 17명을 행방불명되게 하고는 달아났다.

—5월 7일

◦ 서울시 룡산에 둥지를 틀고있는 한 야수가 경상북도 경주군방의 도로를 미친듯이 달리다가 앞에 가는 뻐스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홍인춘(녀자)을 비롯한 10여명의 주민들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5월 8일

◦ 밤 미제살인귀는 경기도 수원시 영화동 거리에서 자동차를 몰고가다가 이 마을에 사는 송연이라는 처녀를 고의적으로 깔아 치명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5월 25일

◦ 8군 520경비중대소속 토메이는 경기도 평택에서 문종철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잡아타고 서울시 룡산구 효창동에 이르러 갑자기 칼로 온몸을 마구 찔러 중상을 입혔다.

—7월 4일

◦ 22시경 공군부대소속 쉐쉴 등 4명의 강도들이 대구시 원대동의 한 시계방에 뛰여들어 시계와 금반지들을 빼앗아가지고 대기시켜놓았던 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에 앞서 3일 밤에도 대구시 남산동에 있는 금방을 습격하고 금, 은제품을 털어갔다.

—7월 20일

◦ 미제침략군 리슨이 경기도 려주에서 자동차로 3명의 주민을 깔아 2명을 죽이고 1명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7월 27일

◦ 미제침략군 제임스는 서울시 영등포구 등촌동에 사는 조해준을 군용차로 고의적으로 깔아죽이였다.

—10월 16일

◦ 23시경 경기도 의정부시 가릉동 앞길에서 3명의 미제침략군이 차를 몰고가는 리아무개 운전사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한 후 돈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11월 16일

◦ 22시경 미군부대 모리스는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다방에 뛰여들어 무럭대고 기물들을 들부시면서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11월 29일

◦ 19시경 부산시 동구 좌천동의 한 다방에서 미제침략군 레트제는 종업원 황윤희를 희롱하면서 수욕을 채우려다가 반항하자 쌍욕을 퍼붓고 뭇매를 안겨 중상을 입혔으며 그로 인하여 그는 3주일이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 22시 30분경 미제침략군 캐일이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송아무개(녀자)의 집에 뛰여들어 현금 3만여원을 강탈하고 달아났다.

—11월 30일

◦ 경기도 고양군 백제면 대자리 앞길로 군용차를 미친듯이 몰고가던 미군운전사 멜라드니는 다리우로 지나가는 50대의 주민을 고의적으로 깔아죽이였다.

—12월 7일

◦ 16시 30분경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에 둥지를 튼 특수부대 본부중대소속 할디 칼리오 외 7명은 부산에서 뻐스에 탄 송운대를 칼로 위협하면서 뭇매질을 하여 중상을 입혔다.

1975년

—7월 14일

◦ 5시 30분경 미군병사가 식료품창고에서 경비를 서고있던 원종태(32살)를 흉기로 뒤머리를 들이쳐 살해한 후 물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다.

—8월 7일

◦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통신중대소속 1등병 존슨 등 2명이 의정부시에 있는 양희태(46살)가 경영하는 상점에 뛰여들어 흉기로 그를 위협하고 현금 1 190만원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9월 23일

◦ 9시경 A. P. O. 소속 1등병 맥클레이 제리가 김포비행장에서 안내원 리선재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후 대합실에 들어가 기물을 부시며 란동을 부렸다.

—11월 2일

◦ 12시경 경기도 평택군에 있는 병기대대소속 1등병 매커 크레컴(20살)은 평택군 팽성면에 있는 한 기관에 들어가 자동차(5t급) 1대를 훔쳐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야산으로 끌고가서 600만원에 팔아먹었다.

—11월 3일

◦ 22시 20분경 서울시 중구에서 강원도(남) 원주에 있는 통신대대소속 로버트, 토마스 등 4명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정영희(33살) 등 4명의 주

민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들이 반항한다고 하여 쇠관으로 마구 찌르고 때려 중상을 입혔다.

－12월 4일

◦ 밤 부산에 둥지를 틀고있는 상등병 발티 엘티죤, 안톤 외 헌병 6명은 부산시 대창동 3가 텍사스골목 음식점에서 저녁밥을 먹고있던 부산진구 전포동 71번지에 사는 리성근(51살) 외 3명에게 생트집을 걸면서 밖으로 끌고나가 집단구타하여 중상을 입혔다.

1976년

－1월 4일

◦ 경기도 양주군에 주둔하고있던 1등병 그리스(24살)가 양주군 동두천읍에 사는 리영화(24살)의 집에 기여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반항에 부딪치자 흉기로 찔러죽이였다.

－1월 10일

◦ 경기도 양주주둔의 한 야수가 김주연(28살)을 려관방에 끌고가 겁탈하려다가 반항하자 그의 목을 눌러 죽이였다.

－3월 2일

◦ 22시 30분경 통신중대소속 병장 아담스 엘 게디(28살) 등 5명은 부산시 동구 초량동 근처에서 사는 김만근(31살) 등 10명에게 까닭없이 트집을 걸면서 집단구타하여 치명상을 입혔다.

－4월

◎ 미군강도가 리종구(48살)가 관리하는 서해안의 한 창고에서 시계, 커피 등 4 900만원어치와 1만 2 000US＄에 해당하는 물품을 훔쳐다 팔아먹었다.

－6월 25일

◦ 미제침략군의 야만적인 세균전실험으로 인하여 경상북도 례천군 례천녀자중학교에서 20여명의 학생들이 류행성출혈열에 걸려 무리로 쓰러졌다.

－6월 30일

◦ 미제침략군의 세균전실험으로 하여 강원도(남) 정성군 사북국민학교 학생들이 류행성출혈열에 걸려 교실에서 집단적으로 쓰러졌다. 이밖에도 전라남도 원도군과 신안군에서 1 200여명, 령암군에서 180여명, 강원도(남) 평창군에서 270여명의 학생들이 류행성출혈열에 걸려 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다.

－8월 4일

◦ 오후 경상북도 달성군 론공면 상공에서 전쟁연습에 미쳐 돌아치던 8공

군부대소속 직승기비행사들이 금포동마을에 총포탄을 마구 쏘아댐으로써 리태규(61살)의 집을 비롯한 3동의 살림집을 불태웠다.

－10월 5일

∘ 18시경 경기도 려주군 릉서면 왕대리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가던 미제침략군 2명은 외딴 골목에 이르자 운전사 한상군(34살)을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한 다음 차를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10월 31일

∘ 밤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에 있는 1등병 윌리암은 동두천읍 보산리 앞길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가다가 갑자기 운전사 김홍권(25살)에게 달려들어 칼로 그의 가슴과 배 등을 마구 찌르고 목을 졸라 실신시킨 다음 현금 2만 5 000원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12월 4일

야밤에 8군 후방기지사령부 169부대소속 통신중대 상등병 브라드필스, 병장 화네스톱 등은 사복을 입고 대구시 중구 동성로 2가의 리선우(28살)가 경영하는 상점에 뛰여들어 종업원 김도선(22살)을 칼로 가슴, 배, 얼굴을 마구 찔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7만원어치의 상품을 털어갔다.

－12월 8일

∘ 17시경 전라북도 군산시에 주둔한 후방기지소속 연유보급소 미제침략군이 주민지대에 페유를 마구 뿌리고 불을 지름으로써 1명을 태워죽이고 4채의 살림집을 불태웠으며 2 300만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혔다.

◎ 8군소속 21명의 미군이 미국에서 밀수입한 수천만원어치의 마약과 마취제를 수많은 남조선녀성들과 녀학생들에게 먹여 정신을 흐리게 한 후 집단적으로 릉욕하였으며 그들을 마약중독자로 만들었다.

◎ 륙군 406부대(일명 의학연구소)소속 《미생물연구소》 분견대는 류행성출혈열의 병원체인 세균비루스를 남조선의 모든 지역과 농촌에 퍼뜨려 수만명의 전염병환자를 발생시켰으며 1976년말까지 2만여명이 죽게 하였다.

◎ 1971～1976년까지 6년동안에 《미생물연구소》 분견대 야수들은 남조선에서 신장과 태아 2만 4000여개를 세균전연구에 쓸 목적으로 미국 메릴랜드주 로크빌에 있는 생물학연구소 플로우실험소에 가져갔다.

1977년

－1월 10일

∘ 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미군부대소속 상병 스미스(21살)는 김병숙(29살)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 다음 릉욕하려다가 응하지 않자 목을 조른채로 강간한 후 그자리에서 살해하고 달아났다.

－1월 22일

◦ 3시 30분경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에서 미첼럼 젝크는 이 마을에서 사는 김원식(40살)의 집에 불을 지르고 란동을 부려 무려 1 8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3월 15일

◦ 8군사령부소속 미제침략군이 경기도의 고아원에 있는 어린이 104명을 군사적목적에 쓰기 위하여 《양자》의 미명하에 오끼나와의 미군기지에 있는 특수부대에 끌어갔다.

－3월 21일

◦ 20시 30분경 8군소속 1등병 벤자민 데딕 등 4명은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에서 서울 14－1141호 택시를 타고가다가 운전사 안승채(54살)의 입을 틀어막고 그의 온몸을 칼로 찔러 실신시킨 다음 현금 5 000원과 차를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5월 10일

◦ 서울시의 미군부대소속 칼스 탈레스(36살)는 서울시 강남구 도로에서 군용차로 부산시 서구 신평동 24동 3반에 사는 강진혁(19살)을 고의적으로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5월 27일

◦ 미제침략군이 화물차에 3기의 미싸일을 싣고 서울－부산사이의 도로로 미친듯이 달리다가 폭발시킴으로써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혔으며 많은 사람들이 2km이상 대피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6월 12일

◦ 밤 1등병 스티븐 에이. 마오멘(20살)은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소재지에 사는 리복희(25살)의 집에 기여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반항하자 그의 목을 눌러 죽인 다음 방에 석유를 뿌리고 시체를 태워버렸다. 이자는 7월 14일 새벽 같은 곳에서 사는 리영순(28살)의 집에 침입하여 겁탈하려다가 반항하자 칼로 마구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달아났다.

－9월 5일

◦ 미제침략군 블룩스 트벤스(20살) 등 2명은 서울시 룡산구 한강로1가에 있는 연유공급소 앞길에서 택시운전사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현금 8 000원을 강탈하였다.

－10월 11일

◦ 새벽 미제침략군 스로서가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에 사는 리동

의 집에서 세방살이를 하는 유문해(19살)의 방에 뛰여들어 강간하려다가 반항하자 옷을 벌거벗겨 쓰러뜨리고 쇠줄로 목을 졸라매여 죽이였다.

－11월 2일

◦ 10시 40분경 서울시 룡산구에 있는 미군부대소속 하버드(44살)는 승용차를 몰고가다가 서울시 중구 장충동 앞길에서 손수레를 끌고가던 중구 신당동에 사는 리옥희(녀자 42살) 등 2명을 깔아죽이였다.

◎ 미제는 1976년 7월－1977년 2월까지 태여난지 5개월부터 5살까지의 어린이 60여명을 《양자》, 《양녀》라는 구실밑에 오끼나와의 미군기지에 실어갔다.

1978년

－1월 27일

◦ 22시 30분경 상병 모리스 등 2명의 야수들은 경기 1－6700호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의정부시 신곡동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운전사에게 달려들어 칼을 휘두르며 폭행을 가하였으며 현금 5 000원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2월 1일

◦ 6시 50분경 2등병 가펜트(25살) 등 2명은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한 양화점에 침입하여 1만 1 000원어치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다.

－4월 25일

◦ 10시경 항공지원대대소속 쌍발기 1대가 폭탄을 가득 싣고 전쟁연습을 벌리다가 추락되여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삼외리의 주민 2 000명이 대피하게 하였으며 산불로 20여정보의 산림이 불탔다.

－7월 5일

◦ 밤 상병 암레스 챨스는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에 있는 한 려관방에 뛰여들어 자고있는 박옥래(25살)를 겁탈하려다가 반항하자 칼로 마구 찌르고 목을 졸라 죽이였으며 시체를 욕조속에 던지고 달아났다.

－7월 7일

◦ 오후 서울시 성동구 지양동 앞길에서 8군소속 미군운전사가 자동차를 미친듯이 몰아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성수중학교 2명의 학생들을 들이받아 복성근(14살)을 즉사시키고 유정숙에게는 치명상을 입혔다.

－8월 13일

◦ 13시 20분경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앞길에서 미제침략군 루이 스르거, 스챠우트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사 임일기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강박하다가 그가 항거하자 칼로 온몸을 찔러 쓰러뜨리고 돈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9월 25일

◦ 서울상공에서 전쟁연습에 광분하던 《펜톰－4》 1대가 추락하여 《조선맥주》 영등포공장 간이식당에서 근무하고있던 종업원 8～9명이 즉사하거나 중태에 빠지였다.

－11월 22일

◦ 강원도(남) 춘천시에 있는 미제침략군부대소속 매주를 비롯한 3명의 악당들은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시외뻐스종점에서 윤종락(27살)이 운전하는 택시를 탄 다음 룡산구 한남동 앞골목에 이르러 운전사의 목을 조르고 칼로 위협하면서 현금 6만원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1979년

－1월 1일

◦ 7시 10분경 미군병사가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에 있는 정홍기의 집에 까닭없이 불을 질러 2 0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1월 2일

◦ 21시경 미제침략군 3명은 서울시 룡산구 한남동 류룡산호텔 맞은편 골목 앞길에서 호텔주인 정필연의 가슴을 칼로 찌르며 위협한 후 현금 1만 2 000원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 미제침략군 야수가 서울시 룡산구에서 택시운전사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해갔으며 경기도 평택군에서는 다른 1명이 식당에 뛰여들어 행패를 부리던 끝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 경상북도 대구에서 미군강도들이 길가는 주민을 죽이고 현금을 강탈해갔으며 경기도 파주군에서는 가게방을 습격하고 상품을 털어갔다.

－4월

◎ 초순 중사 리챠드 바버(24살)가 서울시 강남구 성내동에 사는 김진욱과 그의 안해 박아무개를 려관에 유인하여 술을 먹인 다음 김진욱을 술병으로 머리를 때려 실신시키고 그자리에서 박아무개를 강간하였다.

－9월 16일

◦ 밤 8군사령부 본부중대소속 상병 머커슨을 비롯한 5명의 미군야수들이 서울시 룡산구 삼각지 로타리부근에서 길가에 서있던 윤아무개와 원아무개에게 불의에 달려들어 그들을 군용차에 강제로 싣고 사령부 본부막사에 끌고가 밤새껏 륜간하였다.

－10월 11일

◦ 미제침략군 길벗이 전라북도 옥구군 옥구면에서 군용차로 마주오는 택

시를 들이받아 운전사와 같이 타고있던 녀성과 어린이를 즉사시키고 다른 4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 남조선출판물이 보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제침략군의 만행건수는 한해동안에만도 무려 1 600여건에 달한다.

1980년

—1월 7일

◦ 16시 20분경 경기도 포천군 영등면 영송리 359번지 박종만(55살)의 집에서 미제침략군이 실탄사격을 하다가 버리고간 105mm 불발포탄이 터져 주민 9명이 즉사하고 1명은 치명상을 입었다.

—1월 28일

◦ 8군소속 배포드 기브넬이 서울시 서대문구 령천동에서 자동차로 3명의 주민들을 깔아 중상을 입히였다.

◎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에서 미제침략군의 폭발물에 의해 1명이 죽고 4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2월 5일

◦ 비행려단소속 레이드 제임스가 서울시 강남구 내곡동에서 자동차로 3명의 주민들을 깔아죽이고 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4월 25일

◦ 23시경 8군소속 하사 리필드(38살)는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에 있는 삼거리상회에 침입하여 주인 김재주(36살)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하면서 금품을 몽땅 략탈하여갔다.

—6월 19일

◦ 14시 미공군소속 야수가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앞길에서 승용차로 길가던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에 사는 김금녀(녀자 72살)를 깔아죽이였다.

◎ 병장 제임스는 차를 몰고가다가 멈춰서있는 뻐스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운전사 성락현과 승객 3명을 즉사시키고 5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 1975년 7월—1980년 12월까지 미제침략군의 만행은 9 000여건이며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수만명에 달한다.

1981년

—1월 18일

◦ 미군사고문단소속 20명은 락동강류역에서 보호동물인 백조사냥을 하다가 김해군 오지면에 사는 하옥수(남자 16살)를 고의적으로 쏘아 그의 배와 왼쪽팔을 관통시켜 쓰러뜨리고 달아났다.

－2월 13일

◦ 서울시 마포구에서 차를 몰고 미친듯이 달리던 미군운전사가 교통질서를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마주오는 택시를 들이받아 거기에 타고있던 안경수를 죽이였다.

－2월 20일

◦ 군산기지소속 상병 죤 월슨 외 1명은 군산시내의 한 2층집 베란다에서 길을 가던 윤춘호에게 사격을 가하여 부상을 입혔다. 원래 2명의 녀성들에게 총구를 겨누었다가 그가 발견하고 소리치자 사격을 가했던것이다.

－6월

◎ 서울에 둥지를 튼 미군기지에서 미군병사가 M－16소총시험발사를 위해 5명의 주민들을 과녁으로 삼아 사격하여 그중 4명을 즉사시키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10월 4일

◦ 밤 8군소속 1등병 그리고리는 김영순(30살)을 꼬여 서울 룡산구 리태원동에 있는 려관에 데려다 릉욕하고는 자기의 범죄행위가 드러날것이 두려워 그를 4층(13m)에서 떨어뜨려 죽이였다.

1982년

－1월 21일

◦ 20시 50분경 대구시 남구 리천1동 앞길에서 대구 삼성택시회사소속 택시를 타고가던 미군 2명은 운전사 림종화(34살)의 머리를 흉기로 때려 중상을 입힌 후 현금 2만원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9월 30일

◦ 해병 19지원단소속 야수가 군용차로 대구시 동구에 사는 리윤옥(녀자)과 그의 딸을 건늠길에서 들이받아 딸은 죽이고 어머니는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혔다.

1983년

－1월 11일

◦ 산업은행 룡산지점앞에서 경기도 동두천에 둥지를 튼 미제침략군이 녀자고등중학교에 다니는 리아무개 학생을 랍치하여 기지에 끌고가 온갖 추잡하고 야수적인 만행을 가했다. 5월 11일에 그가 놈들의 눈을 피해 이 소굴을 겨우 빠져나왔으나 너무도 정신육체적으로 타격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10월 25일

◦ 미제야수가 경기도 려주군 가남면에서 대형군용차를 미친듯이 몰고가다가 길가에 서있는 수원관광소속 관광뻐스차장 리명숙(24살)을 고의적으로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 동두천일대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이 한 협잡군과 짜고 1981년부터 그곳 보산리에 전용술집을 차려놓고 7명의 남조선녀성들을 《종업원》으로 끌어다가 그들의 절개를 유린하고 모욕하였다.

◎ 1983년 한해동안 미국인들이 《관광》으로 남조선에 88명이나 기여들어와 각종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1984년

－2월

◎ 《팀 스피리트－84》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한 미제야수들이 인천시에서 고등학교 녀학생을 랍치하여 집단적으로 륜간하고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7월 25일

◦ 8군소속 2명은 서울 룡산구 리태원동에 있는 리순임의 양복점에 뛰여들어 딸라를 바꾸어 달라고 하고는 그가 돈가방을 꺼내자 무턱대고 그것을 가로채가지고 밖에 대기시켜놓았던 자동차를 타고 꽁무니를 뺐다.

1985년

－1월

◎ 일본 오끼나와주둔 해병대소속 로버트 파운드는 남조선에 들어와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야미리 앞길에서 자동차를 타고가면서 길가던 김영자(녀자 21살)를 심심풀이로 쏘아죽이고 히히닥거리며 달아났다.

－3월

◎ 《팀 스피리트－85》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한 미제침략군이 전라남도 려천시 신덕동 앞바다에 고성능폭탄을 던져 어장을 파괴하고 피조개를 줏고있던 김순남(녀자) 등 6명을 학살하였다.

－7월 20일

◦ 13시 20분경 2사단소속 1명은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 127번지에 있는 최아무개의 사무실에 뛰여들어 주인의 승인없이 전화를 사용하려다가 그것을 나무람하는 최갑순로인과 그를 동조하는 주민 3명을 흉기로 찔렀다.

－9월 1일

◦ 미군병사 에드워드가 서울의 한 호텔 금고에서 현금 20만원을 털어가

지고 달아났다.

－11월 25일

◦ 경기도 룡인군 구성면에서 륙군부대소속 드웨인이 중형자동차를 미친듯이 몰고 거리를 싸다니다가 뻐스와 찦차를 들이받아 15명의 주민들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혔다.

◎ 미제침략군이 경기도 동두천에서 한 녀성을 과녁삼아 《사격놀음》을 벌려 그를 즉사시켰다.

◎ 괴뢰당국이 발표한데 의하면 1985년 한해동안에 미제침략군이 2 200여건의 범죄를 감행하여 6 100여명의 주민들을 살상하였는데 이것은 남조선강점미군이 5명당 1명은 범죄자이라는것을 보여준다.

◎ 1975년이후 10년동안에 미제침략군이 저지른 만행은 1만 5 000여건이다.

1986년

－2월 28일

◦ 《팀 스피리트－86》합동군사연습에 내몰린 미군부대소속 로무자 5명이 미군의 감독하에 강릉앞바다 500m 지점에 있는 도크를 조종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는데 이들의 시체조차 찾지 못하였다.

－3월 5일

◦ 25사단 포병대대소속 6명이 충청북도 제원군 봉양면에서 봉양국민학교 리아무개(임신 6개월)를 퇴근길에 랍치하여 역뒤 야산으로 끌고가 륜간하고 저들의 죄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하였다.

－3월 23일

◦ 《팀 스피리트－86》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였던 2사단 17련대소속 1등병 베리오가 동두천에서 주민들의 금품을 도적질하였다.

◎ 2사단소속 로져스가 동두천에서 한 주민의 집에 뛰여들어가 주인을 칼로 찔러죽인 다음 금품을 털어가지고 달아났다.

－4월 2일

◦ 미제침략군 하벨이 정아무개 접대부를 롱락하려다가 거절당하자 그의 목을 졸라 죽이였다.

－4월 5일

◦ 송탄공군기지 병사가 연료저장탕크주변에서 잔디옮기는 작업을 하던 허정애(녀자 34살)를 강제로 병영에 끌고가려고 하였다. 이때 주변에서 일하던 오대근(남자 61살)이 그것을 말리자 미제야수는 그의 머리를 각목으로 때

려눕히고 녀인을 겁탈하려다가 반항에 부딪치자 주먹으로 때리고 군화발로 온몸을 차서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이자는 녀인의 비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달려오자 그들에게 M－16소총을 쏘아대고 화염방사기로 불을 뿜어 그자리에서 16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12명에게 중상을 입히였다.

남조선출판물은 이 만행을 두고 귀신까지도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혀 통곡하지 않을수 없는 참극이라는 뜻에서 《귀곡추추》라고 보도하였다.

－5월 3일

◦ 미군부대소속 13명의 악당들은 리태원동의 큰거리 한남로에 있는 유흥장에서 녀성을 모욕하려다가 그것을 제지시키는 청년학생들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했다.

－11월

◎ 동두천에서 미제침략군 2명이 택시운전사를 살해하고 그의 금품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1987년

－2월 20일

◦ 미제침략군이 부대 카츄사병인 김상병을 무력대고 때려죽이고 그것이 드러날가봐 두려워 그가 마치 전기줄로 목을 매여 자살한것처럼 꾸며댔다.

1988년

－1월

◎ 전쟁연습에 광분하던 공군사령부소속 《F－5》군용기가 경상북도 상주상공에서 저공비행으로 강한 바람을 일으켜 10개 마을의 220채의 살림집을 파괴파손시키고 수많은 주민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한지에 나앉게 하였다.

－2월 14일

◦ 밤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8군소속 2명이 평택에서 갑자기 권총을 내휘두르면서 운전사를 위협하여 그에게서 돈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2월 19일

◦ 23시경 경상북도 포항에 둥지를 튼 연유보급기지소속 미군 30여명이 흉기를 휘두르며 집단적으로 란동을 부리면서 두호동 미군부대 앞길에서 지나가던 뻐스를 강제로 멈춰세운 다음 운전사를 흉기로 위협하여 시내로 차를 몰게 하였다. 그리고 뻐스가 시내의 어느 한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운전사 유상복에게 달려들어 집단폭행을 가했다. 운전사는 실신하여 쓰러지고 뻐스는 택시와 정면충돌하여 3명의 주민이 중상을 당했다.

-2월 24일

◦ 륙군소속 머리, 밀러 등 3명은 서울 룡산구에서 택시를 타고 부대에서부터 성남시까지 가고서도 료금을 요구한 운전사 김한복에게 달려들어 집단구타하고 달아났다.

-3월

◎ 《팀 스피리트-88》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한 미제침략군이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마을을 대상하여 포사격을 가하여 온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고 많은 인명피해를 주었다.

◎ 경기도 평택에서 미군야수가 한 녀성에게 달려들어 강탈행위를 하다가 반항에 부딪치자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가하여 죽이였다.

-5월 9일

◦ 12시 40분경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앞 세거리로 대형군용차를 미친듯이 몰고가던 2사단소속 상병 시츠는 상점과 책방을 들이받고 밀고가면서 그안에 있던 할머니와 어린이 그리고 길가던 녀인 등 4명을 한꺼번에 깔아죽이였다. 그리고도 차를 멈출 대신 더욱 속도를 내여 내빼다가 길옆에 세워놓은 차들을 련속 들이받아 거기에 타고있던 운전사 등 4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6월 19일

◦ 새벽 공군소속 제임스를 비롯한 4명이 전라북도 옥구군에서 저들을 태우고 비행장으로 가던 택시운전사 고재연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여 피투성이로 만들었으며 현지에서 이 사실을 목격한 운전사 오대영이 동료들에게 알리러 간다고 하여 빈 병으로 깠으며 놈들의 만행에 격분하여 비행장정문앞에서 17명의 동료운전사들과 항의투쟁을 벌리던 송원기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6월 25일

◦ 새벽 서울거리를 싸다니던 8군 44공병대소속 크린크마스를 비롯한 5명의 야수들은 도봉구의 한 음식점에 뛰여들어 식사를 하던 김희수 등에게 무작정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고 다른 곳에서도 탁자를 비롯한 기물들을 들부시면서 행패를 부리였다.

-8월 3일

◦ 밤 올림픽의 《안전개최》를 구실로 인천항에 기여든 해군전함 《뉴저시》호소속 7명의 미군이 서울 리태원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젊은 미국녀자가 식당안에 개를 끌고 들어오는것을 돌려보냈다고 하여 맥주병, 고뿌 등을 던지면서 김광성 외 3명의 종업원들에게 행패를 부려 부상을 입혔다.

－9월 3일

◦ 8군 범죄수사단장 페트릭의 아들 등 미군자녀 2명이 서울 룡산구 한강로에서 임신부 조아무개에게 리유없이 달라붙어 폭행을 하였다.

－9월 24일

◦ 마약에 잔뜩 취한 미군병사 4명이 서울 룡산구 리태원동의 한 길가에서 저들을 태워다 준 택시운전사가 료금을 요구하자 다짜고짜 달려들어 술병으로 때렸으며 운전사의 비명소리를 듣고 제지하려고 달려온 주민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행패질을 하였다.

－10월 16일

◦ 3시경 한 택시운전사가 차를 몰고 침략군사령부가 둥지를 틀고있는 리태원동 앞길을 달리고있는데 갑자기 술에 만취된 미군 3명이 차를 멈춰세우고 폭언을 퍼부으며 차를 발로 차는 등 란동을 부렸다. 이에 격분한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놈들은 그에게 집단폭행을 가했다. 이것을 목격한 주민들이 놈들에게 항의하자 주변의 미군 40여명이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을 하여 김우근에게 치명상을 입혔으며 2명의 주민에게 중상을 입혔다.

－11월 13일

◦ 서울시내에서 양키족속의 깡패소년들이 행인들을 희롱하며 쌍욕질을 하였다. 이것을 보고 길가던 2명의 주민들이 참을수 없어 그들에게 주의를 주었는데 8군소속 비행부대소속 장교들이 도리여 《왜 미국사람에게 욕을 하느냐》고 하면서 달려들어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가하여 그중 조아무개에게 중상을 입히였다.

－11월 14일

◦ 밤 2사단소속 미군야수들은 충청남도 대전에 있는 백송회관에서 술을 처마시고는 값을 치르지 않고 도망치다가 덜미를 잡히게 되자 오히려 주민들의 멱살을 잡아 구타를 하고 세멘트바닥에 쓸어눕히였다.

－12월 13일

◦ 경기도 파주에서 택시를 타고가던 미군 2명이 운전사에게 폭행을 가한 후 돈을 강탈하고 달아났다.

◎ 10월 18일 괴뢰치안본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의하면 1980∼1988년 6월까지 8년동안 8 490여명의 미국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은 외국인범죄자가운데 79%를 차지한다.

◎ 미제침략군은 1988년 6∼10월사이에 경기도 화성군 7공군 사격장주변의 수십명의 주민들에게 폭탄을 퍼부어 죽이였으며 굴따는 제주도해녀들에게도 포탄을 퍼부었다.

◎ 괴뢰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88년 한해동안에 미군만행은 297건이며 그중 살인폭행, 강간이 130여건이다. 여기에서 괴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한것은 겨우 6건이였으며 그것마저도 한차례의 재판놀음끝에 미군당국에 넘겨주었다.

◎ 《한겨레신문》이 전한데 의하면 1984～1988년까지 강원도(남)주민들이 미제침략군이 벌린 5차례의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으로 입은 피해는 800여건에 근 15억원에 달한다.

◎ 공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88년까지의 10년동안 미제침략군이 《비공무중》에 저지른 범죄건수는 1만 5 000여건으로서 이것은 년평균 1 500건, 하루 평균 4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는것을 보여준다.

1989년

－1월 21일

◦ 새벽 미군야수가 서울 룡산구에서 료금지불을 요구하는 택시운전사에게 폭행을 가하여 한달동안이나 치료를 받게 하였다.

－2월 7일

◦ 밤 경기도 동두천에서 2명의 미군야수들이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한 상점에 뛰여들어 상점주인 리아무개에게 외국술 2병을 살것을 강요하다가 거절당하자 그의 머리와 온몸을 망치로 사정없이 때려 치명상을 입혔다.

－2월 11일

◦ 전라북도 군산에서 오산공군기지소속 병사 하레이다가 정관용을 살해하였다.

－2월 15일

◦ 륙군소속 그린이 군산시 해월동 도로에서 건늠길을 건너가던 송윤재를 자동차로 깔아죽이였다.

－2월 18일

◦ 새벽 미군야수가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597중대 앞길에서 료금을 물것을 요구하는 택시운전사 양영식을 마구 때려 부상을 입혔다.

－2월 20일

◦ 밤 강원도(남) 춘천시 조양동 3가 앞길에서 거리를 싸다니던 미군야수가 리아무개(20살)를 강간하려다가 항거하자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3월 10일

경기도 성남에서 공군비행대소속 한 야수가 몰고가던 차를 성남시 오야동 앞길에 불법주차시킨것을 항의하는 김아무개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하여 40여일이상 치료를 받게 하였다.

－3월 19일

◦ 《팀 스피리트－89》합동군사연습에 돌아치던 미군찦차가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의 한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다가 마주 오는 소형뻐스를 들이받아 거기에 탔던 5명의 주민들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 《팀 스피리트－89》합동군사연습에 동원된 1해병대 악당들은 경상북도 영일군 소라면의 야산에서 훈련을 벌리다가 24정보의 산림을 불타게 하였다.

◎ 광란적으로 벌려놓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으로 강원도(남)에서는 159건의 건물 및 시설물피해와 120여건의 농작물피해를 비롯하여 각종 피해를 입었고 이 기간에 미군야수들이 감행한 살인, 강도, 폭행, 강간 등의 만행으로 입은 피해건수는 230여건에 달하였다.

－6월 1일

◦ 군산에 둥지를 틀고있는 공군기지 헌병대소속 로버트 제이. 토마스를 비롯한 4명이 거리를 싸다니다가 차병기형제와 윤주선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려 그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6월 10일

◦ 밤 미제침략군 야수가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에서 자기가 타고있던 택시운전사를 미리 준비하고있던 돌로 까눕힌 다음 현금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앞바다에서 전쟁연습을 벌리던 미공군기들이 고기잡이를 하던 배를 과녁으로 삼아 사격을 가하여 어민들에게 중상을 입히였다.

－8월 14일

◦ 3시경 공군부대소속 상병 엔더슨 로스, 플로이드 로고트 등이 부산시 련지1동에서 리아무개를 부근려관으로 끌고가 흉기로 위협하면서 륜간한 다음 달아났다.

◎ 미제침략군이 감행한 범죄건수는 1989년 한해동안에 810여건, 1981～1989년까지의 9년동안에는 1만 6 600여건에 달한다.

◎ 괴뢰법무부가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1989년 1～8월사이에 살인, 폭행, 강도, 강간, 사기, 행패 등 각종 범죄사건은 839건에 달하고있다.

◎ 남조선의 법조계조차 《년평균 1조 4 000억원에 이르는 미군주둔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미군범죄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우리가 떠맡는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불평등〈협정〉》이라고 하면서 더구나 해마다 평균 1 700여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하여도 그중 99.6%를 미군이 직접 재판하는 형편에서 범죄사실규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탄을 표시하였다.

1990년

－1월 11일

◦ 서울 룡산구 리태원동에 있는 한 집에 침입한 8군소속 윌슨 마틴이 주인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안주인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3월 16일

◦ 《팀 스피리트－90》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기 위하여 기여든 미군유조선이 중유를 류출시켜 영일군 연해를 뒤덮어 어장을 파괴하였다. 결과 많은 양식미역 등이 못쓰게 되고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3월 23일

◦ 부산시 동구에 있는 한 술집에 해군소속 크리스 토퍼가 뛰여들어 거액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다가 붙잡혔다.

－4월 8일

◦ 새벽 군용차를 몰고 거리를 돌아치던 미군병사가 서울 한남동에 있는 한 호텔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백성운을 치고 달아나려다가 그를 비롯한 10여명의 주민들이 완강히 항거하자 미군헌병 2명이 순찰차를 몰고 와서 권총을 휘두르면서 곤봉으로 그들을 마구 때리였으며 그중 한 주민을 자동차에 매달아 끌고다니였다.

◦ 서울에서 미군헌병들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다가 10여명의 주민들이 가로막자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곤봉으로 그들을 마구 때렸으며 이 광경을 보고 격분한 20명의 주민들에게도 폭행을 가하고 달아났다.

◎ 중순 전쟁연습에 광분하는 미제침략군에 의해 화재로 인한 폭발로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동에서 54채의 살림집들이 불타고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다.

－5월

◎ 대구에서 미제야수가 건늠길로 걸어가던 늙은이(녀자 62살)와 그의 아들을 군용차로 들이받아 어머니는 그자리에서 숨지고 아들은 중상을 당하였다.

－7월 4일

◦ 595경비중대소속 병장 조셉 시모아 등 4명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사를 위협하고 택시료금을 가로채였다. 성남경찰서는 미군강도들을 붙잡고도 상전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미군헌병대에 넘겨주었다.

－8월

◎ 경기도 려주상공에서 실탄사격에 날뛰던 미공군기의 비행사가 부모들의 농사일을 돕던 한 녀학생을 과녁으로 삼고 기총탄을 퍼부어 살해하였다.

－11월 19일

◦ 16시 30분경 미군헌병 10여명이 포사령부 정문앞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롱성을 벌리던 신원기업의 로동자들과 가족들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며 폭행을 가하여 10여명에게 부상을 입히였다.

－11월 20일

◦ 새벽 경기도 의정부시에 둥지를 틀고있는 2사단 포사령부 뒤문에서 신원기업의 로동조합장 최혜근 등 10여명의 로동자들이 비닐천막을 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철야롱성을 벌리자 미제야수들은 땅크와 장갑차 3대를 끌고나와 천막을 밀어 부셔버렸다. 이로 인하여 그곳에 있던 2명의 로동자들이 중상을 입었다.

－12월 13일－16일

◦ 4일동안 2사단소속 땅크 30대가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장현리와 롱토리일대에서 기동훈련을 하면서 50여호의 농경지 30만평을 짓뭉개놓고 달아났다

◎ 미제살인귀들이 녀학생을 대낮에 랍치하여 기지촌에 40여일동안이나 감금해놓고 그에게 온갖 추잡한 행위를 하면서 정신육체적고통을 주었다.

◎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에서 미제침략군 강도놈이 한 집에 뛰여들어 주인을 때려눕힌 다음 물건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 1990년 1～3월말까지 미제침략군의 각종 범죄는 170여건,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로 피해를 준 범죄행위가 70% 차지한다.

◎ 괴뢰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90년 상반년에 남조선에서 감행된 외국인범죄자는 1 121명인데 그가운데서 770명은 미제침략군이 차지하고있다. 그리하여 지난 상반년간 미제가 저지른 범죄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나 늘어났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가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의 강연내용을 전한데 의하면 해마다 미군의 범죄행위가 2 300～2 700건씩 감행된다고 폭로하였다.

1991년

－1월

◎ 8군 21수송중대 1등병 찰스 유진 버처가 차를 몰고 녀자《사냥》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이자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남면 소학동 앞길에서 장사를 하는 할머니에게 덮을것을 가져다주던 김아무개(11살)를 발견하자 그를 강제로 차에 태워 도주하려 하였다. 때마침 사건현상을 목격한 소녀의 아버지가 소리치며 급히 달려오자 소녀를 차밖으로 내던지고 꽁무니를 뺐다. 더러운 수욕을 채우려다가 실패한 이자는 이어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에서 집으로 가던 국민학교학생 최아무개(9살)를 랍치하여 찦차에 강제로 태워 외딴곳에 끌고가

울며 발버둥치는 어린것을 사정없이 때리고 칼로 위협하면서 강간하였다.

−3월 27일

◦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에 날뛰던 《F−15》 전투폭격기가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룡소리 민가에 추락되여 200m² 규모의 2층건물을 불태우고 많은 인명피해를 주었다.

−5월 6일

◦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에서 술에 취한 10여명의 미군야수들은 쇠몽둥이를 들고 가게방 유리창들을 들부시고 길가던 주민에게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다. 폭행전날에도 파주읍 거리에서는 이와 류사한 만행이 감행되였다.

◎ 경기도 포천군에 있는 사격장에서 전쟁연습을 벌리던 미군운전사가 술을 마신채 폭약을 만재한 군용차를 몰고 부락을 미친듯이 돌아쳐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였다.

−6월 3일

◦ 8군 21수송중대소속 1등병 찰스 유진 버처가 짚차를 몰고가다가 경기도 하남시에서 국민학교학생을 랍치하여 겁탈하였다.

미군만행의 피해자로 된 세 소녀는 그 충격으로 하여 밤에는 무서운 꿈을 꾸거나 자주 까무라치며 정신적불안상태에 있다. 그리고 짚차만 보면 부들부들 떠는 《짚차공포증》에 걸려 신음하고있다.(국민학교학생들에 대한 추행사건)

−6월 7일

◦ 새벽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2명의 미군이 길가던 한 녀성을 희롱하다가 그에 항의하는 주민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렀다.

−6월 15일

◦ 2보병사단 7기갑부대소속 2명의 미군야수들이 서울 룡산구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도 파주군의 부대부근까지 간 후 료금을 물 대신 운전사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7월 4일

◦ 새벽 부산시 동구에 있는 륙군보급창소속 포드를 비롯한 5명의 미군야수들은 술에 만취된채 돌아치다가 한 주민에게 달려들어 행패질을 하다가 그가 반항하자 마구 차고 때렸으며 이에 항거하는 2명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한 부상을 입혔다.

−8월 4일

◦ 전쟁연습에 날뛰던 미군직승기가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선유리 부락에 추락하여 살림집 6채가 파괴되고 불타버렸다.

－11월 20일

∘ 밤 7함대소속 야수들이 부산시 동구에서 한 뻐스운전사가 저들의 강도적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집단폭행을 가했다.

◎ 부산시 중구에서는 7함대소속 침략군놈들이 술집에 뛰여들어 당치 않은 구실로 시비질하며 기물을 마구 부시고 주인에게 폭행을 가했다.

◎ 서강대학교의 한 교수는 1991년 1～6월에 리태원동에서만도 320건의 미군범죄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폭로하였다.

1992년

－10월 28일

∘ 2사단 20련대 5대대소속 1등병 케네스 마이클이 동두천 기지촌의 2평남짓한 세방에서 사는 윤금이를 릉욕하고는 병으로 이마를 때려 즉사시키고 이어 음부에는 병을 틀어막고 홍문에는 우산을 꽂아놓고 달아났다.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윤녀성이 살해된 날 밤 1시 그의 세방에서는 케네스 마이클과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윤녀성이 밖으로 뛰쳐나오려 하자 미군야수는 그의 머리채를 휘여잡고 방안으로 끌고들어갔다. 방안에서는 무엇인가 쾅쾅 부딪치는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그것은 그자가 윤녀성의 이마를 병으로 련이어 내리치는 소리였다. 윤녀성의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방바닥에 쓰러져 운명직전의 마지막 몸부림을 쳤다. 그런데 이자는 그의 홍문에 우산을 26cm나 밀어넣고 자궁에다 병을 박아놓았다. 방안이 피로 질벅해지자 이자는 시체와 방안에 세척가루를 뿌리고 사라졌다. 제소굴로 돌아간 이자는 동료들에게 자랑삼아 사람을 죽이였다고 하면서 믿자 못하겠으면 현장에 함께 가보자고까지 줴쳤다.

이자는 체포될 때까지 피묻은 군화를 신고있었으며 괴뢰경찰은 미군살인범을 붙들어놓고도 조서 하나 받지 못하고 미군측에 고스란히 넘겼다.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농민의 딸로 태여난 윤금이는 가난으로 하여 중학교를 중퇴하여 16살에 서울에 와서 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고 벌이를 위해 평택과 동두천 등지를 떠돌아다니였다. 그가 세들었던 방에는 물을 끓여 마실 주전자도 없었다고 한다. (윤금이살해사건)

－11월 10일

∘ 8군소속 2명의 미군이 택시를 타고도 료금을 요구하는 운전사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11월 26일

∘ 경기도 평택군 대추리에서 2등병이 마을주민 강재석에게 무턱대고 맥주병을 던져 이발을 부러뜨리고 피투성이로 만들어놓고 달아났다.

－11월 28일

◦ 새벽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미군부대정문앞에서 택시운전사 김태웅이 차에 탔던 미군병사 3명에게 료금을 낼것을 요구하자 놈들은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리고 구두발로 걷어차서 쓰러뜨린 후 부대로 달아났다.

◎ 경기도경찰청이 발표한데 의하면 1992년 1～9월말까지 살인, 폭력 등으로 적발된 미군범죄는 160건에 169명에 달하였으나 이가운데 괴뢰당국에 구속된 미군범죄자는 1명도 없었다고 한다.

◎ 남조선신문이 폭로한데 의하면 1992년 한해동안에 발생한 미군범죄는 720여건이였으며 그중에서 괴뢰사법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는것은 불과 1.4%도 안된다고 하였다.

1993년

－1월 16일

◦ 새벽 륙군소속 상병 마크 외 4명은 룡산구 리태원동에서 택시를 훔쳐타고 달아나다가 붙잡혔다.

－1월 20일

◦ 오후 경기도 포천군 영등면 영평리일대에서 전쟁연습에 날뛰던 미제침략군이 주민지대 가까운 곳에서 마구 쏘아댄 포탄이 터져 포천군 영북면 야미리 광산골 마을입구에서 자동차를 몰고가던 고효석이 중상을 입었다.

－2월 28일

◦ 경기도 파주일대에서 전쟁연습을 벌려오던 미제침략군이 직승기를 저공비행시켜 10여채의 살림집을 파괴하고 주민들이 대피하게 하였다.

－5월 29일

◦ 2사단소속 병장 살로이스가 서울시 역삼동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녀주인 김국혜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괴뢰경찰은 범죄자를 붙잡고도 상부의 지시에 따라 그자를 미군헌병대에 고스란히 넘겨주었다. 남조선신문은 이 사건을 제2의 윤금이살해사건이라고 지적하였다.

－6월 29일

◦ 2사단소속 《B－55》 수륙량용장갑차 운전사 상병 젠킨스 데니스는 서울시 로원구 산계동 백병원앞에서 국민학교학생을 장갑차로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치명상을 입혔다.

－8월 4일

◦ 61경비대소속 한 야수가 서대문구 령천동 앞길에서 군용차로 고의적으로 길가는 로인과 소년을 깔아뭉개고 달아났다.

—9월 24일

◦ 뻐스를 타고 가던 미군장교를 비롯한 4명이 앞서가던 택시를 뒤쫓아가다가 고의적으로 들이받고 항의하는 운전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을 가해 부상을 입혔으며 이에 분노를 표시하는 3명의 부녀자들을 희롱하였다.

—10월 11일

◦ 서울 룡산구 리태원동에서 미군 2명이 현금운송중이던 은행직원들의 얼굴에 유독성액체를 뿌린 다음 현금과 돈표 8 600여만원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12월 16일

◦ 밤 경기도 파주군 영태리에서 1등병 리챠드 외 2명이 택시운전사를 흉기로 찌르고 돈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기간에 2 500여건의 각종 사건이 발생하여 32억 3 800만여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 1993년 1～8월에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는 600여건에 달하였다.

1995년

—1월 28일

◦ 경기도 련천군 대광리에서 전쟁연습에 돌아치던 2사단소속 스래브낸이 땅크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사 최경숙과 그의 동생을 즉사시켰다.

—5월 19일

◦ 술을 마신 13명의 미군이 서울지하철도 전동차안에서 한 녀성을 희롱하다가 그것을 목격한 조정국이 항의하자 무작정 그를 집단구타하여 얼굴과 온몸에 심한 부상을 입혀 중태에 빠뜨렸다.

—5월 21일

◦ 춘천에서 미제침략군이 달리던 택시를 멈춰세우고 승객들에게 마구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6월 9일

◦ 2사단소속 상병이 경기도 동두천에서 길가에 세워둔 승용차를 무턱대고 들이받아 파손시키고 그것을 항의하는 김영식을 마구 때리였다.

—8월

◎ 미제야수가 리아무개를 쓰러뜨리고 륜간한 후 하수도구멍에 처박았다.

－10월

◎ 경기도 동두천에서 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부대안으로 달아나는 미제침략군 2등병을 뒤쫓던 주민들이 미군헌병 하사가 풀어놓은 군견에 물어뜯겨 중상을 당하였다.

－12월 2일

◦ 밤 2등병 쥴리머가 술을 마시고 돌아치다가 춘천시 소양로 3가에 있는 진아무개의 집에 뛰여들어 강간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분풀이로 유리창을 부시며 란동을 부렸으며 이에 항거하는 집주인에게 달려들어 마구 폭행을 가하였다.

1996년

－1월 11일

◦ 서울 룡산구 리태원동에서 미제침략군 병사가 술을 처먹고 밤거리를 싸다니다가 정아무개에게 달려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반항에 부딪치자 그를 마구 때리였다.

◎ 2사단소속 히노 조시는 길가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부속품을 뜯어내다가 주인에게 들키게 되자 흉기로 그의 온몸을 때려 치명상을 입히고 차를 들부셨다.

◎ 경기도 파주군에서는 7명의 미제침략군이 지하철도안에서 역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전동차를 파괴하였다.

◎ 공군소속 상병 리챠드 제이는 저들끼리 싸움을 벌리던 끝에 그것을 말리는 주민을 싸움에서 진 분풀이로 때려 중상을 입혔다.

◎ 경기도 수평에서 미제침략군이 술을 처마신 후 도적질하고 달아나면서 살림집과 가장물들까지 파괴하였다.

◎ 서울시 서초동에서 미제야수가 조선녀성을 때려죽이였다.

◎ 동두천에서 하루동안 미군병사들이 승용차를 파괴하고 주민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2건이나 발생하였다.

－4월 23일

◦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2사단 포사격장에서 전쟁연습에 날뛰던 미제침략군에 의해 폭발사고가 나서 그것이 산불로 번져 여러명의 주민들이 죽었다.

－6월 22일

◦ 새벽 서울 강남구일대에서 술에 만취된채 거리를 싸다니던 상병 윌리암스 등 9명이 김성수를 비롯한 4명에게 생트집을 걸어 마구 폭행하고 부상을 입히였다. 그리고 괴뢰경찰에 끌려가서는 조사에 응할 대신에 오히려 책상을

들었다놓으며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질을 하였다.

－9월 7일

◦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에서 스티븐(22살)이 미군부대부근 술집에서 접대부로 일하는 리기순을 겁탈하려다가 항거로 뜻을 이룰수 없게 되자 목을 졸라 죽이고 그것도 성차지 않아 그의 온몸을 칼로 란도질하였다.

－9월 8일

◦ 미군병사가 한 녀성을 자기 집으로 유인하여 수갑과 테프로 결박해놓고 성폭행을 감행하였다.

◎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 체결된 이후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는 1996년에 줄어든것이 아니라 오히려 6배로 늘어났다.

1997년

－12월 31일

◦ 밤 미제침략군 깡패 20여명이 의정부에서 인천으로 가는 지하철도의 전동차안에서 무고한 주민들에게 집단폭행을 가했다.

◎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미제침략군 3명은 길을 가던 주민이 자기들의 어깨를 좀 스쳤다고 트집을 잡아 맥주병으로 머리를 까고 달아났다.

◎ 3명의 미제침략군이 교통신호를 기다리고있는 택시우에 기여올라가 란동을 부리다가 그것을 제지시키는 운전사와 주민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1998년

－1월 16일

◦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473야전시설지원중대소속 병장 헨릭스 터머시 제톰이 식당종업원 허주연의 세방에 침입하여 그의 두손을 결박하고 릉욕하고는 급소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다음 방안에 불을 질러 그를 태워죽이였다. 남조선당국은 1월 23일에 이자를 단속하였지만 압력에 눌리여 미군측에 고스란히 넘겨주었다.

◎ 포항앞바다 해상훈련장에서 미제침략군이 함포탄을 마구 쏘아 고기잡이를 하던 여러척의 배를 침몰시키고 100여차례나 고기그물을 파손시켰다.

1999년

－1월 27일

◦ 8군 해군정보국소속 하사관 제임스 퍼먼이 서울 룡산구에서 18년동안 성노리개로 삼고 갖은 학대를 가해오던 전지나(녀자)와 그의 자식 리보비(4살)를 끔찍한 방법으로 죽인 다음 서울 서초구 한남대교부근의 공원에 가

져다 시체들을 형체도 알아볼수 없게 불태워버리였다. 이자는 1981년부터 이 녀성을 성노리개로 삼고 갖은 학대를 일삼다가 본국으로의 귀환을 하루 앞두고 이런 끔찍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천인공노할 이 살인악당을 징벌할 대신 비굴하게 미군측에 고스란히 넘겨줌으로써 추악한 반민족적정체를 또다시 드러냈다.(전지나살해사건)

－5월 11일

◦ 충청북도 진천군 덕상면 석장리 돌섬마을에 6항공대소속 《아파치》 직승기들이 지상 20～30m까지 저공비행하여 농작물을 덮었던 비닐박막을 날려보내고 한창 자라던 담배, 고추, 호박, 과일나무들을 죽게 하였으며 수십마리의 어미돼지와 젖소들이 대량 류산되게 하였다.

－8월 1일

◦ 미군부대소속 나이크더가 울산에서 교통사고위험을 조성한데 대해 주민들이 항의하자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552헌병중대소속 스텐리 토비 알렌이 부산시 부산진구 련지동에서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달아나다가 가로막아나선 주민을 깨진 유리병으로 그의 온몸을 마구 찔러 심한 부상을 입혔다.

－11월 20일

◦ 해병전투항공대소속 2등병 마이클 등 2명이 경상북도 포항시 대흥동의 한 백화점에 뛰여들어 물건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다가 막아나선 주민들에게 마구 폭행을 가하여 심한 부상을 입혔다.

◎ 미군기지되찾기시민모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992년부터 7년 6개월기간 미군의 전쟁연습, 전쟁훈련소동으로 살상당한 주민은 무려 2 40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주민들은 미제침략군을 가리켜 살인군단이라고 저주와 규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 1998～1999년 8월말까지 미제침략군이 감행한 살인, 강도, 강간만행건수는 23건인데 공개된것은 겨우 3건뿐이였다.

◎ 1990년대말에 이르러 미제침략군의 살인, 폭행만행은 그 이전시기보다 2배로 증가하여 년평균 3 500여건에 이르렀다.

◎ 남조선정부는 경찰에 내린 한 지령에서 미군측의 승인없이는 만행사실을 공개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범죄발생의 원인을 추적하여 밝히지 말것을 쪼아박았다.

2000년

－1월 30일

18시경 경기도 동두천시 오산동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 야수

들이 부대사무실에서 신차금(45살)을 잡아다 륜간한 끝에 전기선으로 목을 졸라 죽이였다. (신차금살해사건)

—2월 19일

∘ 밤 서울 룡산구 리태원동의 외국인전용술집 안방에서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8군소속 상병 매카시가 종업원 김아무개(녀자 33살)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날 23시 30분경 이 녀성은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목이 졸린 상태로 피흘리며 침대에 쓰러진채 발견되였으며 현장에서는 미군에게 공급되는 속옷도 나타났다고 한다. 이날밤 함께 일하던 종업원 리아무개는 녀성종업원을 데리고 술을 마시던 미군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시각에 옷도 채 입지 못하고 황급히 달아나는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3월 10일

∘ 미제야수들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서아무개(녀자 60대)의 집에 뛰여들어 머리를 란타하여 죽이였다. 다음날인 11일 14시경에 이 녀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숨져있는 상태를 발견하였다.

—3월 28일

∘ 미군측이 남조선녀성을 살해한 8군소속 매카시를 괴뢰당국에 넘겨주기를 거절하였다. 괴뢰당국은 각계의 강력한 항의에 못이겨 뒤늦게야 살인범으로 구치소에 수감하기 위하여 《신병인도》를 요청하며 수선을 떨었지만 미군측은 《매카시상병이 미군구치소에 구속되여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떠벌이면서 범죄자의 인도를 거절하였다.

—4월 28일

∘ 매카시상병이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중 탈주하였다. 이자는 미군병영안에 있는 법무감실에서 자기의 변호인을 만난 후 창문을 뜯고 달아났다. 미군기지안의 교도소에 갇혀있던 이자가 룡산기지로 옮겨진 상태에서 도망침으로써 이날 오전 괴뢰지방법원에서 벌릴 예정이던 재판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괴뢰도당은 살인마를 저들의 구류장에 구속하지도 못하고 미군측에 넘겨준 상태에서 형식적인 재판놀음을 벌리려다가 그것마저 허탕을 친 형편에서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5월 8일

∘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사격장에서 500lb(폰드)짜리 폭탄 6개를 투하하여 폭음과 진동으로 수백채의 살림집을 파괴하고 새끼밴 수십마리의 소들이 류산되였다.

미제침략군 전투폭격기들의 무차별적인 폭탄투하연습으로 하여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앞바다에 있던 바위섬이 형체도 없이 날아나 지도상에서 없어

졌다.

◎ 미제는 1955년에 설치한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륙지와 해상 740만평의 쿠니사격장에서 방사성물질인 우라니움이 장착된 bdu탄(렬화우라니움탄)을 무수히 쏘아댐으로써 이곳 주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우고있다.

bdu탄은 폭발시에 많은 량의 방사능을 방출하게 되는데 그 후과는 암을 발생시키고 인체를 파괴하며 기형아를 낳게 하는 등 매우 엄중하다.

◎ 미군기지와 폭격장, 사격장주변에서 생활하는 443만여명에 달하는 주민들은 국제허용수치보다 2배이상이나 높은 100~110db의 소음공해로 수명감소, 청각장애, 신경쇠약, 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있다.

◎ 《중앙일보》가 밝힌데 의하면 1996~2000년 8월말까지 미군범죄자수는 656명이였는데 재판에 회부된자는 겨우 7명이였으며 그나마도 매우 형식적이였다.

2002년

-2월 12일

◦ 2사단 공병려단소속 미군악당이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에서 전쟁연습에 광분하면서 주민들이 통행을 가로막은데 대하여 항의한다고 하여 우정복을 총탁으로 때리고 총구로 얼굴을 마구 찔렀다.

-6월 13일

◦ 2사단 44공병대 운전사 마크 워커와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등은 장갑차를 타고 전쟁연습에 미쳐날뛰다가 동무의 생일을 축하하러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천리 56번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14살난 신효순, 심미선학생들을 보자 그들에게 접근하여 두세차례나 왔다갔다 하면서 짓뭉개놓아 형체도 알아볼수 없게 만들었다.(두 녀중생살인사건)

-6월 26일

◦ 미제침략군 10여명이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미군기지앞에서 두 녀중생들에 대한 살인만행에 항의하는 시민단체들과 대학생들의 시위를 취재하던 인터네트방송 《민중의 소리》 기자 2명에게 달려들어 곤봉으로 때리고 족쇄를 채워 미군류치장에 가두어넣었다.

-8월 2일

◦ 4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동 앞길에서 미군 2명이 길가던 방아무개에게 생트집을 걸어 폭행을 가하였다.

-8월 9일

◦ 2사단소속 워커 외 2명이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의 술집에서 맥주고뿌를 훔쳐가지고 도망치려다가 종업원 리아무개에 의하여 단속당하자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8월 16일

◦ 2사단소속 2명의 미군이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에서 택시를 타고가다가 운전사의 돈을 강탈하고 그를 몽둥이로 때려눕히고 달아났다.

－8월 17일

◦ 2사단소속 미군 2명이 보산동의 한 식당앞에서 택시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항의하는 운전사를 마구 때려 심한 부상을 입히였다.

－8월 23일

◦ 2사단소속 미제야수가 전쟁연습에 돌아치다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초리에서 농민들의 항거에도 불구하고 대형차로 논벼를 1시간동안이나 깔아뭉개였다.

－8월 31일

◦ 2명의 미군이 어느 한 상점의 진렬대에 앉아있다가 자리를 비켜줄것을 요구하는 주인을 마구 때려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히였다.

－9월 2일

◦ 저녁 2사단소속 상등병 코너 마크스 외 3명이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택시주차장 앞길에서 저들끼리 싸우다가 옆에 있던 택시를 파손시키고 운전사까지 때려눕히였다.

－9월 14일

◦ 미제침략군 머피 외 3명이 이전 국회의원 서경원이 두 녀중생추모제를 위해 경희대학교로 가던중 차안에서 추모행사를 알리는 선전물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자 그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여 코뼈를 부러뜨렸다.

－9월 16일

◦ 밤 2사단 공병려단 82대대소속 미제야수가 전쟁연습에 광분하다가 부교운반용차량으로 두 녀중생들이 죽은(2002년 6월 13일) 곳에서 불과 4km 떨어진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의 한 도로상에서 박승주의 차를 들이받아 즉사시켰다.

－9월 22일

◦ 밤 대구시 남구의 한 호텔에서 미군장교가 정아무개를 희롱하려다가 반항에 부딪치자 그를 때려눕히였다.

－11월 29일

◦ 경기도 평택시에 둥지를 틀고있는 1등병 제임스가 지나가는 박아무개(남자)에게 생트집을 걸면서 때려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히였다.

－12월 15일

◦ 서울에서 8군소속 웨이터를 비롯한 3명이 술을 마시고 미친듯이 차를 몰고가다가 뒤따라오던 승객들이 항의하자 그들을 구타하고 달아났다.

－12월 17일

◦ 아침 경기도 오산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군병장이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주민에게 폭행을 가한데 이어 부근에 있는 식당에 뛰여들어 술병을 집어던지며 란동을 부렸다.

－12월 21일

◦ 밤 2사단소속 병장 카일 등 2명이 경기도 의정부시 가릉동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치다가 부대로무자 김아무개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2사단 72땅크 1대대소속 2등병 윌리암스 토모리엘이 리유없이 리아무개(녀자)를 마구 때려 심한 부상을 입혔다.

◎ 2002년 미제침략군의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환경파괴오염 등 범죄건수는 600건이나 달한다.

◎ 괴뢰정부의 공식통계자료에 의하면 1967년부터 2002년말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5만 2 000여건에 달하며 범죄에 가담한 미제침략군은 5만 9 000여명에 달한다.

◎ 전후부터 2003년까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에 의하여 해마다 2 000건이상의 각종 범죄가 감행되였으며 이로 인하여 10만여명이 죽거나 부상당하였다. (《남조선문제》 2003년 4호, 29페지)

◎ 전후시기부터 2004년까지 8만 3 000여명이나 달하는 주민들이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에 의하여 죽었다. 강점 근 60년간 미제침략군의 만행건수는 30여만건에 달한다.

2005년

－6월 10일

◦ 14시경 2사단 55헌병대소속 브라이 인트는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평화로 네거리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손수레를 끌고 건늠길을 건너가던 김명자(녀자 50살)에게 화물차를 마구 몰아대여 고의적으로 깔아죽이였다.

－7월 2일

◦ 2사단소속 야수들이 한 주민을 맥주병으로 치고 발로 차서 치명상을 입혔다.

－7월 15일

◦ 22시경 2사단소속 3명이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는 택시우에 올라가 행패질을 해대며 란동을 부리다 못해 이에 항의하는 운전사에게 달려들어 집단구타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를 제지시키는 2명에게도 폭행을 가하였다.

－7월 16일

◦ 미제침략군 상등병이 경기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주인과 종업원 2명에게 목을 조이고 폭행을 가하며 란동을 부렸다.

－7월 30일

◦ 새벽 미군중사가 술을 마시고 서울시 상수동 홍익대학교 앞길에서 길가던 주민을 맥주고뿌로 마구 때려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히였다. 괴뢰사법당국은 비굴하게 범죄자를 재판도 하지 않고 고스란히 미군에 넘겨주었다.

◎ 2000～2005년 8월사이에 미제침략군의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무려 780여건에 달하였으나 범죄자들은 구속은 커녕 아무런 법적처벌도 받지 않았다.

◎ 2009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그 가족들에 의한 폭력, 강도, 강간행위는 그전해에 비해 64%나 늘어났다.

전후 남조선에서 감행된 미제의 범죄적만행자료집

집필 정진철
심사 박사 부교수 김병철, 리훈혁
편집 서재혁 장정 조근호 편성 리경희 교정 허인희

낸 곳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주체104(2015)년 5월 5일 발행 주체104(2015)년 5월 15일

ㄱ－55044

우편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장경2동
전화번호 572－5108

©ISBN 978－9946－1－0213－9
DPR Korea